

정책보고서 2015-49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정기혜 . 최정수 . 이경윤 . 김동영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책임연구자】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어린이식생활 안전지수 세부지표 개발 연구
식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최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동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1
제2절 연구의 내용	2
제3절 연구 및 분석방법	42
제2장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현황 및 통계 발전 방안	1..... 3
제1절 총괄 현황	3
제2절 한국	3
제3절 미국	4
제4절 유럽	5
제5절 일본	5
제6절 시사점	9
제3장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설계	5·9
제1절 조사설계	9
제2절 2015년 조사계획	14
제3절 사전조사	17
제4장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90 1
제1절 조사 계획	111
제2절 조사 결과	1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6

제5장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361
제1절 조사 계획	15
제2절 조사 결과	1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3
제6장 2015년을 포함한 연도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7·1·2
제1절 조사계획	29
제2절 조사결과	23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33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
제1절 결론	267
제2절 정책제언	26
참고문헌	271
부록	275
부록 1.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52

표 목차

〈표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5
〈표 2〉 패널표본 설계 기본원칙	5
〈표 3〉 조사실시 개요	6
〈표 4〉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부가조사 구성	7
〈표 5〉 조사 선호 방법	8
〈표 6〉 2014, 2015년 전체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9
〈표 7〉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9
〈표 8〉 세부영역별 2014년,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평균값 비교	11
〈표 9〉 2015년 상·하반기 안전체감도 총괄 비교	12
〈표 10〉 2015년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비교	13
〈표 1- 1〉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부가조사 구성	22
〈표 1- 2〉 표본설계 기본원칙	52
〈표 1- 3〉 맞춤형 조사방법	62
〈표 1- 4〉 조사설계 개요	72
〈표 2- 1〉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인식조사	33
〈표 2- 2〉 개발가능 통계 목록	73
〈표 2- 3〉 통계 관리방식 개선안 전후 비교표	34
〈표 2- 4〉 신뢰성 검증근거 통계 등의 관리 방안(안)	44
〈표 2- 5〉 통계관리 범위 확대 개선안 전후 비교표	54
〈표 2- 6〉 미국 Food & Health Survey 조사 개요	84
〈표 2- 7〉 미국 Food & Health Survey 조사 중 식품안전 관련 문항	84
〈표 2- 8〉 유럽 Standard Eurobarometer 조사 개요	75
〈표 2- 9〉 최근 조사된 Special Eurobarometer	85
〈표 2-10〉 유럽 Special Eurobarometer 354(식품 관련 위해) 조사 개요 (2010년)	95
〈표 2-11〉 유럽 Eurobarometer - 식품 관련 위해 조사 항목	95
〈표 2-12〉 영국 Tracker 조사 개요	76
〈표 2-13〉 영국 Tracker 조사 내용	86
〈표 2-14〉 식품안전모니터 구분	67
〈표 2-15〉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조사의 세부내용	77
〈표 2-16〉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과 정보원” 조사의 세부내용	38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3- 1〉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7·0·9
〈표 3- 2〉 표본설계 기본원칙	9·0·9
〈표 3- 3〉 모집단 분포 현황	001
〈표 3- 4〉 식품패널 분포	101
〈표 3- 5〉 표본설계 세부내역	201
〈표 3- 6〉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대상계층별 오차발생 현황	3·0·1
〈표 3- 7〉 조사실시 개요	401
〈표 3- 8〉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구성	5·0·1
〈표 3- 9〉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부가조사 구성	6·0·1
〈표 3-10〉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값	701
〈표 4- 1〉 상반기 조사개요	111
〈표 4- 2〉 조사 선호 방법	211
〈표 4- 3〉 조사대상 식품패널 현황	3·1·1
〈표 4- 4〉 상반기조사 조사 성공률 현황	3·1·1
〈표 4- 5〉 조사표의 Cronbach's alpha 값(패널)	4·1·1
〈표 4- 6〉 조사표의 Cronbach's alpha 값 (패널, 전문가 전체)	4·1·1
〈표 4- 7〉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1·1
〈표 4- 8〉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6·1·1
〈표 4- 9〉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7·1·1
〈표 4-10〉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8·1·1
〈표 4-11〉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8·1·1
〈표 4-12〉 내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9·1·1
〈표 4-13〉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0·2·1
〈표 4-14〉 세부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1·2·1
〈표 4-15〉 정보 구득 매체	321
〈표 4-16〉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1
〈표 4-17〉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421
〈표 4-18〉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	5·2·1
〈표 4-19〉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6·2·1
〈표 4-20〉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7·2·1
〈표 4-21〉 패널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8·2·1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22〉	전문가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9·2·1
〈표 4-23〉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2015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0·3·1
〈표 4-24〉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1·3·1
〈표 4-25〉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231
〈표 4-26〉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3·3·1
〈표 4-27〉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4·3·1
〈표 4-28〉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5·3·1
〈표 4-29〉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정도	6·3·1
〈표 4-3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7·3·1
〈표 4-31〉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8·3·1
〈표 4-32〉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3·1
〈표 4-33〉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041
〈표 4-34〉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1·4·1
〈표 4-35〉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241
〈표 4-36〉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3·4·1
〈표 4-37〉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441
〈표 4-38〉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5·4·1
〈표 4-39〉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6·4·1
〈표 4-40〉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7·4·1
〈표 4-4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8·4·1
〈표 4-4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세부변수별 분석	9·4·1
〈표 4-43〉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0·5·1
〈표 4-44〉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1·5·1
〈표 4-45〉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2·5·1
〈표 4-46〉	조사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3·5·1
〈표 4-47〉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5·1
〈표 4-48〉	조사대상자 특성별 영향요인	5·5·1
〈표 4-49〉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6·5·1
〈표 4-5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7·5·1
〈표 4-51〉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8·5·1
〈표 4-52〉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9·5·1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53〉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패널)	0·6·1
〈표 4-54〉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전문가)	1·6·1
〈표 5- 1〉 본조사 구축 개요	561
〈표 5- 2〉 조사 선호 방법	661
〈표 5- 3〉 하반기조사 조사 성공률 현황	7·6·1
〈표 5- 4〉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6·1
〈표 5- 5〉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9·6·1
〈표 5- 6〉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0·7·1
〈표 5- 7〉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1·7·1
〈표 5- 8〉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1·7·1
〈표 5- 9〉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2·7·1
〈표 5-10〉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3·7·1
〈표 5-11〉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4·7·1
〈표 5-12〉 정보 구득 매체	671
〈표 5-13〉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7·1
〈표 5-14〉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771
〈표 5-15〉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871
〈표 5-16〉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9·7·1
〈표 5-17〉 불량식품의 근절되지 않는 이유	0·8·1
〈표 5-18〉 조사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1·8·1
〈표 5-19〉 전문가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2·8·1
〈표 5-20〉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3·8·1
〈표 5-21〉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4·8·1
〈표 5-22〉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581
〈표 5-23〉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6·8·1
〈표 5-24〉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7·8·1
〈표 5-25〉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8·8·1
〈표 5-26〉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981
〈표 5-27〉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0·9·1
〈표 5-28〉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1·9·1
〈표 5-2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2·9·1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표 5-30〉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391
〈표 5-31〉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4·9·1
〈표 5-32〉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5·9·1
〈표 5-33〉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6·9·1
〈표 5-34〉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7·9·1
〈표 5-35〉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8·9·1
〈표 5-36〉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9·1
〈표 5-37〉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0·0·2
〈표 5-38〉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1·0·2
〈표 5-39〉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의 세부변수별 분석	2·0·2
〈표 5-40〉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3·0·2
〈표 5-41〉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4·0·2
〈표 5-42〉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5·0·2
〈표 5-43〉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6·0·2
〈표 5-44〉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0·2
〈표 5-45〉	조사대상자 특성별 영향요인	8·0·2
〈표 5-46〉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9·0·2
〈표 5-47〉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0·1·2
〈표 5-48〉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1·1·2
〈표 5-49〉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2·1·2
〈표 5-50〉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패널)	3·1·2
〈표 5-51〉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4·1·2
〈표 5-52〉	2015년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비교	5·1·2
〈표 6- 1〉	2015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패널)	9·1·2
〈표 6- 2〉	2015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전문가)	0·2·2
〈표 6- 3〉	2015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패널의 목표대비 비율	1·2·2
〈표 6-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2
〈표 6- 5〉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3·2·2
〈표 6- 6〉	2015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체감도 일치도 평가	5·2·2
〈표 6- 7〉	2015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패널 체감도 비교	6·2·2
〈표 6- 8〉	2015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전문가 체감도 비교	8·2·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6-9〉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9·2·2
〈표 6-10〉 세부영역별 2014년,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평균값 비교	1·3·2
〈표 6-11〉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2·3·2
〈표 6-12〉 2015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4·3·2
〈표 6-13〉 2015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4·3·2
〈표 6-14〉 2015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6·3·2
〈표 6-1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7·3·2
〈표 6-16〉 2015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9·3·2
〈표 6-17〉 2015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9·3·2
〈표 6-18〉 2015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1·4·2
〈표 6-19〉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2·4·2
〈표 6-20〉 2015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4·4·2
〈표 6-21〉 2015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4·4·2
〈표 6-22〉 2015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6·4·2
〈표 6-23〉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7·4·2
〈표 6-24〉 2015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9·4·2
〈표 6-25〉 2015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0·5·2
〈표 6-26〉 2015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1·5·2
〈표 6-27〉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2·5·2
〈표 6-28〉 2015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4·5·2
〈표 6-29〉 2015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4·5·2
〈표 6-30〉 2015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6·5·2
〈표 6-31〉 2015년 상·하반기 정보 구득 매체 비교	7·5·2
〈표 6-32〉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비교	8·5·2
〈표 6-33〉 2015년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9·5·2
〈표 6-34〉 2015년 상·하반기 정책이 잘 추진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비교	0·6·2
〈표 6-35〉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인지 정도 결과 비교	1·6·2
〈표 6-36〉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비교	2·6·2

그림 목차

[그림 1- 1]	자료처리 과정	9	2
[그림 1- 2]	연구추진체계	10	3
[그림 2- 1]	통계작성기관 범위	1	4
[그림 2- 2]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한 신뢰도	3	5
[그림 2- 3]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2015년)	4	5
[그림 2- 4]	식품 구매시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2014년)	4	5
[그림 2- 5]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신뢰도 차이에 따른 비교 분석)	5	5
[그림 2- 6]	정보를 얻는 경로	6	5
[그림 2- 7]	문항별 식품 및 식사와 관련된 정도	3	6
[그림 2- 8]	문항별 식품 및 식사와 관련된 정도 -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국가별)	4	6
[그림 2- 9]	문항별 잠재적 위험 발생의 가능성	5	6
[그림 2-10]	식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6	6
[그림 2-11]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1	7
[그림 2-12]	성별에 따른 우려하는 식품안전 현안을 선택한 수 비교	2	7
[그림 2-13]	판매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의 시계열적 변화	3	7
[그림 2-14]	FSA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	4	7
[그림 2-15]	FSS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	5	7
[그림 2-16]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분야별 불안정도	9	8
[그림 2-17]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정도 시계열 분석	10	9
[그림 2-18]	일본 식품안전모니터가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 1	1	9
[그림 2-19]	일본 식품안전모니터가 안정성을 신경쓰지 않게 된 위해요소	2	9
[그림 3- 1]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절차	8	9
[그림 4- 1]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6	1
[그림 4- 2]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비교	2	1
[그림 5- 1]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9	1
[그림 5- 2]	분야별 식품안전체감 정도	5	1
[그림 6- 1]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4	2
[그림 6- 2]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3	2
[그림 6- 3]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8	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그림 6- 4]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3·4·2
[그림 6- 5]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8·4·2
[그림 6- 6]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3·5·2

Abstract <<

Title: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5

As one of the presidential agenda, study of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13 and biannual study was implemented from 2014. To the present, the survey was carried out five times. Especially, from 2015, not only Food panel, but also expert from various food areas was added as a research subject. Also, some modifications on the supplement survey area were conducted. From this, the promotion level of dozens of leading food policies was examined. Above this, analyzing consumer's perception of major countries and deriving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ood sector statistics were performe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and to implement the survey of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to calculate the level of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5. Detail purposes are as follows; 1) Build up the survey system for 2015 study; 2) Develop questionnaire for supplement survey area; 3) Implement survey for food expert; 4) Investigate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in first and second half of 2015; 5) Calculate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in 2015; and 6) Suggest policies for research efficiency of next year survey.

The survey was largely made up of two parts: basic survey and supplement survey. In basic survey, overall food safety management level and five investigation areas, which are safety of imported food; safety of food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safety of eating out; safety of communal food service; and safety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and evaluation on level of food

safety management were studied. In supplement survey, with addition of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food safety policy and the reason of good evaluation on the policy, factors affecting food safety, using the information related with food safety, rooting out low-quality food were studied. Overall Cronbach's alpha value appeared as 0.82 which was higher than last year, 0.81, meaning reliable.

In the first study from first half of the year, total 995 of food panel and 162 of food experts completed the survey. Overall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of panel was 74.3% and level of experts was 89.5%. Safety level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was 45.6% of panel and 60.5% of expert which were the lowest among five areas.

In the second study, total 984 people competed the survey. Overall consumer's perception level of food safety of panel was 89.5%, which is highest level so far, and level of experts was 94.6%. Safety level of selling food around schools was 51.5% of panel and 72.3% of expert which were the lowest among five areas.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lternative social study of Statistics Korea(KOSTAT) and presidential agenda of current government. However, it has not approved for national statistics yet and composition of panel is not statistically perfected either. Therefore, appropriate plan for the study and panel would be needed.

* Key Words: Consumer's perception of food safety in 2015, Building up survey system, Supplement surve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3년부터 국정과제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2015년에도 상, 하반기로 나뉘어 2번 조사를 실시하여 총 5회차 조사를 실시되었고, 조사결과는 회차별, 상하반기별, 연도별로 비교, 분석이 실시 되었음

특히 2015년에는 전문가 조사가 추가되었으며 부가조사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10여개 대표 식품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를 조사하여 안전체감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도출되었음

그리고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우리나라 통계 발전 계획하에 식품안전체감도 및 식품분야 통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2011년 국무총리실 수탁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도출한 조사설계를 바탕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패널조사가 추진되는 있는데 패널수가 1,000명에 불과해 17개 시도별 분석은 표본오차가 커서 수행할 수 없는 등의 미흡한 점이 있는 실정임.

조사비용의 절감, 조사의 효율화 등을 위해 통계청에서는 인터넷 조사 확대, 행정자료 활용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동향에 걸맞게 2015년 조사에서 방문에 의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조사방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현 패널의 경제적, 학력 등의 평균 수준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통계청의 사회조사 중 식품안전분야를 대체하려고 하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실시의 목적에 입각하여 2015년 식품안전 체감도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갖고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음

- 첫째, 전문가 조사 추가 등 조사설계 수정
- 둘째, 부가조사 개선 및 설문지(Questionnaire)보완
- 셋째,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소비자 조사 현황 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
- 넷째,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 다섯째,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 여섯째, 2013년부터 연도별 시계열 분석
- 일곱째, 향후 식품안전체감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 주요 연구결과

가. 조사설계

<표 1>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내용이 제시되어있음
2014년 조사에 참여했던 식품패널의 85% 정도가 2015년 식품패널로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의 조사가 실시되었음

- 올해는 특히 전문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조사가 추가되었음

<표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안전체감도 조사	
조사내용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조사구분	표본조사	
조사종류	패널조사	
패널규모	1,200명	조사 성공률 고려
표본추출	층화비례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	
조사주기	1년 2회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인터넷조사	
자료수집	설문조사법	
조사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및 사회조사센터	
조사주체	국무조정실	
결과발표	7월, 12월	

나. 표본설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 원칙 하에 설계되었는데 조사대상단위는 개인으로 하며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패널의 표본추출단위(Sampling Unit)는 성, 연령, 지역이었음

<표 2> 패널표본 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식품패널은 총 1,272명이 선정되었음

전문가 조사대상자는 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230명이 유작위 추출에 의해 선정되어 조사가 실시되었음

다. 조사실시

사전조사와 상반기, 하반기 조사가 <표 3> 제시된 바와 같이 실시되었음

<표 3> 조사실시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식품패널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6월 29일 ~ 7월 2일
상반기 조사	식품패널	1,272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6월 29일 ~ 7월 10일
	전문가	230명	전수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상동
하반기 조사	식품패널	1,200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11월 19일 ~ 11월 30일
	전문가	230명	전수	상동	상동

전문가 조사 추가, 부가조사 일부 내용 수정 등으로 2015년 사용되는 설문지에 대한 통계학적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계산하니 전체 항목은 0.82로 2014년 0.81보다 높게 나타났음.

라. 설문지 보완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13년에 개발된 것을 바탕으로 10개 조사영역(수입 식품, 단체급식, 외식,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등)의 총 14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전체감도 등 조사는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로 개발되었음

- 2015년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기본조사는 2014년과 동일하나 부가조사의 경우는 <표 4>과 같이 조사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설문지도 수정, 보완되었음

<표 4>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부가조사 구성

평가 영역	평가 문항
식품안전 관련 정보 이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귀하께서 평소에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복선택) 11.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12. 다음 정책 중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①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③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④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⑤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⑥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⑦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⑧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⑨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⑩ 나트륨 줄이기 운동 ⑪ 기타 12-1.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②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③ 식품관련 사건·사고 감소 ④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⑤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⑥ 기타
불량식품 근절	13. 귀하께서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4. 귀하께서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 조사대상자별 맞춤형 조사방법 활용

2014년 조사에서는 파악된 개인별 선호하는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음

- 다만, 조사비 절감 및 조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면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표 5> 조사 선호 방법

(단위: 명)

구분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변동
합계		1,494	1,494	-
전화조사	패널	427	384	-43
	전문가	18	16	-2
인터넷조사	패널	835	810	-25
	전문가	199	204	+5
대면조사	패널	10	6	-4
	전문가	5	0	-5
대체표본	패널	-	72	+72
	전문가	-	2	+2

바. 주요 조사결과

1) 기본조사

2013년 구축되고, 매년 대체표본이 선정되지만 2015년 식품패널의 유지율이 85%대로 나타나 2015년 패널조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6>에는 2014년과 2015년 상하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도 (식품안전체감도)와 각 주요영역별 안전체감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음

- 2015년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의 평균 결과는 77.0%로 작년의 73.8% 대비 3.2%포인트 상승하였음. 회차별로 보면 2015년 하반기에 식품안전

체감도가 79.6%로 작년 73.2% 대비 6.4%나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음
 - 역대 회차별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음

<표 6> 2014, 2015년 전체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패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14년	2차	74.4	970	1.1	24.4	49.2	24.1	1.1
	3차	73.2	974	1.9	25.0	48.5	24.3	0.4
	2·3차 평균	73.8	-	1.5	24.7	48.9	24.2	0.8
'15년	4차	74.3	995	1.8	23.9	53.4	20.2	0.7
	5차	79.6	984	1.1	19.3	53.0	26.2	0.4
	4·5차 평균	77.0	-	1.5	21.6	53.2	23.2	0.6

○ 세부영역별로 보면 2015년 하반기에는 패널은 단체급식 안전체감도가 74.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은 여전히 제조·유통식품 안전으로 70.7%로 나타났음. 또한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은 51.5%, 수입식품 안전이 56.6%로 모든 세부영역이 모두 50%를 넘기는 결과를 보였음. 특히 수입식품안전은 2014년 51.5%에서 약 5% 정도 상승하는 조사결과를 나타냈음

<표 7>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회차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수입식품 안전	1차	52.9	928	7.8	39.3	42.4	9.7	0.9
	2차	52.1	970	5.9	42.1	41.0	10.7	0.3
	3차	51.5	974	7.9	40.6	38.8	12.3	0.4
	4차	51.3	995	5.0	43.7	37.5	13.4	0.4
	5차	56.6	984	5.2	38.2	41.1	14.9	0.6
	4, 5차 평균	54.0	-	5.1	41.0	39.3	14.2	0.5

제조·유통 식품 안전	1차	79.4	928	1.4	19.2	54.0	24.6	0.9
	2차	77.5	970	1.4	21.0	57.4	19.8	0.3
	3차	78.8	974	1.3	19.9	56.3	21.9	0.6
	4차	69.1	995	2.2	28.6	46.3	22.0	0.8
	5차	70.7	984	1.6	27.6	49.5	20.3	0.9
	4, 5차 평균	69.9	-	1.9	28.1	47.9	21.2	0.9
외식 안전	1차	74.5	928	2.6	23.0	58.0	16.1	0.4
	2차	69.8	970	2.2	28.0	54.9	14.4	0.5
	3차	74.9	974	1.5	23.6	57.9	16.4	0.5
	4차	68.7	995	3.5	27.7	51.6	16.7	0.5
	5차	67.8	984	2.4	29.8	48.7	18.7	0.4
	4, 5차 평균	68.3	-	3.0	28.8	50.2	17.7	0.5
단체급식 안전	1차	73.4	928	2.4	24.3	46.4	25.8	1.2
	2차	75.7	560	2.5	21.8	42.1	31.8	1.8
	3차	81.3	512	2.7	16.0	45.1	32.8	3.3
	4차	77.2	474	2.3	20.5	41.8	32.5	3.0
	5차	74.2	507	3.0	22.9	40.0	32.0	2.2
	4, 5차 평균	75.7	-	2.7	21.7	40.9	32.3	2.6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체감도	1차	43.0	928	11.1	45.9	34.2	8.4	0.4
	2차	47.7	970	6.3	46.0	36.8	10.6	0.3
	3차	51.6	974	5.7	42.7	38.0	12.9	0.7
	4차	45.6	995	6.3	48.0	38.0	7.2	0.4
	5차	51.5	984	6.2	42.3	41.0	10.4	0.2
	4, 5차 평균	48.6	-	6.3	45.2	39.5	8.8	0.3

세부영역에 대한 회차별 평균값 비교는 <표 8>에 제시되어있음

- 2014년 대비 수입식품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의 체감도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백수오 사건’ 및 ‘가공육의 발암성에 대한 WHO 발표’ 영향 등으로 제조가공식품분야의 안전체감도는 하락폭이 8.3%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전문가 조사는 2015년부터 추가되었기 때문에 2015년 상하반기 현황만 제시됨

〈표 8〉 세부영역별 2014년,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평균값 비교

(단위: %)

구분	'14년 대비 증감	패널								전문가		
		2015년				2014년				2013년	2015년	
		평균	상·하 대비	하반기	상반기	평균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	2.2	54.0	5.3	56.6	51.3	51.8	51.5	52.1	52.9	72.9	65.4	
제조·유통 식품 안전	-8.3	69.9	1.6	70.7	69.1	78.2	78.8	77.5	79.4	86.8	85.2	
외식 안전	-4.1	68.3	-0.9	67.8	68.7	72.4	74.9	69.8	74.5	78.9	74.7	
단체급식 안전	-2.8	75.7	-3.0	74.2	77.2	78.5	81.3	75.7	73.4	86.0	89.5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1.1	48.6	5.9	51.5	45.6	49.7	51.6	47.7	43.0	72.3	60.5	

세부분석은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권역의 6가지 변수별로 수행되었음

2015년 상·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를 조사계층간 비교해 보면 하락한 계층 보다는 상승한 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별로 보면 안전체감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고, 학력별로 보면 대졸 층이 상대적으로 다른 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소득 수준별로 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체감도가 낮아지다가 200만원대에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V자 형태의 분포를 보였음

연령별로 보면 50대, 권역별로는 중부권, 직업별로는 무직에서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어 작년(60대, 영남권, 공무원)과 차이를 보였음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패널, 전문가 모두 방송매체가

최고로 조사되었고, 여자, 높은 연령층의 방송매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패널과 어린 연령층에서 본인의 경험과 가족의 권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학생층의 불량식품 정책 인지도가 50% 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조사결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홍보강화 대상층인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9〉 2015년 상·하반기 안전체감도 총괄 비교

구분		2015년 상·하반기 비교			중복 응답자
		전체 체감도 변화	상승한 그룹	하락한 그룹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패널	상승	남성, 여성 50대, 60대 이상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100만원대, 300만원대 중졸 이하, 고졸 자영업, 무직	-	842명
	전문가	상승	40대 호남권	-	132명
학교주변 판매식품	패널	상승	여성 40대, 50대 호남권 100만원대 대졸 이상 무직	-	842명
	전문가	상승	40대	-	132명
수입식품	패널	상승	100만원대	-	842명
	전문가	상승	-	-	132명
외식	패널	하락	-	-	842명
	전문가	상승	-	300만원대	132명
제조·유통 식품	패널	하락	-	자영업	842명
	전문가	상승	-	-	132명
단체급식	패널	하락	-	수도권 주부	396명
	전문가	하락	-	-	90명

2) 부가조사

2015년에는 부가조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음. 특히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여 대표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추진 체감도가 조사되었음

- 중복응답 기법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모두 선정하는 방식으로 상반기에 총 2,817명(건), 하반기에 3,009명(건)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 패널의 경우 상반기에 HACCP 인증, 나트륨 줄이기 운동, 식중독 예방 등의 순으로 추진이 잘되었다고 평가하였고, 하반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3 순위로 조사되었음
- 전문가는 상반기에 HACCP 인증, 식중독 예방, 표시확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하반기는 HACCP 인증, 표시확대, 나트륨 줄이기 운동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10> 2015년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비교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5 상반기	'15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16.0	16.1	24.2	21.0
나트륨 줄이기 운동	12.5	13.1	10.4	11.5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12.2	10.8	12.3	11.1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11.7	10.6	11.4	12.0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9.6	11.4	7.3	9.7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8.9	8.7	8.7	10.0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7.5	8.5	6.1	7.2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7.0	7.4	5.6	5.4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6.8	7.2	7.3	5.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6.0	5.6	6.5	6.6
기타	1.7	0.7	0.2	0.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3. 정책제언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체계 재 설계

- 2013년부터 조사를 실시해온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설계는 2011년 국무총리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수탁과제 결과를 근거로 시작되었음. 하지만 이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화하면서 조사설계 목적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조사규모 등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노정되었음. 애당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적으로 패널 수도 1,000명으로 국한하였으나 현재 4대 불량식품 근절의 한 축으로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대체하기에는 조사대상 규모가 적어 지역별 조사 결과도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다음 정부에서 가칭 제2기 식품안전 패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설계가 내년부터 향후 2년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 및 표본설계, 패널 구축, 조사표 개발 및 사전조사가 우선 실시되어야만 2018년부터 사회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패널 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임

부가조사 내실화

- 2015년은 2013년 처음 설문지가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나뉘어 개발된 이래 처음으로 부가조사 내용을 수정하여 조사가 실시되었음
- 부가조사는 해마다 현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는 조사로 올해는 10여개 대표적인 식품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를 조사하여 안전체감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되었으나, 상반기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를 조사 못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여 명년에는 더욱 충실한 부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조사대상 전문가 무작위 추출

- 현재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20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가 2회차 실시되었는데 평균 식품안전체감도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어 이 수치의 정확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즉, 내년에는 무작위로 전문가를 추출하여 올해와 동일한 기본, 부가 조사를 실시해보면 유작위추출로 선정된 올해 전문가 체감도와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임

* 주요용어: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세부영역별 안전체감도, 조사설계, 부가조사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 및 분석 방법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식품안전체감도는 70점에서 75점 사이의 답습된 점수를 보여 왔는데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는 79.5%으로 다른 회차 조사 결과보다 약 5% 이상 상승된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상승한 것은 2015년 하반기 조사는 상반기의 백수오 사건외에는 큰 사회적 사건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조사가 실시되었고, 그간 식약처의 정책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큰폭의 상승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2013년부터 매년 1,000명의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총 2회의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분되어 실시되는데 두 조사의 응답체계는 5단계 리커르트 척도(매우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로 구성되었다. 기본조사에서 평가영역별로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모두 더한 % 값을 식품안전체감도라 일컫는다.

이런 조사방식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준용된 것이다.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가 국정과제로 매년 추진되고 있고, 또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식품분야가 독립을 하면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로 대체되어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나 여전히 표본설계 등에 문제가 있어 국가통계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안전영역에서 불량식품과 식중독 단 두가지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결과 활용 등 파장력은 통계청 조사가 더 큰 것으로 체감되어 식품안전체감도의 완전한 역할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다른 해와 달리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일반인인 식품패널 대상의 식품안전체감도 수준 평가 외에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부가조사 내용을 수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부가조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요하고, 대표적인 10여개 식품정책에 대한 추진 인식도 및 잘 추진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타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식품안전체감도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식품패널보다 상하반기 모두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인식의 간극을 보여 주었고, 이런 인식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즉,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다분히 경험, 주변 의견 등에 영향을 받아 안전보다는 안심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

올해로 식품안전체감도는 총 5회 조사가 실시되어 회차별 결과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에서 의미 있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사회통계를 대신하지 못하고 있는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통계청에서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한 우리나라 국가통계 발전방안에 입각하여 향후 운영 및 발전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목표, 내용 및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고, 제2장은 식품안전체감도의 발전을 위해 국내 통계청의 향후 국가통계 발전방향 및 주요국의 인식조사 실시 현황이 정리되어있다. 제3장은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조사설계 및 사전조사 실시 결과가 분석되어있고, 제4장은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결과가 분석되어있으며, 제5장은 2015년 하반기 조사 결과가 분석 되었다. 제6장에서는 2013, 2014, 2015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는 이 연구의 결론과 정책제언이 개진되어있다.

1) 정기혜 외,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2014.

3.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13년 하반기에 1회차 조사부터 시작되어 2014, 2015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2회 조사를 실시한 식품안전체감도의 조사설계, 조사실시, 조사결과의 분석 등으로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함이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통계학적인 표본추출 등을 하기 위한 조사설계
- 둘째, 부가조사 개선 및 설문지(Questionnaire)보완
- 셋째,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소비자 조사 현황 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
- 넷째,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 다섯째,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 여섯째, 2013년부터 연도별 시계열 분석
- 일곱째, 향후 식품안전체감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제2절 연구의 내용

1. 기존 자료 검토 및 분석

- 1) 상하반기 년 2회 조사에 따른 조사설계에 대한 검토
- 2)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 대한 기존 문헌 등의 고찰
- 3) 미국, 유럽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 현황 파악
- 4) 통계청의 향후 국가통계 발전방향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도출

2. 부가조사 내용 변경 및 설문지(Questionnaire) 보완

- 1) 부가조사 내용을 10가지 주요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인식조사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설문지 보완(<표 1-1> 참조)

- 2) 부가조사 내용 변경에도 설문지 조사체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체계 준용
- 3) 기본조사 내용은 시계열 분석을 위해 2013년과 동일한 체계 유지

〈표 1-1〉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부가조사 구성

평가 영역	평가 문항
식품안전 관련 정보 이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귀하께서 평소에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복선택)
	11.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12. 다음 정책 중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①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③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④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⑤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⑥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⑦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⑧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⑨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⑩ 나트륨 줄이기 운동 ⑪ 기타
	12-1.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②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③ 식품관련 사건·사고 감소 ④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⑤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⑥ 기타
불량식품 근절	13. 귀하께서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4. 귀하께서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조사설계

- 1) 시계열 분석 및 조사결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설계를 포함하여 설계
- 2) 상·하반기 2회 조사를 실시
- 3) 식품안전체감도를 국가통계화하기 위한 표본틀 검토
- 4) 전문가를 조사대상자에 포함
- 5) 기본조사의 내용은 전 회차와 동일하나 부가조사는 현안으로 내용 수정

4. 표본 설계

- 1) 모집단은 2012년 통계청이 전국의 성인을 추계한 인구추계치를 근간으로 설정
- 2) 2012년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바탕으로 확률총화추출법에 의해 1,000명의 패널을 표본으로 선정
- 3) 표본추출 단위(Sample Unit)는 성, 연령, 지역
- 4) 조사 성공률을 감안하여 총 1,300명의 조사대상자 추출

5. 사전조사(Pilot survey) 실시

- 1) 부가조사 내용 변경에 따른 평가표의 통계학적 검증 및 수정,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 실시
- 2) Cronbach's alpha 값(0~1)에 의해 전체 설문지, 설문항목별 통계학적 신뢰도를 검증하여 Cronbach's alpha 값이 0.5 이하인 설문항목은 제외, 개선
- 3) 통계학적 분석법은 2014년과 동일

6. 상·하반기 조사 실시

- 1)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을 위한 상·하반기 조사 실시

- 2) 조사대상자는 2013년에 식약처가 구축한 식품패널 및 새로 추가된 전문가
- 3) 최종 조사대상자는 식품패널 1,000명, 조사완료 전문가로 150여명이 목표치

7.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산출

- 1) 최종 개선, 확정된 설문지에 의한 2015년 상·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
- 2) 총괄 및 세부분석 실시
- 3) 2014년 하반기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5회에 걸친 조사결과를 시계열 분석

8. 매년 효율적 조사를 위한 정책제언

-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개진
- 2) 식품안전체감도를 식약처 대표 국가통계화 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

제3절 연구 및 분석방법

1. 연구방법

가. 조사 설계

- 1)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주기, 조사결과 발표 일자 등을 설계
 - 조사대상자에 전문가 200명 추가
- 2) 통계학적 검증 실시
- 3) 부가조사 내용은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개정
 - 주요 정책의 추진에 대한 체감도 조사

나. 표본설계 및 추출

-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설계되었음. 즉, 모집단은 전국의 성인 남녀이며, 패널은 1,200명을 구축하며, 표본추출단위는 성, 연령, 지역으로 하였음

<표 1-2>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 2) 표본 추출의 Final Sampling Unit은 개인으로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고,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로 16개 시·도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였음
- 3) 표본의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설계되었고, 표본의 거주지에 제주도도 포함되었음
- 4) 전문가는 조사 참여 의사가 있는 식품전문가 중 250여명 유작위로 선정함

다. 설문지 보완

- 1) 기본조사의 경우 설문지 내용은 2013년에 개발된 것과 동일하나 순서 및 형식을 통계청 사회조사 형태로 수정
- 2) 기본조사 설문지는 식품안전체감도와 5가지 세부영역별로 구분하여 구성

- 3) 부가조사의 경우 10종의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체감도로 내용 수정
- 4) 부가조사 설문지는 통계학적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값 산출을 위해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로 개발

라. 맞춤형 조사방법 파악

- 1) 2013년은 전화조사에 의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 2) 2014년 처음 1,000명의 패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이 파악되었음
 - 조사방법은 통계청에서 확대하고 있는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방문조사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 맞춤형 조사방법은 조사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파악되었음

〈표 1-3〉 맞춤형 조사방법

(단위: 명)

구분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변동
합계		1,494	1,494	-
전화조사	패널	427	384	-43
	전문가	18	16	-2
인터넷조사	패널	835	810	-25
	전문가	199	204	+5
면접조사	패널	10	6	-4
	전문가	5	0	-5
대체표본	패널	-	72	+72
	전문가	-	2	+2

마. 사전조사 실시

- 1) 사전조사는 기 개발된 평가도구 수정, 보완 및 부가조사 내용 변경에 따른 본조사시 유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 2) 조사대상자는 200명이었으며 상반기 조사와 함께 실시되었음
- 3) 부가조사 내용 변경에 따라 평가지표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이 실시되었는데 Cronbach's alpha 계수 값(0~1)을 산출하여 설문지의 통계학적 신뢰도가 분석되었음
- 4) 조사는 2015년 6월 29일부터 4일간 진행되었음

〈표 1-4〉 조사설계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식품패널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6월 29일 ~ 7월 2일
상반기 조사	식품패널	1,272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면접조사	6월 29일 ~ 7월 10일
	전문가	230명	전수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상동
하반기 조사	식품패널	1,200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11월 19일 ~ 11월 30일
	전문가	230명	전수	상동	상동

바. 상·하반기 조사 실시

- 1) 2014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조사를 실시하였음
- 2) 조사대상은 구축된 1,200명의 식품패널과 230명 전문가 있음
- 3) 평가도구는 기본조사의 경우에 2013년에 리커트 5단계 척도 (Likert Scale)를 활용하여 개발된 설문지가 그대로 사용되었는데 2015년 상반기 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사전조사에서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검증이 된 설문지였음
- 4) 부가조사의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를 중복조사하는 것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고, 사전조사시 통계학적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음

- 5) 조사방법은 맞춤형 조사방법으로 인터넷 조사, 전화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음
- 6) 조사는 상반기 경우에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고, 조사기간 중 첫날 오전에 전화조사 조사원 교육이 실시되었음

사. 회의 개최

- 1) 연구방향성 결정 및 연구 추진 과정상 Brain Storming을 위한 담당부처, 연구진, 해당 업종 단체 대표자간 정례적인 정책간담회의가 개최되었음
- 2) 착수보고회, 평가결과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음

2. 분석 방법

가. 통계분석

- 1) 수집된 설문지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AS 9.3 Version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 집계표를 제시되었음
- 2) 조사 문항간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이 실시되었음
- 3) 성, 연령, 지역, 학력별, 직업별, 소득별 등의 독립변수별 전체 식품안전체감도와 세부영역별 안전체감도가 분석되었음

나.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조사의 신뢰성 분석

- 1) Cronbach's alpha 계수 값(0~1)을 산출하여 인식도 조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음. 조사표 구성시 조사항목의 스케일은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기 위해 리커트 5단계 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었음

2)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음

$$\alpha = \frac{N}{(N-1)} \left(1 - \sum \frac{\sigma_i^2}{\sigma^2} \right)$$

N=문항 수, σ^2 =총분산 σ_i^2 =각 문항의 분산

3) 계수값이 1에 가까울수록 조사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 전체의 신뢰도 및 각 문항별 신뢰도를 산출하여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거, 수정 및 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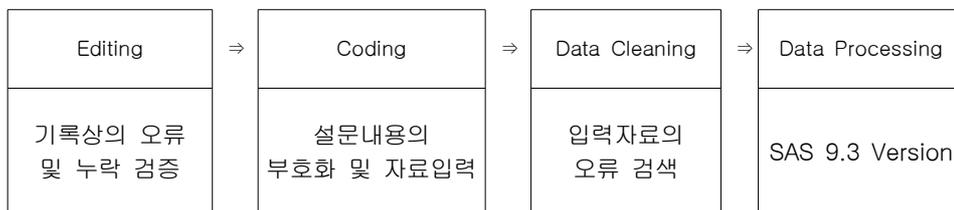
다. 조사결과의 유의성 검증

- 1)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유의성 검증을 통해 통계적 의미를 확인하였음
- 2) 조사내용별 차이 확인 등 조사자료의 변수간 검증은 Chi-square test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변수간, 집단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pvalue는 주로 95%내에서 신뢰도가 검증되었음

라. 자료 처리

조사된 자료는 [그림 1-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분석되었음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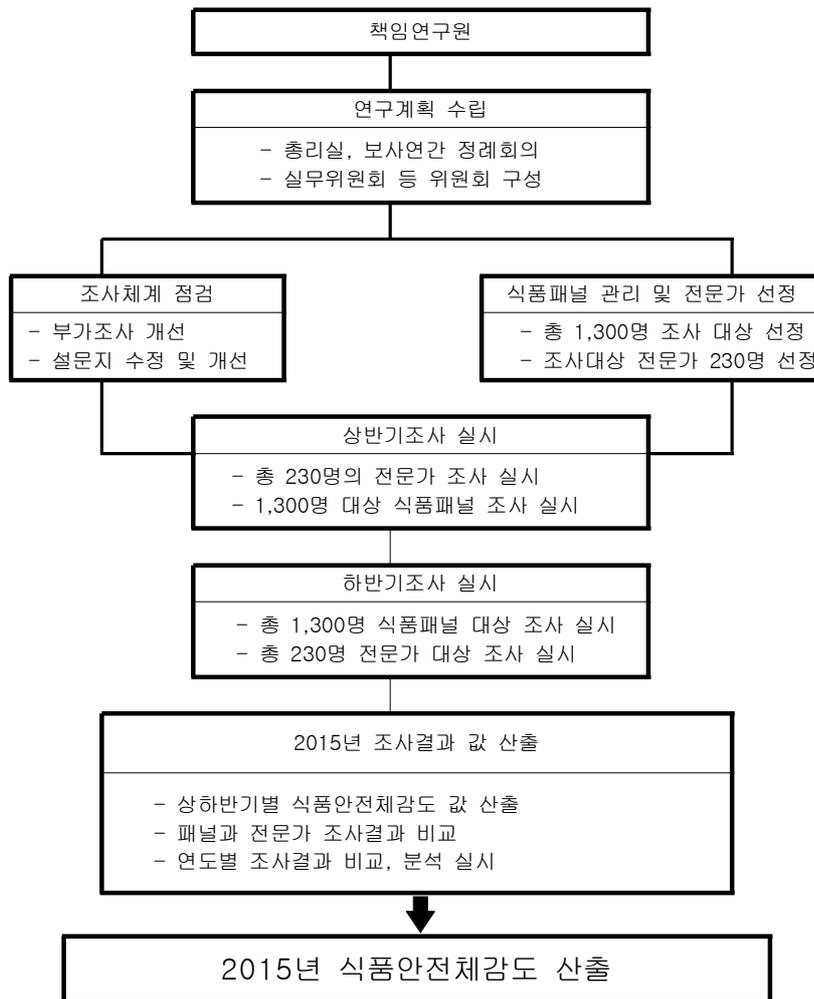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3. 연구추진 체계

이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가조사, 상·하반기 기본조사를 통해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를 산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총 5회차의 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제 2 장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현황 및 통계 발전 방안

제1절 총괄 현황

제2절 한국

제3절 미국

제4절 유럽

제5절 일본

제6절 시사점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주요국의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 < 현황 및 통계 발전 방안 <

제1절 총괄 현황

<표 2-1>에는 주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 인식조사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표 2-1>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인식조사

국가	조사명	조사목적 및 항목	조사척도						조사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우리나라	'15.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리 수준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③④⑤	77.0%
EU	'10 EURO BARO-METER	식품섭취로 인한 건강의 위험이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	매우 높음	상당 수준 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잘 모름		③④	49.0%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크게 우려	다소 우려	별로 우려 안함	전혀 우려 안함	잘 모름		③④	21.0%
미국	'11 Deloitte 소비자 의식조사	5년 전에 비해 더 불안한지 여부	예	아니오					②	27.0%
	'15 Food and Health survey	미국 식품공급의 안전에 대한 신뢰	매우 신뢰	다소 신뢰	별로 신뢰 안함	전혀 신뢰 안함	잘 모름		①②	61.0%
일본	'14 식품안전 모니터	여러 위험요인별 불안정도	매우 불안함	어느 정도 불안함	어느 쪽도 아님	별로 불안하지 않음	전혀 불안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③④⑤	29.5%
영국	'15 Public attitudes tracker	FSA(영국 식품청)에 대한 신뢰도	매우 신뢰	신뢰	어느 쪽도 아님	불신	매우 불신		①②	65.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5.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2-1>에 제시된 식품안전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의 개요를 보면 각 국별로 질문의 내용과 조사척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가별 간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조사는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잘 모르겠음’이 추가된 6개 척도의 형태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영국의 경우 중간단계의 척도인 ‘보통’ 또는 ‘어느 쪽도 아님’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EU나 미국, 일본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선택항목을 포함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과 주요기관에서는 국민의 식품관련 위험 인식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일본과 영국의 경우 그 역사가 10년을 상회하고 있다.

그 외에도 EU의 경우 5년 주기로 Euro Barometer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보고서에는 2010년까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할 수 있었다. Eurobarometer는 EU에 소속된 27개 국가에서 15세 이상의 대상자 26,691명을 대면 방식의 형태로 2010년 6월에 수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의 주도로 Food and Health survey라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29분 가량이 소요되는 인터넷 방식의 조사이다. 18세부터 80세까지의 미국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인구조사에 기초하여 표본은 연령, 교육수준, 인종, 성별, 지역으로 층화하여 선정하고 있다.

제2절 한국2)

현재 식품안전체감도가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지 못한 실정에서 향후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발전방향을 참고하여 식품안전체감도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함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한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계획으로 식품안전체감도와 관련된 사항들만 정리, 제시되었다.

2) 통계청, 2015년 11월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자료 중 일부 발췌

1. 국가통계의 발전 방향

가.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수립

통계청이 통계 개발·개선 계획 하의 기존의 64건의 과제와 신규 계획 8건을 포함하여 총 72건의 과제에 대한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추진토록 한다. 신규 8건의 경우 특수교육실태조사(교육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고용노동부) 등 신규 과제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책, Post-2015³⁾ 등에 대한 통계 개발·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통계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식품관련한 통계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통계 강화

통계 생산의 최신 경향은 지역통계 강화이다. 식약처도 어린이식생활 안전지수 등 지자체별 행정실적을 지수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여러 지표중 한가지인 비만율은 현재 17개 시도별로만 한국교육개발원이 생산하고 있어 230여개 지자체 평가에서는 17개 시도별 실적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식품안전체감도의 경우 패널 수가 적어 17개 시도별로도 표본오차가 커 분석하지 못하고 4대 권역별로 묶어 분석하고 있어 통계청의 지역통계 강화기조에도 맞게 식품패널을 재구축함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지역통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활용기반의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통계생산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통계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자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상세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식품통계 발전을 위해 지방 통계청과 지방 식약청의 연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2015년 종료됨에 따라 UN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발전목표로서 Post-2015 의제 프레임 워크 구축

다. 체감통계 개선

통계청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에 맞게 주요 통계 지표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국가통계위원회 사회1분과에서는 고용 분야의 고용보조지표를 신설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실제 실업률이 10%가 넘는다는 정책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특정통계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 후 심층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어 식품안전체감도도 이런 맥락에서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가.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KOSIS의 고도화와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을 통해 통계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 KOSIS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가승인통계의 KOSIS 수록률을 2016년 중 90%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며,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을 위해선 관련부처 및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국가주요지표 영역별 필요지표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국가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중 사회통합, 생태환경과 자연환경 2개 영역에 대해 영역별 필요지표(통계) 진단 연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것처럼 식품안전 체감도와 식품관련 통계의 국가주요 지표화와 신규통계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나. 행정자료 활용 법적근거 마련 및 활용 본격화

우리나라 통계청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의 행정자료의 원활한 공유 및 행정통계의 효율적 작성이 대중화되었다. 통계청도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관련 법령⁴⁾을 2016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었다.

4)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작성에 관한 법률」 : 행정통계 작성, 품질관리, 행정자료 이용 기반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 주요내용임. 이는 통계법에서 행정자료의 제공 및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

행정자료 활용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통계 13종을 작성하고 기존 통계의 항목대체를 추진한다. 중기(2016~2020년) 행정자료 활용전략(2015년 10월)에 따라 13종(통계청 5종, 타부처 8종)의 개발가능 통계를 선정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표 2-2>에 13종의 개발가능 통계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전히 식품분야 통계는 한건도 없어 기본적인 행정통계 개발 및 작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표 2-2> 개발가능 통계 목록

개발 통계명(가칭)	요구기관	활용정책
1. 빈곤아동통계	복지부	빈곤아동 대책
2. 퇴직연금가입통계	고용부	퇴직연금제도
3. 기후변화 취약계층 통계	환경부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4. 지역간 기업체 유출입 통계	지자체(대전)	지역 균형개발 정책
5. 지역별 1인가구 통계	지자체(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맞춤형 정책
6. 다문화가구 통계	여가부	기존 다문화가구통계 개선
7. 미혼모가정통계	여가부	미혼모 가족 지원 정책
8. 귀촌인통계	농식품부	농촌 및 귀촌인 지원 정책
9.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자체	만혼 및 저출산 대책
10. 중·장년층통계	통계청 자체	고령화 대책 지원
11. 자영업통계	통계청 자체	자영업 지원정책 지원
12. 대졸자 취업 및 직장변동통계	통계청 자체	청년 고용 정책 지원
13. 지역별 일자리 통계	통계청 자체	지역경제 및 일자리 정책

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생산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식품안전, 식품체감에 관한 언론 검색 자료를 빅데이터화하여 Key Words를 도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등

료 활용촉진, 비밀정보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 필요함.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빅데이터 검색 및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 간의 연계 분석을 통해 기업 등 민간이 필요로 하는 통계 등 시의성 높은 정책지원 통계를 작성·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표성 부족 등 빅데이터의 한계 및 보완 방안에 대한 방법론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을 위해서는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결과의 신뢰성 검증 및 기법 관련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비교·사후 검증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식약처 등 부처가 보유 빅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Masking) 기법을 통계청에서는 지원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3. 통계관리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통계작성기관 범위 관련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동의(신청 또는 권고 수용)가 필요하다. 그러나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의 다수가 통계작성기관이 아니어서 품질관리와 자료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이 행정부 이외의 국가기관일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자료의 공유를 통한 통계작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통계작성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통계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공표하는 사례가 발생 하기도 하며 이는 감사원 통계청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316개 중 55개 기관, 전체의 17.4%만이 통계작성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통계작성기관이 협회나 조합일 경우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 협회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협회와 지정되지 않은 협회가 혼재되어 있고, 조합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21개 협회가 33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⁵⁾.

⁵⁾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나. 통계 관리방식 관련

통계의 승인 및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작성방식(조사, 보고, 가공)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통계가 동일한 방식(승인, 품질관리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통계 중 통계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의무를 부과하는 ‘지정통계’의 지정요건(통계법 제17조)⁶⁾에 해당되는 통계의 범위가 너무 넓은 상황이다.

이처럼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통계 승인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통계품질관리 등에서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보고통계 작성의 경우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승인·정기품질진단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 수행으로 불필요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보고통계는 통계청의 승인 없이 각종 연보나 DB형태 등의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등 대부분의 통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정요청이 많으나, 응답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통계의 지정을 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지정 통계는 전체 통계의 9.7%(937개 중 91개)에 해당되고 있다.

다. 관리대상 통계범위 관련

통계관리의 대상은 통계법상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에 한정되고 있다. 활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신뢰성 등의 문제로 국가통계로 승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통계의 활용이 제약되고, 미승인 통계에 대한 관리 체제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런 통계의 경우, 공개 필요시 1회 작성·공표만 허용하는 ‘1회한 승인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 식약처의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중 지자체 평가에서 외식의 영양표시 지표가 관련 협회가 생산하는 자료원으로 2015년 개정시 평가지표에서 삭제되었음

6) ①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②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③ 다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가능한 통계
 ④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⑤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통계는 표본 대표성, 오차산출 불가능 등으로 인해 국가통계로 승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또한 낮은 응답률, 조사결과의 편차 등으로 통계의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국가통계로 승인받기가 어려운데 식품안전체감도의 경우 지역별 오차가 큰 경우에 속한다.

4. 통계관리체제 개편 추진

가. 통계발전을 위한 체계 개편

빅데이터의 중요성 부각,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따라 기존 승인 통계는 물론 새로운 정보원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면서 신규통계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IT 기술이 발달되고, 다양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등 통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에 있었던 Post-2015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UN통계처에 의해 UN 공식통계 혁신의제로 “기존의 『통계 작성자』로부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자』로서 통계작성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상정되면서 통계작성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통계관리 방식은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어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관리대상 통계 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중요한 통계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했으며⁷⁾, 국제기구 제공 통계 등 관리가 필요한 통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관리체제의 부재로 가치 있는 정보가 사장될 우려도 가지고 있다. 또한 통계의 형태(조사, 보고, 가공 등)와 관련 없이 모든 통계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하여 예산 및 인력의 확충이 비효율적인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다.

7) 미지정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통계 예시: 정보문화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소프트웨어 수출 통계조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나.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통계작성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중요 통계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을 통계작성기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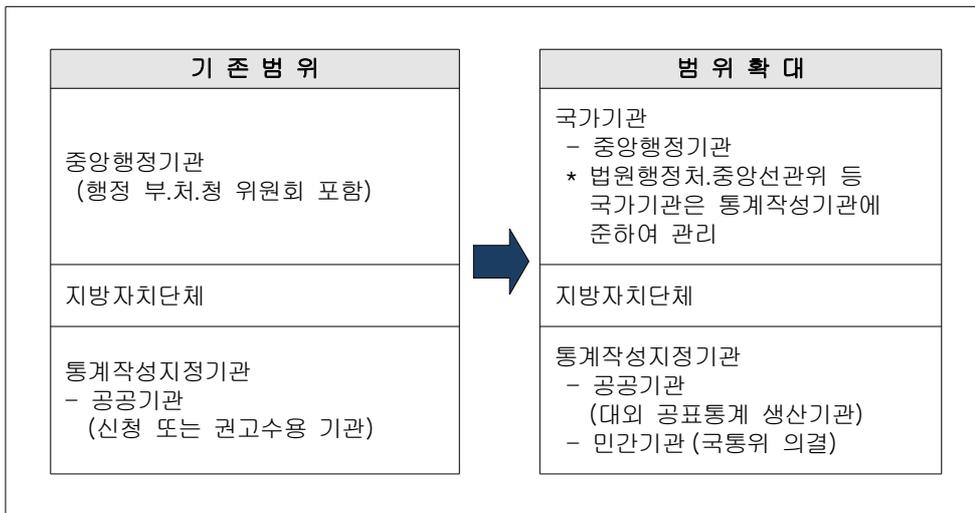
공공기관이 아닌 협회.조합 등 중요 통계 생산.공표 기관은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국통위 결정으로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해당기관이 생산하는 특정 통계만을 국가통계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법원행정처.중앙선관위 등의 국가기관은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에 준하는 관리를 실시하여 통계작성기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범위가 확대되면 관리대상 통계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정부 3.0, 빅데이터 활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1]에 통계작성기관의 기존 및 확대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2-1] 통계작성기관 범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다. 국가통계관리 방식의 차등화

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통계는 원칙적으로 국가통계로 관리하되, 통계의 성격·관리목적 등에 따라 차등화 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7장 등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 조사통계와 가공통계

조사통계와 가공통계는 유사·중복 우려가 있고 작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예전처럼 통계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작성하도록 하고 통계청의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를 통해 관리를 할 예정이다.

2) 보고 통계

보고통계는 법정서식에 의한 단순집계 형태가 대부분이고 유사·중복 우려가 낮으므로 신고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공표 전까지 통계의 주요사항을 통계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보고통계 중 지정통계(통화금융통계, 국내이용통계 등 6종)에 대해서는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대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3) 국가통계

국가통계는 공표 및 KOSIS 등재 의무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승인·신고 요건에 통계 공표주기, DB(KOSIS) 제출일정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연보, DB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보고통계도 신고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시스템개선, 품질제고 기간을 두어 통계작성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표 2-3〉 통계 관리방식 개선안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작성 유형별 관리방식	1. 조사·가공 통계 ◦ 사전 승인절차	(좌동)	◦ 유사·중복 방지 및 표본의 대표성 등 신뢰성 검증 필요
	2. 보고통계 ◦ 사전 승인 절차	◦ 사전 신고 절차 - 신고요건(안) : 통계명칭, 작성기관명, 작성 목적, 공표주기, 공표일정, 자료수집체계, 보고서식, 통계표, 통계용어 및 해설 자료, DB(KOSIS) 제출일정 등	◦ 자료수집 30일전 승인 신청에서, 공표 전 신고로 부담 완화 ◦ 보고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고 요건 설정
	◦ 정기·자체·수시 품질관리	◦ 자체·수시 품질관리 - 다만 보고통계 중 지정통계는 종전과 같이 품질관리	◦ 정기품질진단부담 완화
	◦ 사전승인 받지 않고 공표 하는 일부 보고 통계 상존	◦ 연보, DB 등의 형태로 공개 하는 보고통계도 신고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시스템개선, 품질제고 기간을 두어 작성 기관의 부담 완화	◦ 신고하지 않고 공표 시에는 시정명령등 조치
지정통계 지정요건 강화	◦ 광범위한 지정요건 - 전국대상통계, 지역발전 정책 관련 통계, 국제기구 제출 통계 - 통계청장 인정 통계 등	◦ 지정요건 강화 - 좌측 첫 번째 요건 제외 - 사회경제적인 활용도가 높고, 국가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 추가	◦ 자료제출명령권, 응답 의무가 있는 지정통계를 제한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

자료: 2015년 국가통계위원회 회의자료

라. 통계 관리대상 범위 확대

국가통계가 아닌 통계도 활용가치가 높은 경우 해당 작성기관의 책임 하에 공표될 수 있도록 통계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1회한 승인제도는 폐지하여, 신뢰성 등에 문제가 있는 통계는 국가통계로 승인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배제하고, 국가통계로 승인·신고 되지 않은 통계도, 공개 필요성이 높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통계청과 협의 후 공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국가통계가 아님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용 상의 유의점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표 2-4〉 신뢰성 검증근관 통계 등의 관리 방안(안)

- 다음의 통계들은 원칙적으로 소관 기관 관리통계로 관리
 - 대표성 등의 문제가 있는 빅데이터 통계
 - 일반적으로 매 조사별로 응답률.조사결과의 편차가 커서 신뢰성 수준을 사전 판단하기 어려운 의식조사 통계
 - 여건변화에 따라 급변하여 신뢰성 검증이 어려운 단기 예측통계
 - 주간 일기 예보, 주간 환율 예측, 전염병 환자 예측, 주간 농산물 시세, 농산물 생산량 예측, 교통사고정보, 기상 데이터 융합·분석의도로위험정보 등
 - 연구목적의 실험통계, 통계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통계
 - 시험작물 생육통계, 신약개발 실험통계, 다문화가족실태 시험조사 등
 - 기존의 조사통계나 행정자료 통계 등의 가중치 또는 오차산출 등 신뢰성 검증 및 자료보정 등을 위한 통계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사후조사 통계, ○○위험물질 일제조사 통계

- 다만, 상기의 통계도 다음의 경우는 국가통계로 관리
 - 대표성 등에 문제가 없어 신뢰성이 있는 빅데이터 통계
 - 추세분석의 유용성이 있는 통계로서, 시계열이 축적(3회 이상 자료작성 등) 되고 해당분야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로 국가통계위원회(분과위)가 결정하는 경우
 - 기 승인된 의식조사통계 및 예측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중요 통계로 결정하는 경우
 - * 인구추계, 사회조사 등

<표 2-5>에 통계관리 범위 확대 개선안 전후에 대한 비교표가 제시되어 있다.

<표 2-5> 통계관리 범위 확대 개선안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관리 대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승인통계 (통계작성기관의 승인받은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승인·신고 통계 + 빅데이터 통계 등 신뢰성 검증 곤란 통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통계의 범위를 넓히되, 관리수준을 달리 하여 관리부담 완화
빅데이터 통계 등 신뢰성 검증 곤란 통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한 통계승인 제도 운영 - 정책적으로 작성, 공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뢰성 문제가 있어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한 통계승인 제도 폐지 - 다만, 공표 필요시, 이용상의 유의점과 함께 국가 통계가 아님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을 허용 ◦ 통계작성기관 자체 관리 통계로 관리 - 다만 대표성, 신뢰성 문제가 해소된 경우 국가 승인·신고통계로 관리 ◦ 대표성 문제가 있는 빅데이터 통계 등 공개시, 제3의 기관이 통계개선 컨설팅 및 정보제공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 통계청은 관련 통계 사이트 정보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이 불명확한 1회한 승인제도를 폐지하되, 정책적 수요에 따른 공표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수용 ◦ 빅데이터 통계 등의 활용 기반 마련
마이크로 데이터활용 통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이용자와 협의 하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통계의 활용도 제고
미공개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별로 자체관리 - 작성통계목록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주우부처 통계 책임관이 직접 또는 산하 기관이 작성한 미공개 통계목록을 관리하여 대외 정보제공, 통계작성 등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공개 통계의 활용 기반 마련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마.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작성 추진

기존의 상향식 '연례 수요 조사'와 더불어, 통계청 주도로 수요가 높은 통계의 개발·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필요 통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업반이 작성한 필요통계 보고서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절차와 통계 활용도, 작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의 실효성이 낮은 통계는 작성 중지를 권고하고 승인취소를 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품질진단 결과 활용도가 낮은 조사통계에 대해서는 활용정도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해당 통계의 활용도 검토는 주무부처와 협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단, 중요 통계인 지정통계와 작성비용이 적은 보고·가공 통계는 실효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2015년 10월 기준 심사대상 통계는 지정통계가 아닌 조사통계 322종으로 전체 937종 중 34.3%에 해당한다.

또한, 통계법 제19조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활용도가 개선되지 않은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승인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해당 통계의 활용 정도와 조치 방안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품질 제고

통계청이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모든 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⁸⁾해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이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의 내역과 국제기구 발표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국제기구 통계 모니터링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직접 가공·생산하는 통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공표되지 않는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통계로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국내에 공표되는 통계지표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지표간의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 공표시 설명자료를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8) 2015년 5월, 김관영 의원 입법 발의

제3절 미국⁹⁾

1. Food & Health Survey: Consumer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Nutrition & Health

가. 조사 개요

Food & Health Survey: Consumer Attitudes toward Food, Nutrition & Health는 미국의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IFIC Foundation)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조사이다. 2006년에 조사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식이(요법), 식품 구성요소, 식품 생산, 식품 지속가능성,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태도에 대해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IFIC Foundation은 2006년 처음 조사를 실시하며 크게 첫째, 미국 소비자들이 건강, 식이요법(전반적인 식이요법부터 지방, 당, 탄수화물과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 포함), 신체 활동, 체중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탐구하고, 둘째,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지식과 태도가 건강관련 정보 및 도구를 이용하는 것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핵심으로 선정하였다. 2015년 조사도 미국 소비자가 가치를 두고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면서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10년차 조사인 2015 Food & Health Survey의 조사 대상은 2014년 인구 조사에 기초하여 연령, 교육수준, 인종, 성별,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된 18세에서 80세까지 미국 성인이며, ResearchNow의 소비자 패널을 활용하였다. 조사는 2015년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29분이었다.

<표 2-6>에 Food & Health Survey의 조사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9) Food Standard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 Tracker Survey.
<http://www.food.gov.uk/science/research/ssres/publictrackingsurvey>.

<표 2-6> 미국 Food & Health Survey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식품과 건강과 관련한 미국 소비자의 의견과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시작년도	2006년
주기	1년 1회
주관기관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
조사방식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ResearchNow의 소비자 패널을 활용한 미국 성인(18~80세)
표본수	1,007명(2015년 기준) 매해 약 1,000명

나. 조사 항목

2015년 조사는 건강과 식이(요법)(Health & Diet), 식이 성분(Dietary Components),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과 식품 안전(Food Safety)에 대해 진행되었다.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연령, 성별, 소득 등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입해 두기도 하였다. 외부에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식품 안전 관련 조사 문항은 <표 2-7>에 정리되어 있다.

<표 2-7> 미국 Food & Health Survey 조사 중 식품안전 관련 문항

구분	질문내용
Q1	지난 한해, 식품과 음료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였습니까? - 많이 생각함 - 조금 생각함 - 생각하지 않음 - 잘 모르겠음

구분	질문내용
Q2	<p>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p>※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전문가에 의해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로 일반적인 미국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 법(FFDCA: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식품 첨가물 허용 오차 요구에서 면제됨</p>
Q3	<p>전반적으로,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신뢰함 - 어느정도 신뢰함 - 별로 신뢰하지 않음 - 전혀 신뢰하지 않음 - 잘 모르겠음
Q4	<p>뉴스를 통해 특정 식품이 회수(리콜)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식품이 집에 있을 경우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고르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환함 - 집에 있는 제품이 실제로 적절한 기준에 의해 회수되는 것인지 확인함 - 식품 회수에 대해 추가적으로 찾아봄 - 당분간 유사한 제품의 구매를 중지함 - 모든 유사한 제품을 폐기함 - 질문과 우려를 가지고 제조업체에 연락함 -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음 - 잘 모르겠음
Q5	<p>실제 식품 회수에 대응한 경험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 아니오 - 해당 사항 없음: 식품 회수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Q6	<p>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Yes - 아니오 No <p>※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2011년 1월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은 70년 이상 된 미국의 식품안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법으로 기존 문제가 발생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심이 되는 식품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p>

구분	질문내용
Q7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함) - 식품내 화학물질 - 박테리아로 부터의 식품 매개 질병 - 잔류 농약 - 동물 항생제 - 선언되지 않은 알레르기 항원 - 해당 사항 없음
Q8	식품, 잔류 농약, 동물 항생제의 화학물질에 대한 최근 정보를 접하고 식품 구입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Q9	식품내 화학물질, 잔류 농약, 동물 항생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고르시오) - 뉴스 채널 및 웹사이트 - 건강관련 웹사이트 - 정부 기관 자료 및 웹사이트 - 가족 및 친구 - 자연 치료 관련 웹사이트 - 소비자 옹호 그룹 - 개인 건강 관리 전문가 - 블로거 - 식품 생산 및 제조 업체 웹사이트 - 비영리 기관 - 기타
Q10	식품 온도계를 집에 구비하고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Q10-1	(식품온도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지난 한해, 다음의 식품을 준비할 때 식품 온도계를 얼마나 자주 사용했습니까? (1) 가금류(닭/칠면조) - 항상 사용함 - 자주 사용함 - 때때로 사용함 - 절대 사용하지 않음 - 보기의 식품을 요리한 적이 없음

구분	질문내용
	<p>(2) 소, 송아지, 양, 돼지고기(전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사용함 - 자주 사용함 - 때때로 사용함 - 절대 사용하지 않음 - 보기의 식품을 요리한 적이 없음 <p>(3) 간 소고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사용함 - 자주 사용함 - 때때로 사용함 - 절대 사용하지 않음 - 보기의 식품을 요리한 적이 없음
Q11	<p>다음 중, 어떤 경우에 식품 온도계를 더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로 식품 온도계가 주어졌을 때 - 요리책이나 웹사이트의 레시피에 조리 온도도를 명시했을 때 - 친구가 사용하며 추천했을 때 - 식품 온도계를 쉽게 찾아 구매할 수 있을 때 - 좋아하는 요리방송이나 셰프가 식품 온도계를 이용할 때
Q12	<p>지난 한해 동안의 습관을 생각해 봤을 때, 요리 전에 날 육류 및 가금류를 어떻게 해동합니까?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고르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고에서 해동함 - 조리대 위에서 해동함 - 찬물에서 해동함 - 전자레인지로 이용하여 해동함 - 냉동상태로 바로 요리함 - 뜨거운 물에서 해동함 - 육류 및 가금류를 먹지 않음 - 기타
Q13	<p>식품을 조리, 준비 및 소비할 때, 어떤 행동을 주기적으로 취합니까? (해당되는 문항을 모두 고르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음 - 도마를 비누와 물 또는 표백제로 세척함 - 서빙 후 2시간 내에 남은 음식을 저장함 - 날 육류 및 가금류 및 생선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과 구분함 - 각 재료에 따라 깨끗하게 세척된 도마를 사용함 - 냉장고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식품을 해동함 - 필요한 온도로 요리함 (예: 가금류의 경우 165°F) - 육류 및 가금류를 요리할 때 식품 온도계를 사용함 - 해당 사항 없음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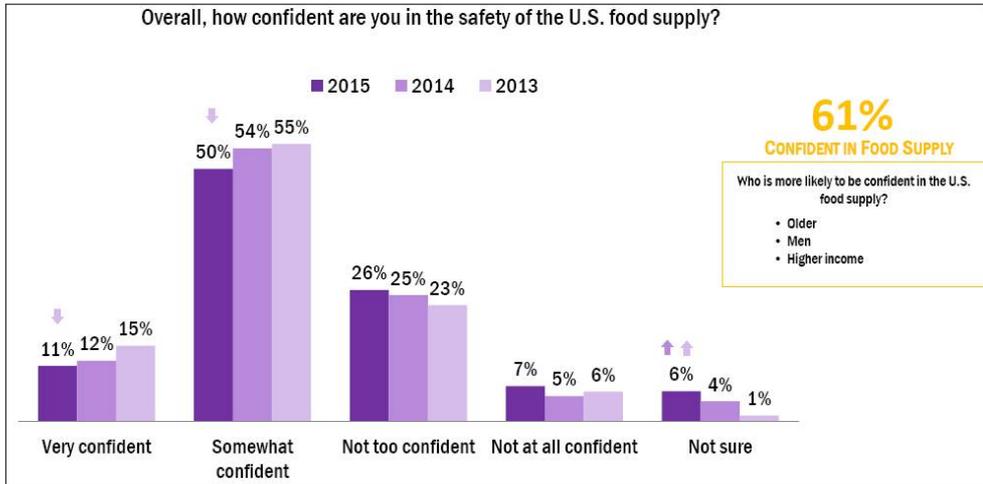
구분	질문내용
Q14	<p>오늘 이전에, 이 표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p> <div data-bbox="370 450 963 788"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align="center">SAFE HANDLING INSTRUCTIONS</p> <p align="center"><small>THIS PRODUCT WAS PREPARED FROM INSPECTED AND PASSED MEAT AND/ OR POULTRY. SOME FOOD PRODUCTS MAY CONTAIN BACTERIA THAT COULD CAUSE ILLNESS IF THE PRODUCT IS MISHANDLED OR COOKED IMPROPERLY. FOR YOUR PROTECTION, FOLLOW THESE SAFE HANDLING INSTRUCTIONS.</small></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font-size: small;"> <p>KEEP REFRIGERATED OR FROZEN. THAW IN REFRIGERATOR OR MICROWAVE.</p> <p>KEEP RAW MEAT AND POULTRY SEPARATE FROM OTHER FOODS. WASH WORKING SURFACES (INCLUDING CUTTING BOARDS), UTENSILS, AND HANDS AFTER TOUCHING RAW MEAT OR POULTRY.</p> <p>COOK THOROUGHLY.</p> <p>KEEP HOT FOODS HOT. REFRIGERATE LEFTOVERS IMMEDIATELY OR DISCARD.</p> </div> </div> </div> <p>- 네 - 아니오</p>
Q14-1	<p>(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전에, 이 표시에 대한 정보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p> <p>- 네 - 아니오</p>
Q14-2	<p>(본 적이 있다면), 식품조리를 준비하는 동안 표시에 있는 정보를 사용했습니까?</p> <p>- 네 - 아니오</p>
Q14-3	<p>(본 적이 있다면) 식품을 조리하는 동안 표시에 있는 정보를 사용했습니까?</p> <p>- 네 - 아니오</p>

다. 2015년 조사 결과

1)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한 신뢰도

2015년 실시된 Food and Health Survey 중 식품 안전 분야의 결과로 [그림 2-2]에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한 신뢰도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 2-2]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한 신뢰도



주: 1) 2015년 조사대상자 1,007명, 2014년 1,005명, 2013년 1,006명
 2) 화살표 표시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9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냄

5가지 응답 항목 중 ‘매우 신뢰함’과 ‘어느정도 신뢰함’을 응답한 경우 신뢰도가 있다고 보아 2015년의 경우 총 61%의 응답자가 미국의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해 신뢰하다고 하였다. 이 수치는 2013년 이래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신뢰도가 높은 집단으로는 나이가 많은 고소득의 남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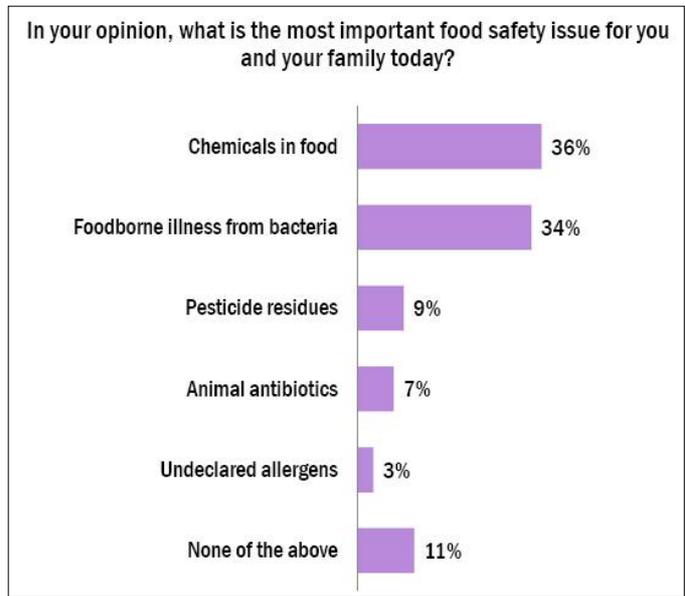
2)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

[그림 2-3]에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본인과 가족의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36%의 응답자가 ‘식품내 화학물질’이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라고 응답하였고, ‘박테리아로부터의 식품 매개 질병’이 34%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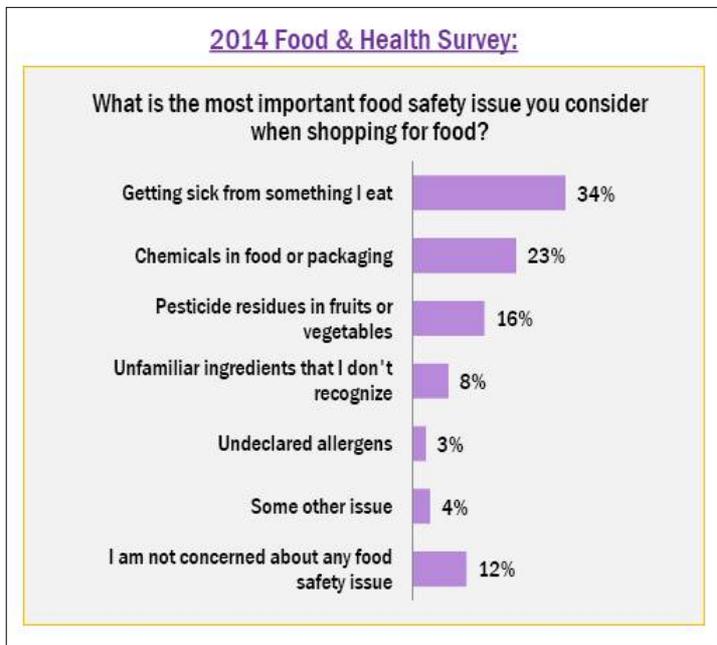
2014년에도 ‘식품 구매시’라는 조건이 붙었으나 2015년과 유사한 문항이 조사되었다. 2014년 결과와 비교하면 ‘먹는 것으로부터 질병을 얻는 것’이 34%로 가장 높았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동일한 문항은 사라졌다. ‘식품 또는 포장내 화학물질’이 23%로 두 번째로 높아 2015년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3]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2015년)



주: 1) 2015년 조사대상자 1,007명, 2014년 1,0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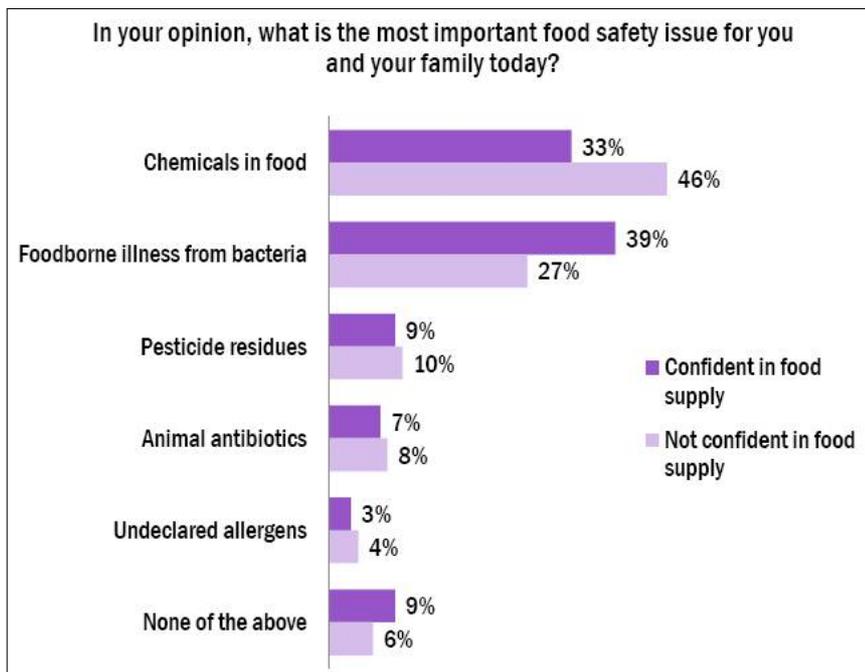
[그림 2-4] 식품 구매시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2014년)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식품 공급 안전에 신뢰도가 높은 집단과 아닌 집단간의 응답 차이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2-5]에 제시되어 있다.

식품 공급 안전에 신뢰도가 높은 집단은 ‘식품내 화학물질’보다 ‘박테리아로 부터의 식품 매개 질병’이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로 선택하였다. 반면, 신뢰도가 낮은 집단은 ‘식품내 화학물질’을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로 선택하여 차이가 있었다.

[그림 2-5] 가장 중요한 식품 안전 문제(신뢰도 차이에 따른 비교 분석)



주: 1) 신뢰한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610명,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330명

3) 정보를 얻는 경로

[그림 2-6]에 미국인들이 식품내 화학물질, 잔류 농약, 동물 항생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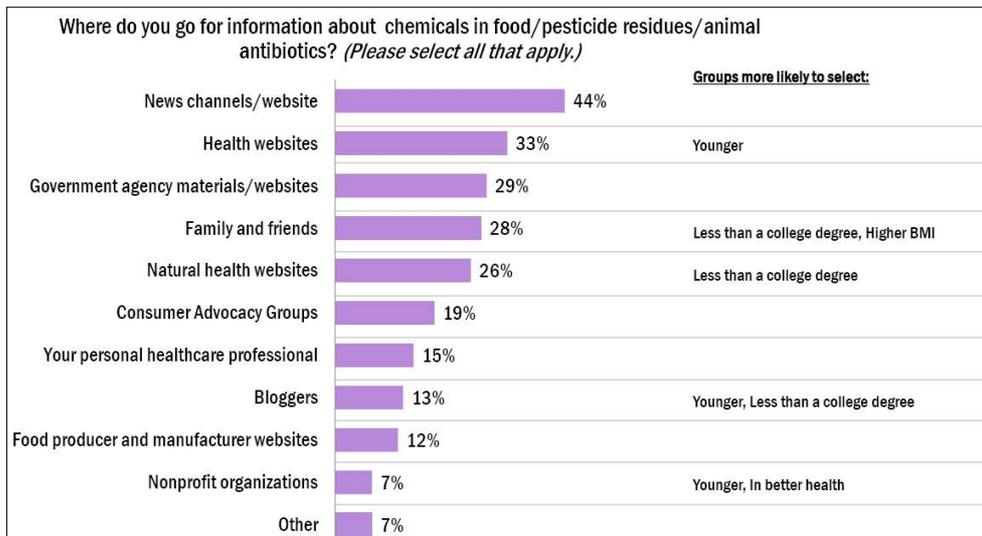
‘뉴스 채널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웹사이트’가 33%, ‘정부 기관 자료 및 웹사이트’가 29% 순으로 높았다. 항목별로 응답이 높은 집단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 웹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집단은 젊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집단이었다. 젊은 집단은 ‘블로거’와 ‘비영리 기관’로부터도 정보를 얻고 있었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는 집단의 경우 대학 이하의 학력을 지녔거나 BMI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6] 정보를 얻는 경로



주: 1) 식품내 화학물질, 잔류 농약, 동물 항생제를 선택한 응답자 52명

제4절 유럽

1. Eurobarometer¹⁰⁾

가. 조사 개요

Eurobarometer란 유럽연합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1973년 이래로 수행되는 여론조사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과 관련된 정기적인 여론 동향을 보여주는 조사이다.

10) European Commission – Public Opinion
<http://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

Eurobarometer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된다.

기본 조사(Standard Eurobarometer)의 경우 각 회원국마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통해 진행하며, 매년 가을과 봄, 연 2회 결과를 발행하고 있다. 조사 문항에 대해서 EU 전체의 의견과 각 국가별 의견을 제시하며, 조사 내용으로는 유럽의 정치 상황을 비롯한 경제 등에 대해 유럽인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15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Standard Eurobarometer 83(EB83)이며 28개 회원국과 5개 후보 국가를 비롯하여 키프로스 공화국의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터키 키프로스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총 34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기본 조사 개요는 <표 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8> 유럽 Standard Eurobarometer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럽의 정치적 상황 및 경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시작년도	1973년
주기	1년 2회
주관기관	유럽연합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의뢰하여 TNS Opinion & Social에서 조사 실시
조사방식	대면조사
조사대상	15세 이상 EU 회원국의 거주자
표본수	EU 회원국마다 약 1,000명

특별 조사(Special Eurobarometer)의 경우 유럽연합위원회나 다른 EU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 조사로 최근 조사의 조사 시기 및 내용은 <표 2-9>에 제시되어 있다.

〈표 2-9〉 최근 조사된 Special Eurobarometer

번호	wave	주제	조사시기	발표시기
434	EB83.2	인도주의적 지원	2015년 3월	2015년 5월
433	EB83.2	시민 보호	2015년 3월	2015년 5월
432	EB83.2	안보에 대한 유럽인의 태도	2015년 3월	2015년 4월
431	EB83.1	자료 보호	2015년 3월	2015년 6월
429	EB82.4	흡연에 대한 유럽인의 태도	2014년 11월-12월	2015년 5월
428	EB82.4	성평등	2014년 11월-12월	2015년 3월
427	EB82.4	자율 시스템	2014년 11월-12월	2015년 6월
425	EB82.2	EU 내 국경을 초월한 의료서비스에서의 환자의 권리	2014년 10월	2015년 5월
424	EB82.2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에 대한 대중의 인식	2014년 10월	2015년 3월
423	EB82.2	사이버 보안	2014년 10월	2015년 2월
422b	EB82.2	유럽인의 배를 이용한 경험 및 해양 안전에 대한 인지	2014년 10월	2015년 3월
422a	EB82.2	교통의 질	2014년 10월	2014년 12월
421	EB82.1	개발을 위한 해 - 개발,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시민 의견	2014년 9월	2015년 1월
420	EB82.1	승객 권리	2014년 9월	2014년 12월

긴급 조사(Flash Eurobarometer)는 유럽연합위원회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서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시급할 경우 전화로 즉시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얻거나 필요시 특정 대상 그룹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질적 조사(Qualitative studies)는 주어진 주제 또는 개념에 대해 선정된 사회 집단의 동기, 감정, 반응에 대해 그들이 토론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또는 비지적인 인터뷰를 듣고 분석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의뢰에 의해 특별 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 2005년 위해 문제(Risk Issues)와 관련된 조사(Special Eurobarometer 238)와 2010년 식품 관련 위해(Food-related Risks)와 관련된 조사(Special Eurobarometer 354)가 있다.

2010년 진행된 Special Eurobarometer 354는 기본 조사(Standard Eurobarometer)와 유사하게 27개 회원국의 15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진행했으며 총 26,691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회원국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대면 조사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2010년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수행되었다. <표 2-10>에 조사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

<표 2-10> 유럽 Special Eurobarometer 354(식품 관련 위해) 조사 개요 (2010년)

구분	내용
목적	유럽인의 식품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한 관심 및 우려 평가
시작년도 ¹⁾	2005년
주기 ¹⁾	5년에 한번
조사시기	2010년 6월 9일 ~ 6월 30일
주관기관	유럽식품안전청(EFSA)가 의뢰하여 유럽연합위원회(EC)가 조정하며 TNS Opinion & Social에서 조사 실시
조사방식	대면조사
조사대상	15세 이상 EU 회원국의 거주자
표본수	EU 회원국마다 약 1,000명

주: 1) 2005년에 처음 실시한 이후 2010년에 실시하여 조사 주기를 5년으로 기입함

나. 조사 항목

2010년 Special Eurobarometer 354의 조사 내용을 EC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조사 문항은 <표 2-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 내용으로는 QF1의 보기 중 6번,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비롯하여 QF5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매체에 대한 질문 등 식품안전체감도와 유사한 문항도 있었다.

<표 2-11> 유럽 Eurobarometer - 식품 관련 위해 조사 항목

구분	질문내용
QF1	다음 각 보기가 식품 및 식사와 어느 정도 관련 있습니까? (각 보기에 대해 ‘① 매우 관련 있음, ② 어느 정도 관련 있음, ③ 별로 관련 없음, ④ 전혀 관련 없음, ⑤ 잘 모름’으로 응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고픔을 해결함 (2) 친구 또는 가족과 식사를 즐김 (3)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선택함 (4) 알맞은 가격을 찾음 (5) 열량과 영양성분(지방, 당 등)을 확인함 (6)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QF2	<p>다음의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보기에 대해 '① 매우 가능성이 있음, ② 상당히 가능성이 있음, ③ 매우 가능성이 없음, ④ 전혀 가능성이 없음, ⑤ 잘 모름' 으로 응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의 피해자가 됨 (2) 섭취한 음식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음 (3)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음 (4) 경제 위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줌 (5)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음 (6) 심각한 질병을 얻음
QF3	<p>식품 및 식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위험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을 자신만의 단어로 표현해 주십시오. (주관식 문항으로 생각나는 여러 단어를 무엇이든 말하도록 함)</p>
QF4	<p>다음의 사안들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우려하거나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각 보기에 대해 '① 매우 우려함, ② 상당히 우려함, ③ 별로 우려하지 않음, ④ 전혀 우려하지 않음, ⑤ 잘 모름' 으로 응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BSE 또는 광우병 (2) 식품 또는 음료에서 발견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3) 식품 또는 음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4) 식품 또는 음료에 사용되는 색료, 방부제 또는 향료와 같은 첨가제 (5) 계란의 살모넬라균이나 치즈의 리스테리아균과 같이 박테리아로 부터의 식중독 (6) 과일, 채소 및 곡물의 잔류 농약 (7) 육류의 항생제 또는 호르몬 잔류 (8) 생선내 수은과 돼지고기의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 물질 (9)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또는 기타 재료에 포함된 물질 (10) 건강하거나 균형 잡히지 못한 식이 (11) 당뇨나 심장 또는 간과 관련된 질병과 같이 식이와 관련된 질병을 얻음 (12) 체중이 늘음 (13) 조류 독감과 같이 동물에서 유래된 신종 바이러스 (14) 식용을 위한 동물 복제 (15) 농장 동물의 복지 (16) 식품의 질과 신선도 (17) 식품에서 발견되는 나노 입자

<p>QF5</p>	<p>생선, 닭 또는 샐러드와 같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심각한 식품 위험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위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다음 보기의 자료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각 보기에 대해 '① 매우 신뢰함, ② 상당히 신뢰함, ③ 별로 신뢰하지 않음, ④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⑤ 잘 모름' 으로 응답함)</p> <p>(1) 미디어(TV, 신문, 라디오) (2) 과학자 (3) 자국 또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4) 유럽내 기관 (5) 자국 정부 (6) 소비자 단체 (7) 환경 보호 그룹 (8) 농부 (9) 식품 제조업자 (10) 슈퍼마켓과 상점 (11) 의사 또는 다른 건강 전문가(개인의) (12) 가족 또는 친구 (13) 인터넷으로 부터의 정보</p>
<p>QF6</p>	<p>다음 문장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각 보기에 대해 '① 전적으로 동의함, ② 동의하는 편임, ③ 동의하지 않는 편임, ④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⑤ 잘 모름' 으로 응답함)</p> <p>(1) 오늘날 식품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안전하다 (2) EU에서 생산된 식품은 EU 밖에서 수입해온 식품보다 안전하다 (3) 식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EU에는 엄격한 법이 있다 (4) EU의 공공단체는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빠르게 대처한다 (5) EU의 공공단체는 소비자의 건강을 생산자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본다 (6) EU의 공공단체는 식품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7) EU의 공공단체는 식품 위험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고려해야 한다 (8) EU의 공공단체는 식품 관련 위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9) 식품 관련 위험에 대한 과학적 조연은 상업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다 (10) 오늘날 식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덜 건강하다 (11) EU의 공공단체는 건강한 식이와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12) EU의 공공단체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한다</p>
<p>QF7</p>	<p>다음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얼마나 신뢰합니까? (각 보기에 대해 '① 매우 신뢰함, ② 상당히 신뢰함, ③ 별로 신뢰하지 않음, ④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⑤ 잘 모름' 으로 응답함)</p> <p>(1) 잔류 농약 또는 생선내 수은과 같은 오염 물질과 같이 식품내 화학적 오염에 의해 발생 가능한 위험 (2) 계란의 살모넬라균과 같이 식품내 박테리아 오염에 의해 발생가능한 위험 (3) 고지방 섭취나 심장 질환과 같이 식이에 의해 발생가능한 위험 (4) 동물 복제나 나노 기술과 같이 신기술에 의해 발생가능한 위험 (5) 광우병(BSE)와 같이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는 동물의 감염 또는 질병에 의해 발생가능한 위험</p>

<p>QF8</p>	<p>EU의 공공기관이 다음의 발생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일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각 보기에 대해 '① 매우 잘 하고 있음, ② 아마 잘 하고 있음, ③ 아마 잘 하지 못하고 있음, ④ 전혀 잘 하지 못하고 있음, ⑤ 잘 모름' 으로 응답함)</p> <p>(1) 잔류 농약 또는 생선내 수은과 같은 오염 물질과 같이 식품내 화학적 오염에 의해 발생가능한 위험 (2) 계란의 살모넬라균과 같이 식품내 박테리아 오염에 의해 발생가능한 위험 (3) 고지방 섭취나 심장 질환과 같이 식이에 의해 발생가능한 위험 (4) 동물 복제나 나노 기술과 같이 신기술에 의해 발생가능한 위험 (5) 광우병(BSE)와 같이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는 동물의 감염 또는 질병에 의해 발생가능한 위험</p>
<p>QF9</p>	<p>a. 화학물질의 발견과 같이 여러 이유로 인해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언론, 인터넷, TV 등을 통해 접한 가장 최근에 언제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일 이내 - 지난 한달 이내 - 지난 6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 들은적 없음 - 잘 모름 <p>b. 지방과 소금의 과다 함유와 같이 여러 이유로 인해 식품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언론, 인터넷, TV 등을 통해 접한 가장 최근에 언제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7일 이내 - 지난 한달 이내 - 지난 6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 들은적 없음 - 잘 모름
<p>QF10¹⁾</p>	<p>a.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최신 정보를 접한 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습관을 영구적으로 바꿈 - 언급된 식품을 잠시동안 피함 - 걱정은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 - 무시하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음 - 기타 - 잘 모름 <p>b. 식품이 건강에 해롭다는 최신 정보를 접한 뒤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습관을 영구적으로 바꿈 - 언급된 식품을 잠시동안 피함 - 걱정은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음 - 무시하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음 - 기타 - 잘 모름

주: 1) QF9에서 '지난 7일 이내', '지난 한달 이내', '지난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에 한하여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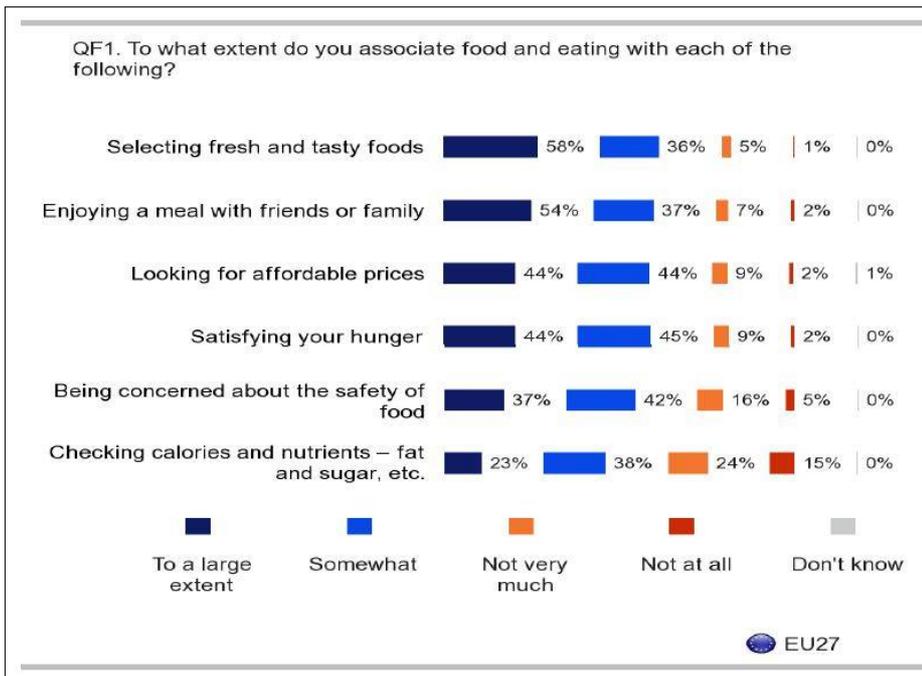
다. 2010년 조사 결과

1) 문항별 식품 및 식사와 관련된 정도

[그림 2-7]에 여섯 가지 문항이 식품 및 식사와 관련된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섯 문항으로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선택함’, ‘친구 또는 가족과 식사를 즐김’, ‘알맞은 가격을 찾음’, ‘배고픔을 해결함’,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열량과 영양성분을 확인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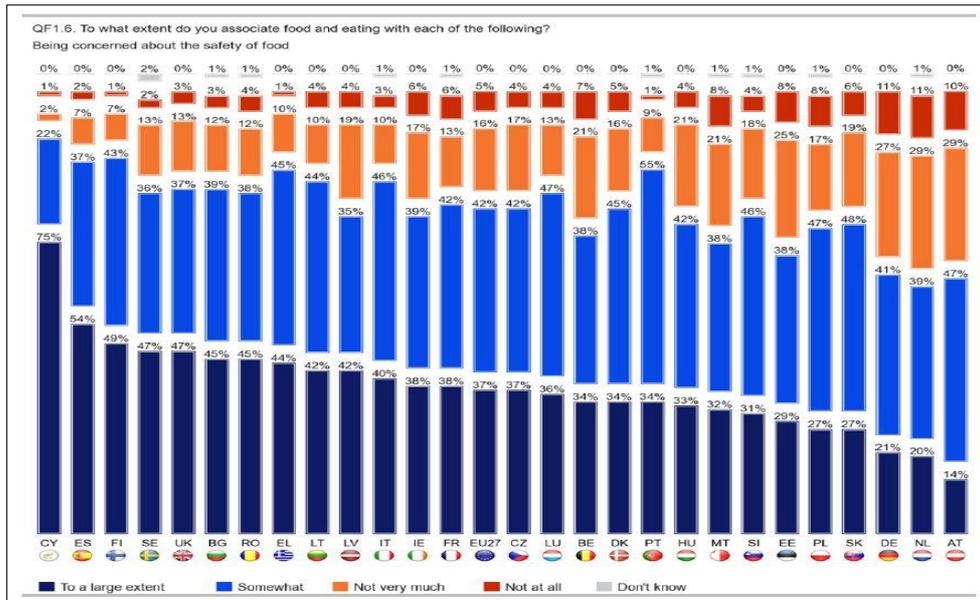
조사에 참여한 유럽내 27개국의 응답자는 절반 이상은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선택함’이나 ‘친구 또는 가족과 식사를 즐김’이 크게 관련 있다고 응답하여 식품을 즐거움(enjoyment)과 연관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7] 문항별 식품 및 식사와 관련된 정도



Eurobarometer는 여러 국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수행되는 만큼 일부 문항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EU 전체 국가의 조사결과 외에도 국가별 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림 2-8]에는 조사에 참여한 27개국 각각의 결과와 전체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식품 및 식사와 관련된 정도에 대해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의 경우 EU 27개국의 경우 79%가 어느 정도 이상 식품 및 식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키프로스 공화국의 경우 75%가 매우 관련 있다고 응답하여 조사에 참여한 27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오스트리아는 응답자의 14%만이 매우 관련 있다고 응답하여 국가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매우 관련 있음’과 ‘어느 정도 관련 있음’을 합산한 비율은 모든 국가에서 50%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 어느 정도 이상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비교하면 키프로스 공화국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는 59%로 가장 낮았다.

[그림 2-8] 문항별 식품 및 식사와 관련된 정도 -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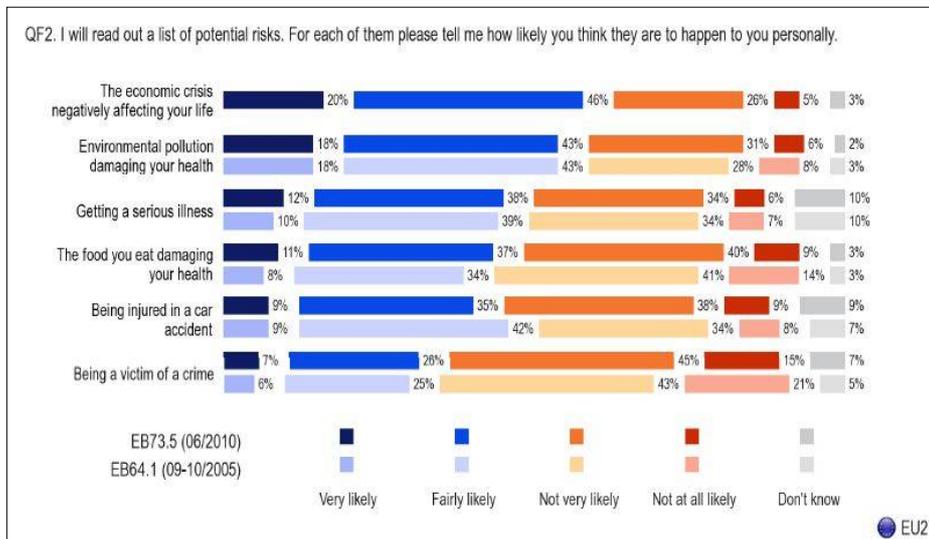


2) 잠재적 위험 발생의 가능성

[그림 2-9]에는 여섯가지 문항별 잠재적 위험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005년에 실시된 Special Eurobarometer 238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음’, ‘심각한 질병을 얻음’, ‘섭취한 음식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음’, ‘범죄의 피해자가 됨’은 2005년과 비교가 가능하였고 ‘경제 위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줌’은 2010년 결과에만 제시되었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된 문항은 ‘경제 위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줌’이었고 ‘범죄의 피해자가 됨’이 가장 낮았다. ‘섭취한 음식으로 인해 건강에 피해를 입음’은 전체 중 네 번째 순위에 해당하였으나 2005년 결과에 비해 ‘매우 가능성이 있음’과 ‘상당히 가능성이 있음’ 모두 각 3%씩 증가하여 48%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른 문항의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크게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반면 식품과 관련된 문항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이미하지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9] 문항별 잠재적 위험 발생의 가능성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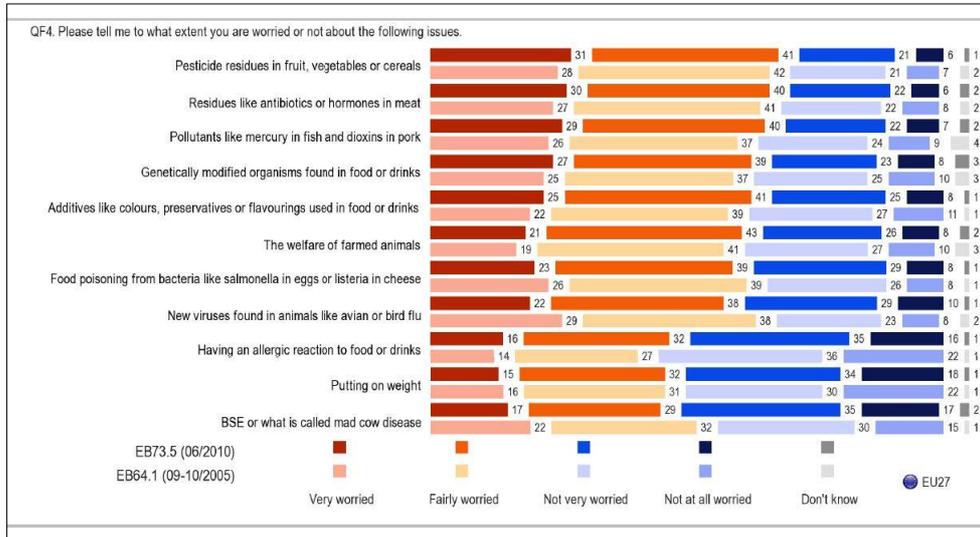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3) 식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그림 2-10]에는 식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010년 조사에서는 총 17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2005년 결과와 비교가 가능한 문항은 11개가 해당하였다.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과일, 채소 및 곡물의 잔류 농약’으로 2010년 기준 전체의 31%가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당히 우려한다는 응답도 41%에 해당하여 전체의 72%가 어느 정도 이상 우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육류의 항생제 또는 호르몬 잔류’, ‘생선내 수은과 돼지고기의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이 뒤를 이어 우려 정도가 높은 문항들로 나타나 유럽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오염에 대해 걱정하고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SE 또는 광우병’의 경우 전체의 17%가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하였고 29%가 상당히 우려한다고 응답하여 전체 문항 중 낮은 축에 속하였다. 특히 2005년에 비해서 각각 5%, 3% 감소하여 5년전에 비해 유럽의 소비자들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정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0] 식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2. 영국 FSA –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¹¹⁾

가. 조사 개요

영국 식품안전국(FSA: Food Standards Agency)에 의해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영국 소비자 대상 인식조사로 2015년 조사의 경우 5월 8일부터 15일까지 10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단순 무작위 지역 표본에서 선정된 영국 성인 2,640명이 조사 대상이었고,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방식을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개요는 <표 2-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2> 영국 Tracker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목적	FSA의 식품이슈 모니터
시작년도	2001
현재	2015 wave 10
주기	1년 2회(biannual)
주관기관	Food Standards Agency
조사방식	면접조사
조사대상	영국 성인 (TNS 소비자)
표본수	2,640명(2015년 기준) 매해 약 2000명
조사방법	단순무작위-지역표본 (random-location sampling)
질문수	6개(12개)

11) Food Standard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 Tracker Survey.
<http://www.food.gov.uk/science/research/ssres/publictrackingsurvey>.

나. 조사 내용

2015년 10차 조사의 조사 내용은 <표 2-13>에 제시되어 있다. 2014년 5월에 진행된 8차 조사까지는 식품 구매 장소의 위생 기준에 대한 계획(initiatives)이나 제도(shemes)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총 10개의 문항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현재 다른 조사로 분리되어 9차 조사부터는 크게 6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 2-13> 영국 Tracker 조사 내용

구분	질문내용
Q1	<p>A: 식품이슈 중 귀하가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십니까? (주관식)</p> <p>B: 다음 식품이슈 중 걱정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모넬라, 대장균 같은 식중독 - GM 식품 - 광우병(BSE) - 가축 사료 - 농약 사용 - 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제 사용 - 식품의 호르몬,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 유통기한 표시 - 외식의 식품 위생 - 가정에서의 식품 위생 - 납과 같은 식품내 자연으로 부터의 화학물질 - 표기가 없는 식품 - 해당사항 없음 <p>C: 다음 식품이슈 중 걱정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내 소금 함량 - 식품내 설탕 함량 - 식품내 지방 함량 - 식품내 포화지방 함량 - 학교급식을 포함한 어린이 관련 식품들 - 해당사항 없음

	<p>D: 다음 식품이슈 중 걱정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 - 식품가격 - 식품쓰레기 - 푸드 마일 (식품의 이동거리) - 해당사항 없음
Q2	<p>A: 귀하는 영국의 식당, 선술집(pubs), 카페 및 포장전문점(takeaways) 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걱정 또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걱정한다 - 어느 정도 걱정한다 - 걱정하지 않는 것도 걱정하는 것 도 아니다 - 어느 정도 걱정하지 않는다 - 매우 걱정하지 않는다 <p>B: 귀하는 영국의 상점과 슈퍼마켓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걱정 또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걱정한다 - 어느 정도 걱정한다 - 걱정하지 않는 것도 걱정하는 것 도 아니다 - 어느 정도 걱정하지 않는다 - 매우 걱정하지 않는다
Q3	<p>A: 귀하가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레스토랑, 카페, 선술집, 포장전문점 등에서 식사를 할 때, 이러한 장소의 위생기준에 대해 고려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다 : 항상 - 그렇다 : 간헐적으로 - 그렇지 않다 <p>B: 귀하는 식품을 구매업체나 외식 장소의 위생기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국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위생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만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문 - 평판 - 종업원의 외모 - 상점들의 일반적인 외관 - 위생표시 간판 (Hygiene sticker) - 위생 증명서 (Hygiene certificate) - 홈페이지 - 다른 방법 (자세히 작성)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p>Q4</p>	<p>다음 중 들어본 적이 있는 기관은 모두 고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artment of Health (잉글랜드 한정) - Department for Health, Social Services and Public Safety (DHSSPS) (북아일랜드 한정) - Public Health Agency (PHA) (북아일랜드 한정) - Scottish Government Health Improvement Directorate (스코틀랜드 한정) - Department for Public Health and Health Professions (웨일즈 한정) - Food Standards Agency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한정) - Food Standards Scotland (스코틀랜드 한정) - Safer Food (북아일랜드 한정)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NICE)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잉글랜드 한정) - Department for Rural Affairs (웨일즈 한정) -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ARD) (북아일랜드 한정) - The Environment Agency (잉글랜드, 웨일즈 한정) -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SEPA) (스코틀랜드 한정) - Scottish Government Rural Directorate (스코틀랜드 한정) -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 Audit Scotland (스코틀랜드 한정) - Health & Safety Executive - Office of Fair Trading -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 British Dietetic Association (BDA)
<p>Q5</p>	<p>A: FSA가 어떤 문제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문제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FSA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응답)</p> <p>B: FSA/FSS(Scotland)가 다음 문제 중 어떠한 식품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FSA나 FSS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하는 식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한지 여부 보장 - 가정내에서의 식품안전 증진 -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식품의 지속성 보장(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 영양정보표시(신호등 표시제 등) - 유통기한 표시 - 원산지 표시제 - 기타(자세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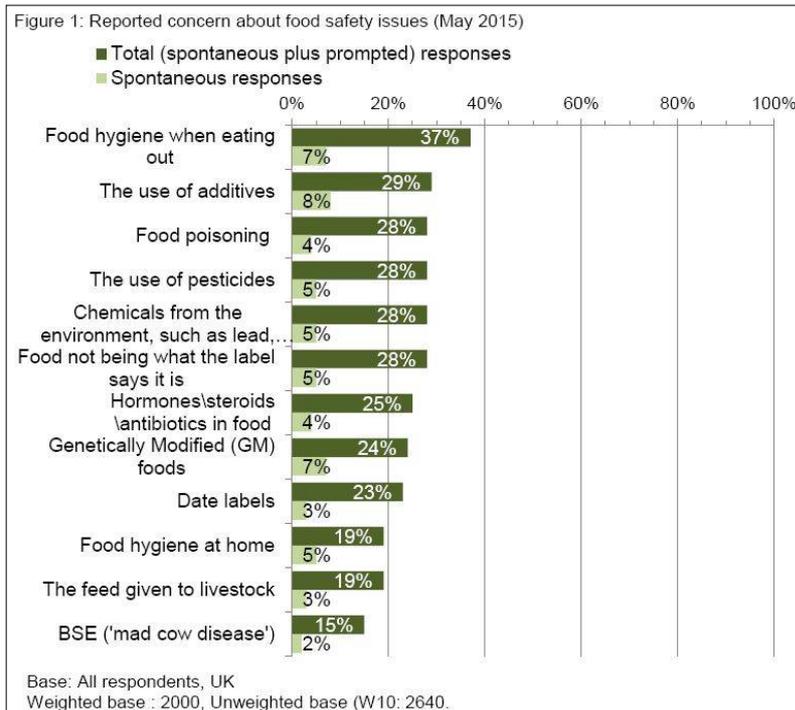
Q6	<p>A: 귀하는 FSA/FSS가 수행하는 업무를 얼마나 신뢰 또는 불신하십니까? 상점이나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가정 내에서의 식품 안전에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신뢰한다 - 신뢰한다 - 신뢰하는 것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 불신한다 - 매우 불신한다
----	---

다. 2015년 조사 결과

1) 식품 현안에 대한 우려

[그림 2-11]에는 식품 현안에 대한 우려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타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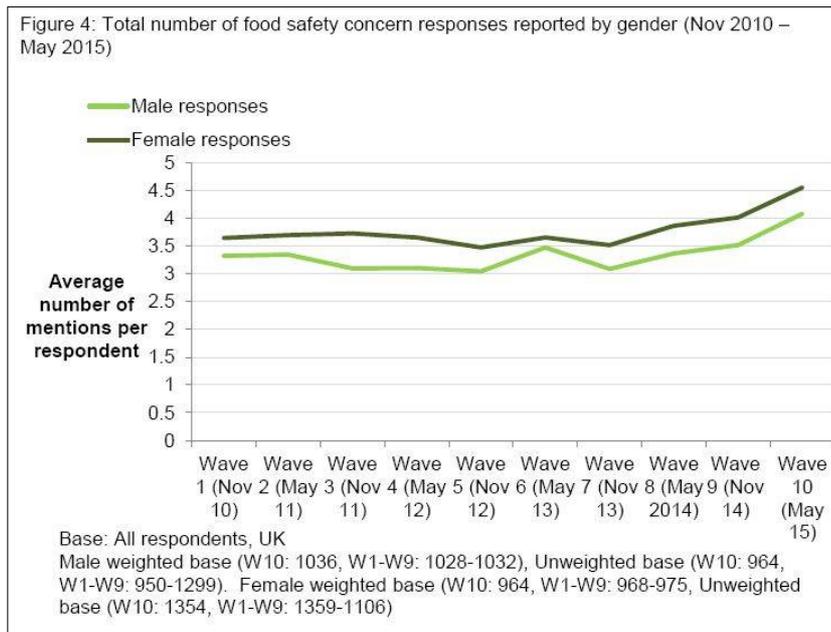
[그림 2-11]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가장 관심 있고 우려하는 현안은 ‘외식시의 식품 위생(37%)’으로 8차, 9차 조사와 동일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은 ‘식품 첨가물 사용(29%)’으로 8차, 9차 조사시 ‘식중독’ 다음으로 세 번째로 관심이 높았던 것에 비해 근소하게 순위가 높아졌다.

세부적으로는 여성은 ‘표기가 없는 식품’과 ‘광우병(BSE)’을 제외한 모든 식품 관련 현안에서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우려를 하고 있었다. ‘외식시의 식품위생’의 경우 여성의 41%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 34%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식품 첨가물 사용’ 역시 여성은 34%가 우려한다고 하였으나 남성은 25%만이 우려한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그림 2-12]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도 여성은 2010년 조사부터 2015년 10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우려를 하고 있었다.

[그림 2-12] 성별에 따른 우려하는 식품안전 현안을 선택한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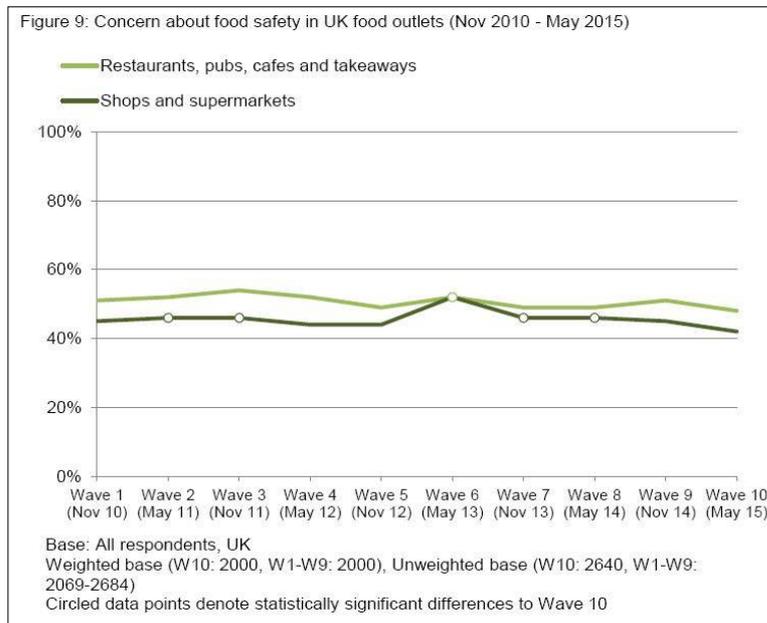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농약 사용’, ‘식품내 자연으로 부터의 화학 물질’, ‘식품의 호르몬, 스테로이드, 항생제’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16~25세 연령의 응답자의 14%만이 '식품 첨가물 사용'을 우려한다고 응답하여 25~40%의 응답을 보인 타 연령대의 응답자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50~65세 연령의 응답자는 40%가 '식품 첨가물 사용'을 우려한다고 응답하였다.

2)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정도

[그림 2-13]에는 영국내 식당, 선술집(pubs), 카페, 및 포장전문점을 포함한 외식과 상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포함하여 전체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정도에 대한 회차별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0차 조사에서 외식과 관련된 식품 판매점에서의 안전의 경우 48%의 응답자가 '매우 걱정한다'와 '어느 정도 걱정한다'에 응답하여 기존의 조사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42%가 우려를 보여 기존 2, 3회 및 6~8회차 결과보다 낮았다.

[그림 2-13] 판매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의 시계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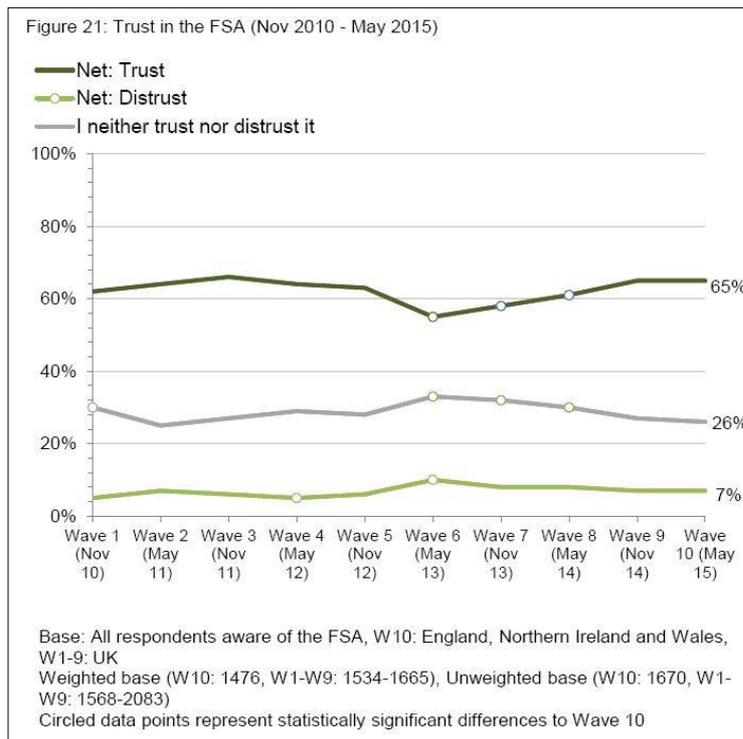
세부적으로는 여성의 51%가 외식과 관련된 식품 판매점의 안전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하여 46%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65세 연령 그룹의 경우 57%가 우려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의 그룹에 비해 높았다.

3) FSA/FSS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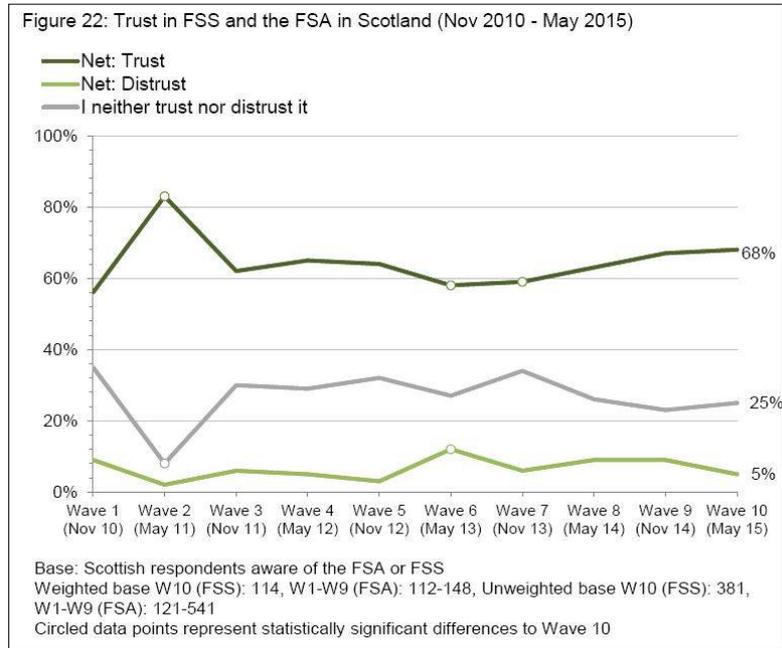
식품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의 경우 Food Standards Agency(FSA)에 대해,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의 경우 Food Standards Scotland(FSS)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가 [그림 2-14, 15]에 제시되어 있다.

FSA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6차 조사 때 최하점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체 응답자의 65%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4] FSA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



[그림 2-15] FSS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



기존 9차 조사까지 스코틀랜드의 응답자도 FSA에 대한 신뢰도를 응답하였으나 10차 조사부터는 FSS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림 2-15]에는 9차 조사까지 FSA에 대한 신뢰도에 응답한 스코틀랜드인의 조사 결과와 10차 조사의 FSS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FSS에 대한 신뢰도는 68%로 나타났다.

제5절 일본¹²⁾

1. 소비자 인식조사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위해소통 (Risk communication)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매년 식품안전모니터를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 및 식품안전위원회

12) 食品安全委員会, 食品安全モニターからの報告.
https://www.fsc.go.jp/monitor/monitor_report.html

로부터 정보발신 등에 대해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대학 등에서 식품과 관련한 학문을 이수한 사람, 식품과 관련이 깊은 자격(영양사 등)이 있는 사람, 또는 식품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등 470명을 식품안전모니터로 선정하고 있다.

2. 조사대상

일본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470명의 식품안전모니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있다. 식품안전모니터의 직업그룹은 총 7개로 구분하였다.

〈표 2-14〉 식품안전모니터 구분

직업그룹	설명
제품 생산·가공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식품 생산, 가공에 관한 직업(조리 종사자 포함)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식품 유통·판매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식품 유통, 판매 등(회사, 단체의 임원 포함)과 관련된 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식품관련 연구직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연구기관(민간의 연구기관 포함), 대학 등 식품과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 경험이 5년 이상인 경우
의료직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의료 등에 관련된 직업(의사, 수의사, 약사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교육직 경험자	- 현재 또는 과거에 교육에 관한 직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식품 관련 행정직 경험자	- 과거 식품 안전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그 외 일반소비자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직장인, 주부, 자영업 등)

3. 조사기간

가장 최근 발표된 조사의 경우 2014년의 2회차 조사이며 조사는 2015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식품안전모니터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유효응답수 423명, 응답률 90.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4. 세부조사항목

연 2회 진행되는 식품안전모니터 조사는 1회차가 당해 여름, 2회차가 다음해 초에 실시된다. 1회차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회차의 경우 매년 식품안전 정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¹³⁾. 2014년 2회 식품안전모니터 과제 보고에서 조사된 조사 분야는 크게 두가지로 다음과 같다.

- ① 식품에 관한 위해 인식에 대해
- ②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보원에 대해

<표 2-15>에는 일본 식품안전위원회가 시계열 분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1회차 조사 내용이 제시되었고, <표 2-16>에는 2014년 2회 식품안전모니터 과제 보고를 위해 2015년 2월 조사에 사용한 설문 내용이 제시되었다.

<표 2-15>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조사의 세부내용

조사분야	질문내용	
식품안전에 관한 위험 요인등에 대해	질문1: A~G에 기재된 사항의 위해측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선택지 1~6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주시요.	
	내용	선택항목
	A. 환경문제 B. 자연재해 C. 식품안전 D. 중증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 등) E. 범죄 F. 전쟁·테러 G. 교통사고	1. 매우 불안을 느낀다 2. 어느 정도 불안을 느낀다 3. 어느 쪽도 아니다 4. 그다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6. 잘 모르겠다

13) 최근 5년간 2회차 조사의 주제

- 2010년 2회차: 식품안전위원회에서의 정보 발신에 대해
- 2011년 2회차: 식품안전에 관한 의식 및 식품안전위원회에서의 정보 발신 등에 대해
- 2012년 2회차: 식품안전 정보에 대해
- 2013년 2회차: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입수한 정보의 이용 등에 대해서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조사분야	질문내용						
	<p>질문 2: A~M에 기재된 사항의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해요소에 대해 선택지 1~5 중 하나씩 선택해주시요. 또는 A~M의 위해요소 이외의 식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신경 쓰이는 것이 있으면 「N 기타」에 구체적인 예를 기입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선택지 1~5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시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선택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1. 매우 불안하다 2. 어느 정도 불안하다 3.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td> </tr> </tbody> </table> <p>질문3: 질문2의 A~M 및 N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다” 또는 “어느 정도 불안하다”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각의 위해요소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선택지 1~8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주시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선택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1.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문 2. 행정에 따른 규제가 불충분 3. 사업자의 법령준수나 위생관리가 불충분 4. 행정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미흡 5. 사업자로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미흡 6.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안 7. 막연한 불안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td> </tr> </tbody> </table> <p>질문4: 질문2의 A~M 및 N에 대해서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또는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각의 위해요소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선택지 1~8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주시요.</p>	내용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1. 매우 불안하다 2. 어느 정도 불안하다 3.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선택항목	1.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문 2. 행정에 따른 규제가 불충분 3. 사업자의 법령준수나 위생관리가 불충분 4. 행정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미흡 5. 사업자로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미흡 6.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안 7. 막연한 불안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내용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1. 매우 불안하다 2. 어느 정도 불안하다 3.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5. 잘 모르겠다						
선택항목							
1.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의문 2. 행정에 따른 규제가 불충분 3. 사업자의 법령준수나 위생관리가 불충분 4. 행정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미흡 5. 사업자로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미흡 6.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안 7. 막연한 불안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조사분야	질문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선택항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납득 2. 행정에 따른 규제가 충분 3. 사업자의 법령준수나 위생관리가 충분 4. 행정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충분 5. 사업자로부터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이 충분 6.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심 7. 막연한 안심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hr/> <p>질문5: 질문 2의 “L.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 또는 “어느 정도 불안하다”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 묻겠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선택지 1~9 중에서 제일 강하게 맞는 순 3개를 선택해주시시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선택항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2.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해 과학자의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3. 피폭량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4.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5. 새로운 규제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6. 식품의 검사규제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7. 정부의 정보공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8. 주위에서 걱정하기 때문에 9.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p>질문6: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의 제공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택지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순으로 5개 선택해주시시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선택항목</div>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V 2.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3. 일반 잡지·서적 4. 전문서·학술서 등 5.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6. 식품안전위원회 7. 소비자청 8. 후생노동성 9. 농림수산성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 11. 식품생산자 12.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 13. 대학·연구기관·연구소 14. 의료기관 15. NPO·소비자단체 16. 가족·지인 17. 지역·학교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V 2.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3. 일반 잡지·서적 4. 전문서·학술서 등 5.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6. 식품안전위원회 7. 소비자청 8. 후생노동성 9. 농림수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 11. 식품생산자 12.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 13. 대학·연구기관·연구소 14. 의료기관 15. NPO·소비자단체 16. 가족·지인 17. 지역·학교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V 2.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3. 일반 잡지·서적 4. 전문서·학술서 등 5.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6. 식품안전위원회 7. 소비자청 8. 후생노동성 9. 농림수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 11. 식품생산자 12.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 13. 대학·연구기관·연구소 14. 의료기관 15. NPO·소비자단체 16. 가족·지인 17. 지역·학교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조사분야	질문내용
	<p>질문7: 일본대지진에 따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후 식품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선택지 1~5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시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선택항목</p> <p>1. 사고직후에도 현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했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3. 사고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4. 사고직후에도 현재에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다.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hr/> <p>질문8: 일본대지진 전후에 식음료품의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선택지 1~4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시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선택항목</p> <p>1. 일본대지진 전후에 변화가 없다. 2. 일본대지진 직후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전과 같아졌다. 3. 일본대지진 이후에 변화하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4.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hr/> <p>질문9: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밀도는 식품에 대한 사고방식은 어느 것에 가깝습니까? 해당 사항을 1~5 중에 하나 선택해주시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선택항목</p> <p>1. 기준치를 밀들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건강을 위해 먹거나 구매하지 않는다. 2. 현재 유통되는 것은 검사 결과 건강에 무해하므로 먹거나 구매한다. 3. 방사성 식품에 개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판단할 수 없다. 4. 원래 방사성 물질에 대하여 걱정한 적이 없다. 5.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p>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안전모니터의 의식·행동에 대해</p>	<p>질문10: A~M에 게재된 위해요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해요인에 대해 선택지 1~5 중 하나씩 선택해주시시오. 또한, “N. 기타”의 경우 질문2의 “N. 기타”에 기입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십시오.</p>

조사분야	질문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91 421 952 472">내용</th> <th data-bbox="952 421 1214 472">선택항목</th> </tr> </thead> </table>	내용	선택항목	
	내용	선택항목		
	<p>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생제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I. 체세포 복제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p>1.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다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잘 모르겠다</p>		
<p>질문11: 식품에 관한 정보 입수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보기 A~Q의 정보에 대해, 식품안전모니터가 된 이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였습니까? 보기마다 선택지 1~7 중 하나를 선택해주시시오. 또한 A~Q 이외에 횟수가 증가한 정보원의 경우 R에 기재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91 1106 952 1158">정보 입수처</th> <th data-bbox="952 1106 1214 1158">선택항목</th> </tr> </thead> </table>	정보 입수처	선택항목		
정보 입수처	선택항목			
<p>A. TV B. 신문(인터넷의 뉴스사이트 포함) C. 일반 잡지·서적 D. 전문서·학술서 등 E.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사이트 등 (SNS·블로그 등) F. 식품안전위원회 G. 소비자청 H. 후생노동성 I. 농림수산성 J. 보건소 등의 지방자치단체 K. 식품생산자 L. 슈퍼 등의 판매사업자 M. 대학·연구기관·연구소 N. 의료기관 O. NPO·소비자단체 P. 가족·지인 Q. 지역·학교 R. 기타 증가한 것(구체적으로 기입)</p>	<p>1. 증가했다 2. 증가한 편이다 3. 변화가 없다 4. 감소한 편이다 5. 감소했다 6. 이용한 적이 없다 7. 잘 모르겠다</p>			

조사분야	질문내용
	<p>질문12: 고기(장기 포함)를 생으로 먹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습니까? 선택지 1~4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2px;">선택항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증이 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2. 설사정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위험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모르고 있다. 4. 어린이, 고령자에 대해서는 특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hr/> <p>질문13: 고기(장기 포함)를 생으로 먹는 것에 대해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1~10에 대해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를 기재해주시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2px;">선택항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의 생고기 2. 소의 생 장기(간 등) 3. 돼지의 생고기 4. 돼지의 생 장기(간 등) 5. 닭의 생고기 6. 닭의 생 장기(간 등) 7. 말의 생고기 8. 말의 생 장기(간 등) 9. 사슴, 멧돼지, 곰의 생고기 10. 사슴, 멧돼지, 곰의 장기 <hr/> <p>질문14: 지난 1년간 본인 및 주변에서 고기의 생식에 대한 상황과 변화 및 인식에 대해 다음 보기 1~13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2px;">선택항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 것을 삼가고 있거나 관두었다 2. 먹는 것을 삼갔지만, 현재는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 3. 먹는 것을 특별히 자제하지 않는다 4. 원래 고기 생식을 하지 않는다 5. 그 지역의 특산품이면 먹을 수 있다 6. 가게의 추천이면 먹을 수 있다 7. 음식점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8. 음식점에서 잠시 제공되지 않았지만 다시 재개되었다 9.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수준은 변화가 없다 10.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것은 안전하다곳 #오각한다 11. 표면이 가열되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2. 체력, 컨디션으로 판단하여 먹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13. 기타 (구체적으로 기입)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2-16〉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과 정보원” 조사의 세부내용

조사분야	질문내용
<p>식품에 관한 위해 인식에 대해서</p>	<p>질문1: 현대 일본의 식생활 등에서,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신경써야할 필요성이 큰 순서대로 10개를 선택해주시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선택항목</p> <p>A.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 대장균 O157,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노로바이러스 등) B. 복어, 버섯 등 자연으로부터의 독 C. BSE D. 농약 잔류 E. 식품 첨가물 F.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 G. 가공 공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미드, 클로로 프로파놀 등 H. 식품용기에서 용출되는 화학물질(비스페놀 A 등) I. 곰팡이 독(아플라톡신, 디옥시니발레놀, 니발레놀 등) J. 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의 자연계의 금속원소 K. 다이옥신류 L. 유전자 재조합 식품 M. 수입 식품 N. 알레르기 O. 건강 보조 식품 P. 담배 Q. 음주 R. 편식 및 과식 S.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p>질문2: 질문1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다음 보기에서 하나 선택해주시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선택항목</p> <p>1.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고 미디어(신문, TV 등)에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2.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고 출판물에서 접했기 때문에 3. 지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4. 과학적인 위해가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5. 정부 규제에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사항이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6. 기업의 준수 및 위생관리에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사항이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7. 과거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8. 자녀와 후손들에게 악영향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9. 막연한 이유 10.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조사분야	질문내용																																																	
	<p>질문3: 일본의 현대 식생활 등에서 암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5개를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32 517 1166 965">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432 517 1166 562">선택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2 562 799 591">1. 일반적인 음식</td> <td data-bbox="799 562 1166 591">12. 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의</td> </tr> <tr> <td data-bbox="432 591 799 620">2. 탄 음식</td> <td data-bbox="799 591 1166 620">자연계의 금속원소</td> </tr> <tr> <td data-bbox="432 620 799 649">3. 음주</td> <td data-bbox="799 620 1166 649">13. 다이옥신류</td> </tr> <tr> <td data-bbox="432 649 799 678">4. 편식 및 과식</td> <td data-bbox="799 649 1166 678">14. 유전자 재조합 식품</td> </tr> <tr> <td data-bbox="432 678 799 707">5.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td> <td data-bbox="799 678 1166 707">15. 건강 보조 식품</td> </tr> <tr> <td data-bbox="432 707 799 736">6. 복어, 버섯 등의 자연으로부터의 독</td> <td data-bbox="799 707 1166 736">16. 대두이소플라본</td> </tr> <tr> <td data-bbox="432 736 799 766">7. 농약 잔류</td> <td data-bbox="799 736 1166 766">17. 식품중 방사성 물질</td> </tr> <tr> <td data-bbox="432 766 799 795">8. 식품첨가물</td> <td data-bbox="799 766 1166 795">18. 자연 방사선</td> </tr> <tr> <td data-bbox="432 795 799 824">9. 의약품</td> <td data-bbox="799 795 1166 824">(우주선, 대지로부터의)</td> </tr> <tr> <td data-bbox="432 824 799 853">10. 가공 공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td> <td data-bbox="799 824 1166 853">19. 담배</td> </tr> <tr> <td data-bbox="432 853 799 882">아미드, 클로로 프로파놀 등</td> <td data-bbox="799 853 1166 882">20. 노화</td> </tr> <tr> <td data-bbox="432 882 799 911">11. 곰팡이 독(아플라톡신, 디옥시니</td> <td data-bbox="799 882 1166 911">21. 성생활</td> </tr> <tr> <td data-bbox="432 911 799 940">발레놀, 니발레놀 등)</td> <td data-bbox="799 911 1166 940">22. 대기 오염, 공해</td> </tr> <tr> <td></td> <td data-bbox="799 940 1166 969">23.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 </tr> </tbody> </table> <p>질문4: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어디입니까? 다음 보기 중 정보를 많이 얻는 순서대로 5개를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32 1122 1166 1682"> <thead> <tr> <th colspan="1" data-bbox="432 1122 1166 1167">선택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2 1167 1166 1196">1. 식품안전위원회</td> </tr> <tr> <td data-bbox="432 1196 1166 1225">2. 식품안전위원회 이외의 국가기관(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등)</td> </tr> <tr> <td data-bbox="432 1225 1166 1254">3.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td> </tr> <tr> <td data-bbox="432 1254 1166 1283">4. 대학·연구기관</td> </tr> <tr> <td data-bbox="432 1283 1166 1312">5. 식품제조업체</td> </tr> <tr> <td data-bbox="432 1312 1166 1341">6. 건강식품업체</td> </tr> <tr> <td data-bbox="432 1341 1166 1370">7. 슈퍼 등 소매점</td> </tr> <tr> <td data-bbox="432 1370 1166 1400">8. 농가(생산자)</td> </tr> <tr> <td data-bbox="432 1400 1166 1429">9. 소비자 단체</td> </tr> <tr> <td data-bbox="432 1429 1166 1458">10. TV 뉴스</td> </tr> <tr> <td data-bbox="432 1458 1166 1487">11. TV 쇼 등</td> </tr> <tr> <td data-bbox="432 1487 1166 1516">12. 신문</td> </tr> <tr> <td data-bbox="432 1516 1166 1545">13. 잡지</td> </tr> <tr> <td data-bbox="432 1545 1166 1574">14. 도서</td> </tr> <tr> <td data-bbox="432 1574 1166 1603">15. 1~14번 이외의 인터넷상의 일반 홈페이지의 정보</td> </tr> <tr> <td data-bbox="432 1603 1166 1632">16. 2~14번 이외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블로그</td> </tr> <tr> <td data-bbox="432 1632 1166 1662">17. 가족, 지인</td> </tr> <tr> <td data-bbox="432 1662 1166 1691">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 </tr> </tbody> </table>	선택항목		1. 일반적인 음식	12. 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의	2. 탄 음식	자연계의 금속원소	3. 음주	13. 다이옥신류	4. 편식 및 과식	14. 유전자 재조합 식품	5.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15. 건강 보조 식품	6. 복어, 버섯 등의 자연으로부터의 독	16. 대두이소플라본	7. 농약 잔류	17. 식품중 방사성 물질	8. 식품첨가물	18. 자연 방사선	9. 의약품	(우주선, 대지로부터의)	10. 가공 공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	19. 담배	아미드, 클로로 프로파놀 등	20. 노화	11. 곰팡이 독(아플라톡신, 디옥시니	21. 성생활	발레놀, 니발레놀 등)	22. 대기 오염, 공해		23.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식품안전위원회	2. 식품안전위원회 이외의 국가기관(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등)	3.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4. 대학·연구기관	5. 식품제조업체	6. 건강식품업체	7. 슈퍼 등 소매점	8. 농가(생산자)	9. 소비자 단체	10. TV 뉴스	11. TV 쇼 등	12. 신문	13. 잡지	14. 도서	15. 1~14번 이외의 인터넷상의 일반 홈페이지의 정보	16. 2~14번 이외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블로그	17. 가족, 지인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일반적인 음식	12. 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의																																																	
2. 탄 음식	자연계의 금속원소																																																	
3. 음주	13. 다이옥신류																																																	
4. 편식 및 과식	14. 유전자 재조합 식품																																																	
5.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15. 건강 보조 식품																																																	
6. 복어, 버섯 등의 자연으로부터의 독	16. 대두이소플라본																																																	
7. 농약 잔류	17. 식품중 방사성 물질																																																	
8. 식품첨가물	18. 자연 방사선																																																	
9. 의약품	(우주선, 대지로부터의)																																																	
10. 가공 공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	19. 담배																																																	
아미드, 클로로 프로파놀 등	20. 노화																																																	
11. 곰팡이 독(아플라톡신, 디옥시니	21. 성생활																																																	
발레놀, 니발레놀 등)	22. 대기 오염, 공해																																																	
	23.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식품안전위원회																																																		
2. 식품안전위원회 이외의 국가기관(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등)																																																		
3.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4. 대학·연구기관																																																		
5. 식품제조업체																																																		
6. 건강식품업체																																																		
7. 슈퍼 등 소매점																																																		
8. 농가(생산자)																																																		
9. 소비자 단체																																																		
10. TV 뉴스																																																		
11. TV 쇼 등																																																		
12. 신문																																																		
13. 잡지																																																		
14. 도서																																																		
15. 1~14번 이외의 인터넷상의 일반 홈페이지의 정보																																																		
16. 2~14번 이외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블로그																																																		
17. 가족, 지인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조사분야	질문내용																			
	<p>질문5: 식품안전에 대해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5개를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64 483 1198 528"> <thead> <tr> <th>선택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 식품안전위원회</td> </tr> <tr> <td>2. 식품안전위원회 이외의 국가기관(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td> </tr> <tr> <td>3.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td> </tr> <tr> <td>4. 대학·연구기관</td> </tr> <tr> <td>5. 식품제조업체</td> </tr> <tr> <td>6. 건강식품업체</td> </tr> <tr> <td>7. 슈퍼 등 소매점</td> </tr> <tr> <td>8. 농가(생산자)</td> </tr> <tr> <td>9. 소비자 단체</td> </tr> <tr> <td>10. TV 뉴스</td> </tr> <tr> <td>11. TV 쇼 등</td> </tr> <tr> <td>12. 신문</td> </tr> <tr> <td>13. 잡지</td> </tr> <tr> <td>14. 도서</td> </tr> <tr> <td>15. 1~14번 이외의 인터넷상의 일반 홈페이지의 정보</td> </tr> <tr> <td>16. 2~14번 이외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블로그</td> </tr> <tr> <td>17. 가족, 지인</td> </tr> <tr> <td>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 </tr> </tbody> </table>	선택항목	1. 식품안전위원회	2. 식품안전위원회 이외의 국가기관(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3.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4. 대학·연구기관	5. 식품제조업체	6. 건강식품업체	7. 슈퍼 등 소매점	8. 농가(생산자)	9. 소비자 단체	10. TV 뉴스	11. TV 쇼 등	12. 신문	13. 잡지	14. 도서	15. 1~14번 이외의 인터넷상의 일반 홈페이지의 정보	16. 2~14번 이외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블로그	17. 가족, 지인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식품안전위원회																				
2. 식품안전위원회 이외의 국가기관(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																				
3. 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4. 대학·연구기관																				
5. 식품제조업체																				
6. 건강식품업체																				
7. 슈퍼 등 소매점																				
8. 농가(생산자)																				
9. 소비자 단체																				
10. TV 뉴스																				
11. TV 쇼 등																				
12. 신문																				
13. 잡지																				
14. 도서																				
15. 1~14번 이외의 인터넷상의 일반 홈페이지의 정보																				
16. 2~14번 이외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 블로그																				
17. 가족, 지인																				
1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p>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보원에 대해서</p>	<p>질문6: 일본의 현대 식생활 등에서 건강에 대한 영향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는 무엇입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5개를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64 1205 1198 1249"> <thead> <tr> <th>선택항목</th> </tr> </thead> <tbody> <tr> <td>A. 식품첨가물</td> </tr> <tr> <td>B. 잔류 농약</td> </tr> <tr> <td>C. 가축용 항균물질</td> </tr> <tr> <td>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td> </tr> <tr> <td>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td> </tr> <tr> <td>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td> </tr> <tr> <td>G. BSE</td> </tr> <tr> <td>H.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td> </tr> <tr> <td>I.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축 등</td> </tr> <tr> <td>J. 건강식품</td> </tr> <tr> <td>K. 비료·사료 등</td> </tr> <tr> <td>L. 방사성물질</td> </tr> <tr> <td>M. 아크릴아미드</td> </tr> <tr> <td>N. 특별히 없음</td> </tr> </tbody> </table>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균물질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I.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축 등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특별히 없음				
선택항목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C. 가축용 항균물질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I.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축 등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특별히 없음																				

조사분야	질문내용						
	<p>질문7: 질문6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러한 위해요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음 정보를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질문6에서 선택한 위해요소에 대해 하나 선택해주시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선택항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홈페이지 2. 페이스북 3. 메일 매거진 4. 계간지 5. 의견교환회 6. 연속 강좌 7. 모니터 회의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9. 식품안전위원회의 정보를 특별히 확인하지 않음 <hr/> <p>※ 9번을 선택하신 경우 그 이유를 가~아에서 선택해주시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선택항목</div> <p>가. 검색엔진에서 검색했지만 상위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워서 다. 식품안전위원회의 정보 내용이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라.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마.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정보를 알고 있는 지인 등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바. 원래 확인할 생각이 없어서 사.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어서 아.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hr/> <p>질문8: 질문7에서 선택한 식품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1~8번)에 대해 묻겠습니다. 확인한 정보의 난이도와 양, 납득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에서 선택한 정보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다음 사항 ①~③에 대하여 각각 1개씩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정보의 난이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보의 양</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보에 대한 납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해할 수 있었다. 2. 대체로 이해할 수 있었다. 3. 그다지 이해할 수 없었다. 4. 이해할 수 없었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많다. 2. 적절하다. 3. 적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득할 수 있다. 2. 대체로 납득할 수 있다. 3. 별로 납득할 수 없었다. 4.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td> </tr> </tbody> </table>	정보의 난이도	정보의 양	정보에 대한 납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해할 수 있었다. 2. 대체로 이해할 수 있었다. 3. 그다지 이해할 수 없었다. 4. 이해할 수 없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많다. 2. 적절하다. 3. 적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득할 수 있다. 2. 대체로 납득할 수 있다. 3. 별로 납득할 수 없었다. 4.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정보의 난이도	정보의 양	정보에 대한 납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해할 수 있었다. 2. 대체로 이해할 수 있었다. 3. 그다지 이해할 수 없었다. 4. 이해할 수 없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많다. 2. 적절하다. 3. 적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득할 수 있다. 2. 대체로 납득할 수 있다. 3. 별로 납득할 수 없었다. 4.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조사분야	질문내용																				
	<p>질문9: 질문8의 ③번 사항인 “정보에 대한 납득”에서 ‘별로 납득할 수 없었다’와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정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64 510 1198 562"> <thead> <tr> <th>선택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 기재된 정보로부터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td> </tr> <tr> <td>2. 난해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td> </tr> <tr> <td>3.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td> </tr> <tr> <td>4.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td> </tr> <tr> <td>5. 식품안전위원회와 다른 견해와 정보가 있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td> </tr> <tr> <td>6. 식품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td> </tr> <tr> <td>7. 과학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td> </tr> <tr> <td>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 </tr> </tbody> </table> <p>질문10: 질문9에서 ‘식품안전위원회와 다른 견해와 정보가 있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경우 ‘다른 견해와 정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다음 보기에서 3개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64 1066 1198 1117"> <thead> <tr> <th>선택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 언론이 편집·발행한 견해 및 정보</td> </tr> <tr> <td>2.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일반인이 편집·발행한 견해 및 정보</td> </tr> <tr> <td>3. (1, 2번을 제외한) NPO, 소비자 단체 등이 편집·발행한 견해 및 정보</td> </tr> <tr> <td>4. (1, 2번을 제외한) 의사가 직접 발행한 견해 및 정보</td> </tr> <tr> <td>5. (1, 2번을 제외한) 과학자(의사 제외)가 직접 발행한 견해 및 정보</td> </tr> <tr> <td>6. 기타(구체적으로 기입)</td> </tr> </tbody> </table> <p>질문11: 질문6에서 보인 위해요소의 안전성에 대해 과거에는 신경쓰였지만 이후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된 것이 있습니까? 다음 보기 중 적당한 것을 5개 이내에서 선택하고, 선택한 위해요소(N 제외)에 대해 신경 쓰이지 않게 된 이유를 하나씩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459 1547 1217 1682"> <thead> <tr> <th>위해요소</th> <th>신경 쓰이지 않게된 이유</th> </tr> </thead> <tbody> <tr> <td>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td> <td>1. 위해평가에 대한 사고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td> </tr> </tbody> </table>	선택항목	1. 기재된 정보로부터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2. 난해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3.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4.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5. 식품안전위원회와 다른 견해와 정보가 있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6. 식품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 과학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언론이 편집·발행한 견해 및 정보	2.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일반인이 편집·발행한 견해 및 정보	3. (1, 2번을 제외한) NPO, 소비자 단체 등이 편집·발행한 견해 및 정보	4. (1, 2번을 제외한) 의사가 직접 발행한 견해 및 정보	5. (1, 2번을 제외한) 과학자(의사 제외)가 직접 발행한 견해 및 정보	6.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위해요소	신경 쓰이지 않게된 이유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1. 위해평가에 대한 사고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항목																					
1. 기재된 정보로부터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2. 난해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3.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4.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5. 식품안전위원회와 다른 견해와 정보가 있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6. 식품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 과학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선택항목																					
1. 언론이 편집·발행한 견해 및 정보																					
2.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일반인이 편집·발행한 견해 및 정보																					
3. (1, 2번을 제외한) NPO, 소비자 단체 등이 편집·발행한 견해 및 정보																					
4. (1, 2번을 제외한) 의사가 직접 발행한 견해 및 정보																					
5. (1, 2번을 제외한) 과학자(의사 제외)가 직접 발행한 견해 및 정보																					
6.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위해요소	신경 쓰이지 않게된 이유																				
A. 식품첨가물 B. 잔류 농약	1. 위해평가에 대한 사고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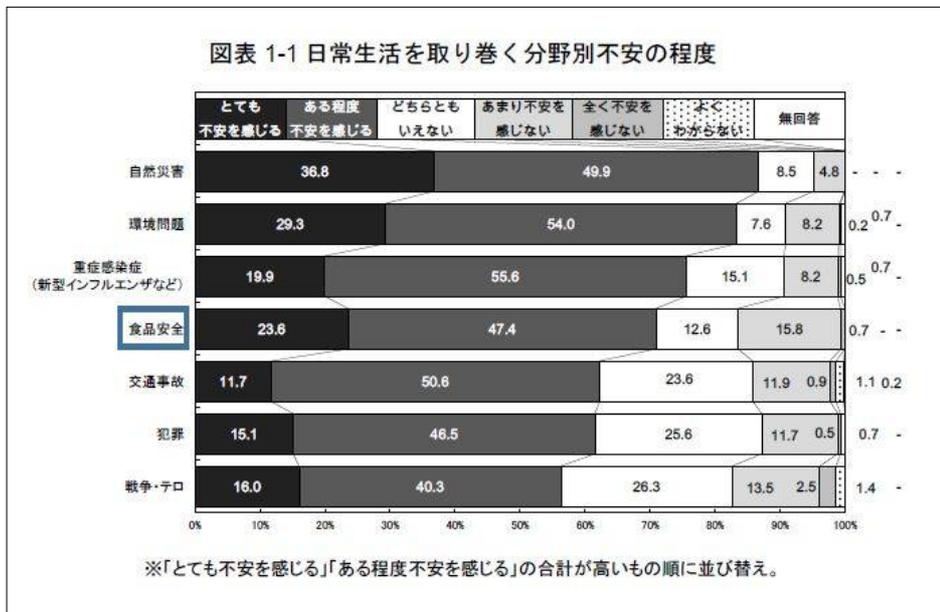
조사분야	질문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C. 가축용 항균물질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 (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I.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축 등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특별히 없음</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2. 식품안전위원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3. 정부에 의한 위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 검사 결과가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5. 많은 사람(정부나 기업, 단체 등을 포함)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6. 신뢰할 수 있는 사람(정부나 기업, 단체 등을 포함)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7. 안전성에 대해 더 신경써야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8. 이전에 비해 식품에 함유되어있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 보도에서 보이지 않아서 10.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td> </tr> </table> <p>질문12: 질문11에서 선택한 위해요소에 대해, 식품안전모니터가 되었다는 것이 위해요소의 안전성에 신경을 쓰이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위해요소마다 보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선택항목</th> </tr> <tr> <td style="padding: 5px;"> <p>1.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2.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3.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p> </td> </tr> </table> <p>질문13: 식품 안전성에 관해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어떻게 알아보려고 합니까? 다음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3개 이내에서 선택해주시시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선택항목</th> </tr> <tr> <td style="padding: 5px;"> <p>1. 식품안전위원회의 용어(홈페이지에 게재된 “제5판 잠정판”) 2. 식품안전위원회의 “비주일판” 용어집(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 3. 식품안전위원회의 “위해요소별 정보”(홈페이지에 게재) 4. 타 부처 및 지자체가 만든 용어 등의 자료 및 홈페이지 (부처 및 지자체명, 책 제목 등을 아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5. 전문서 및 학술서 등 6. 인터넷 검색엔진 7. 1~6번 이외의 자료 및 홈페이지(구체적으로 기입)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td> </tr> </table>	<p>C. 가축용 항균물질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 (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I.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축 등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특별히 없음</p>	<p>2. 식품안전위원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3. 정부에 의한 위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 검사 결과가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5. 많은 사람(정부나 기업, 단체 등을 포함)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6. 신뢰할 수 있는 사람(정부나 기업, 단체 등을 포함)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7. 안전성에 대해 더 신경써야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8. 이전에 비해 식품에 함유되어있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 보도에서 보이지 않아서 10.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선택항목	<p>1.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2.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3.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p>	선택항목	<p>1. 식품안전위원회의 용어(홈페이지에 게재된 “제5판 잠정판”) 2. 식품안전위원회의 “비주일판” 용어집(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 3. 식품안전위원회의 “위해요소별 정보”(홈페이지에 게재) 4. 타 부처 및 지자체가 만든 용어 등의 자료 및 홈페이지 (부처 및 지자체명, 책 제목 등을 아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5. 전문서 및 학술서 등 6. 인터넷 검색엔진 7. 1~6번 이외의 자료 및 홈페이지(구체적으로 기입)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p>C. 가축용 항균물질 D. 기구·용기포장으로부터의 용출화학물질 E. 오염물질 (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 F.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 G. BSE H.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I.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축 등 J. 건강식품 K. 비료·사료 등 L. 방사성물질 M. 아크릴아미드 N. 특별히 없음</p>	<p>2. 식품안전위원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3. 정부에 의한 위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 검사 결과가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5. 많은 사람(정부나 기업, 단체 등을 포함)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6. 신뢰할 수 있는 사람(정부나 기업, 단체 등을 포함)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7. 안전성에 대해 더 신경써야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8. 이전에 비해 식품에 함유되어있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 보도에서 보이지 않아서 10.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선택항목							
<p>1.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2.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3.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p>							
선택항목							
<p>1. 식품안전위원회의 용어(홈페이지에 게재된 “제5판 잠정판”) 2. 식품안전위원회의 “비주일판” 용어집(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 3. 식품안전위원회의 “위해요소별 정보”(홈페이지에 게재) 4. 타 부처 및 지자체가 만든 용어 등의 자료 및 홈페이지 (부처 및 지자체명, 책 제목 등을 아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5. 전문서 및 학술서 등 6. 인터넷 검색엔진 7. 1~6번 이외의 자료 및 홈페이지(구체적으로 기입) 8. 기타(구체적으로 기입)</p>							

5. 조사 결과

가. 여러 위험요소별 상대적인 불안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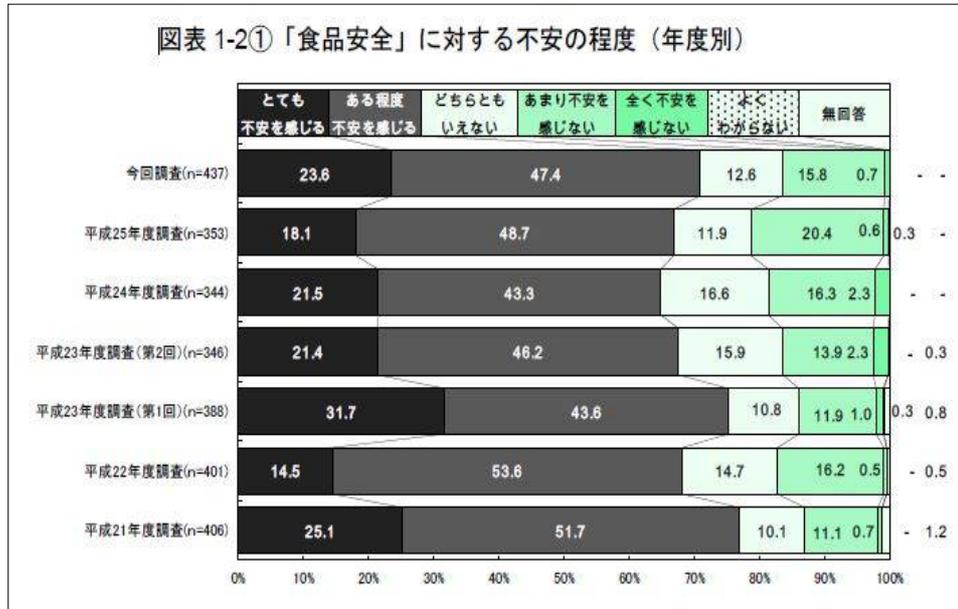
[그림 2-16]에는 일상생활을 둘러싼 여러 위험요소별 상대적인 불안정도가 나타나 있다. 상대적인 안전의 수준을 물어본 항목에서는 식품안전의 경우 「매우 불안」과 「어느 정도 불안」을 합친 비율이 71.0%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다른 분야의 경우 자연 재해 86.7%, 환경문제 83.3%, 중증감염(신종 인플루엔자등) 75.5%, 교통사고 62.3%, 범죄 61.6%, 전쟁/테러 5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6]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일상생활을 둘러싼 분야별 불안정도



식품안전의 불안정도에 대한 시계열적 비교 결과는 [그림 2-17]에 제시되어 있다. “매우 불안을 느낀다”를 선택한 비율은 2011년 일본대지진 발생시 31.7%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왔으나 2014년 조사시 전년보다 5.5%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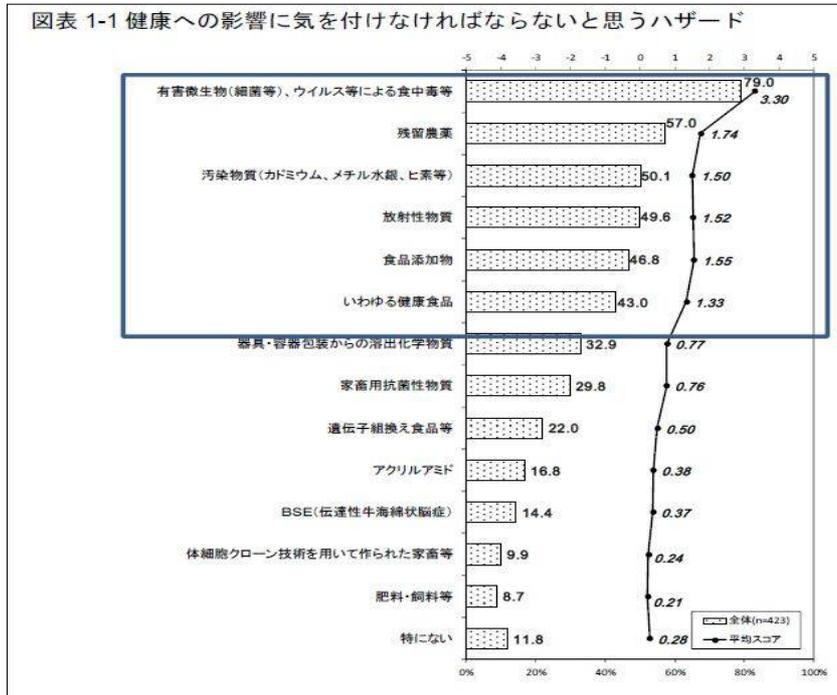
[그림 2-17] 일본 식품안전모니터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정도 시계열 분석



나.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

[그림 2-18]에는 현대 일본의 식생활 등에서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를 순서대로 5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이 79.0%로 가장 많았고 “잔류 농약”이 57.0%, “오염물질(카드뮴, 메틸 수은, 비소 등)”이 43.0%였다. 순위별로 뽑은 5개 위해요소의 경우 1위가 5점, 5위가 1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균 점수를 낸 결과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이 3.30점으로 역시 가장 높았고 “잔류 농약”이 1.74점이었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답변 비율은 46.8%로 5위였으나 평균 점수는 1.55로 3위로 나타났다.

[그림 2-18] 일본 식품안전모니터가 건강에 대한 영향에 신경써야한다고 생각하는 위해요소



세부적으로는 모든 특성에서 “유해미생물(세균),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등”이 1위였으며 특히 남성의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여성의 평균 점수인 3.01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남성은 “잔류 농약”이 2위로 여성보다 높았고 여성은 “식품첨가물”과 “방사성물질”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잔류 농약”이 모든 연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방사성물질”의 경우 20대~5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20대 3위, 30대 2위, 40대 4위, 50대 4위)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6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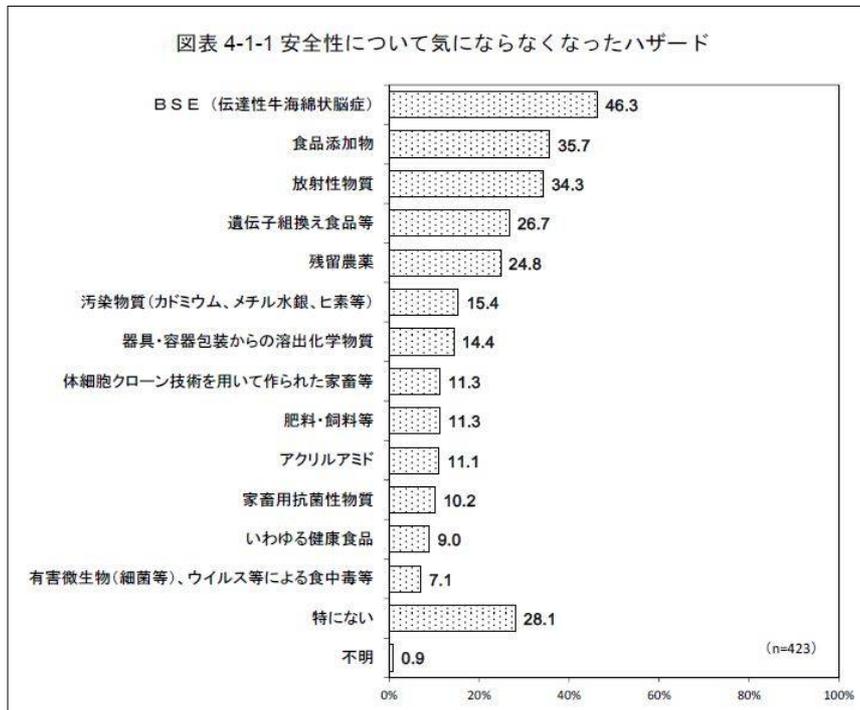
나. 안정성을 신경쓰지 않게 된 위해요소

[그림 2-19]에는 과거 안전성에 대해 신경쓰였지만 이후 신경쓰이지 않게 된 위해요소를 다섯가지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BSE”가 46.3%로 가장 높았고 “식품첨가물”이 35.7%, “방사성물질”이 34.3%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BSE”가 1위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이 1위였고 그 외의 연령대는 “BSE”가 1위였다.

[그림 2-19] 일본 식품안전모니터가 안정성을 신경쓰지 않게 된 위해요소



제6절 시사점

1. 통계청의 기존 통계관리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을 살펴본 바 식품안전체감도 생산, 관리, 공포, 발전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2. 즉, 생산자료값의 오차가 클 경우 국가통계로 승인이 안되고 있어 현재는 국조실의 관리통계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패널 수를 확충하여 지역별 오차를 줄이거나 식품안전 인식에 관한 추세분석에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결정 받는 것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3. 식품분야에서도 기본적인 행정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극대화하고, 통계청에서 매년 추진하는 연례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규 식품통계 생산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4.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통계는 표본 대표성, 오차산출 불가능 등으로 인해 국가통계로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인식파악 등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식품분야의 조사통계 및 가공통계 생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런 통계의 생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6. 일본, 영국 등 매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조사체계,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국제적인 시계열 분석 결과를 도출해 얻어지는 시사점을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참고하면 식품안전체감도 생산의 또다른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제 3 장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설계

- 제1절 조사설계
- 제2절 조사계획
- 제3절 사전조사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3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

조사설계 <

제1절 조사설계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위한 조사설계는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3년 새정부 출범이후 하반기에 처음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매년 2회씩 조사를 실시하여 시계열적 비교분석을 하게 되었다. 조사내용 매년 동일하게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해마다 현안에 대해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부가조사로 구성된다.

2013년에 선정한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주체는 국무조정실이고, 조사주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7월과 12월에 각각 보고 및 발표하게 되었고, 조사 및 통계분석 등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3-1>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 체감도 등 조사	
조사내용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조사구분	표본조사	
조사종류	패널조사	
조사규모	패널 1,300명 및 전문가 250명 이내	탈락률 등 고려
표본추출	층화비례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Random Sampling)	
조사주기	1년 2회	
조사방법	전화조사 및 인터넷 조사	
자료수집	설문조사법	
조사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 사회조사센터	
조사주체	국무조정실	
결과발표	7월, 12월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가. 조사절차

이 연구의 전체 절차는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표본설계를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설문지 개발 및 수정, 사전조사, 상·하반기 조사 실시 및 2015년 식품안전 체감도를 산출한다.

[그림 3-1] 조사계획 수립 등 조사절차



1) 조사자료 에디팅(editing)

조사가 완료된 평가표를 오류 점검 및 수정하여 코딩할 수 있는 자료화한다.

2) 조사자료 코딩(coding)

에디팅이 된 조사자료를 통계분석하기 위해 부호화 한다.

3) 조사자료 크리닝(cleaning)

조사자료의 코딩 후 입력된 자료의 오류 점검 및 수정으로 통계분석 전 마지막 조사 자료 질관리를 한다.

4) 조사자료 프로세싱(processing)

조사자료를 에디팅, 크리닝한 후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나. 표본설계

1) 기본원칙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표본설계는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은 기본원칙하에 설계되었다. Final Sampling Unit은 개인으로 하며 Sample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계통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단위는 성, 연령, 지역이었다.

<표 3-2> 표본설계 기본원칙

구분	내용
모집단(population)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를 활용
표본의 특성 및 크기	제주도 포함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법에 의한 층화비례계통추출법 적용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모집단

표본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집단은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집단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성인 남녀인 36,690,307명으로 통계청의 2012년 인구추계치이다.

세종시는 포함되지 않은 16개 시·도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인구추계치였다.

40대 인구수가 남, 녀 모두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60대 이상의 인구수가 가장 적었다.

<표 3-3> 모집단 분포 현황

(단위: 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36,690,307	3,587,760	3,231,240	4,100,937	3,909,584	4,340,214	4,191,892	3,708,107	3,708,864	2,754,588	3,157,121
서울	7,715,005	787,703	808,662	885,118	866,717	823,430	834,599	731,849	794,267	564,237	618,423
부산	2,622,981	251,639	228,559	251,575	247,484	271,727	285,138	287,403	310,114	229,658	259,684
대구	1,823,926	180,792	155,466	184,114	188,664	215,182	222,105	188,454	194,497	134,716	159,936
인천	2,060,782	204,206	186,035	242,851	225,116	257,297	251,437	214,642	206,892	129,264	143,042
광주	1,079,629	113,823	110,321	122,924	122,886	127,866	127,302	98,786	100,730	72,464	82,527
대전	1,121,627	129,013	115,495	124,267	124,100	130,576	130,018	109,381	108,554	71,306	78,917
울산	811,368	76,460	58,177	97,344	88,980	110,014	105,452	91,268	84,077	49,338	50,258
경기	8,664,116	829,101	758,288	1,065,844	1,020,512	1,134,173	1,074,551	845,958	803,657	529,771	602,261
강원	1,085,284	110,223	80,232	101,726	96,299	124,289	115,241	122,206	118,862	99,446	116,760
충북	1,109,778	113,225	93,826	116,991	108,132	130,469	121,325	117,662	112,376	90,541	105,231
충남	1,511,901	157,553	133,018	172,855	146,115	176,241	151,338	150,145	140,444	131,767	152,425
전북	1,261,737	118,080	99,069	120,787	117,092	141,909	134,866	129,761	130,949	121,807	147,417
전남	1,213,303	91,250	70,722	111,953	102,863	142,583	126,245	131,885	128,415	138,180	169,207
경북	1,903,052	182,543	143,694	190,608	173,974	213,345	197,468	202,746	200,700	180,153	217,821
경남	2,321,269	209,027	160,463	269,980	240,615	291,039	268,493	247,472	237,076	180,054	217,050
제주	384,549	33,122	29,213	42,000	40,035	50,074	46,314	38,489	37,254	31,886	36,16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3) 표본 추출

<표 3-4>에는 연령별, 지역별로 구성된 식품패널이 분포되어있다.

분석시 대상자 수가 적어 4대 권역으로 묶어 분석하여 16개 시도별로 추출된 표본 오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표 3-4> 식품패널 분포

	남자						여자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합계	100	105	109	102	88	504	91	101	107	102	95	496	1,000
서울	13	14	13	12	11	63	13	13	13	13	11	63	126
부산	7	7	8	8	7	37	7	7	8	8	7	37	74
대구	6	6	7	6	5	30	6	6	7	6	6	31	61
인천	6	7	7	7	5	32	6	7	7	7	5	32	64
광주	5	5	5	5	4	24	5	5	5	5	4	24	48
대전	5	5	5	5	4	24	5	5	5	5	4	24	48
울산	4	4	5	4	3	20	3	4	5	4	3	19	39
경기	13	15	15	13	10	66	12	14	15	13	11	65	131
강원	5	5	5	5	5	25	4	4	5	5	5	23	48
충북	5	5	5	5	4	24	4	5	5	5	5	24	48
충남	6	6	6	6	5	29	5	5	6	5	6	27	56
전북	5	5	5	5	5	25	4	5	5	5	5	24	49
전남	4	5	5	5	5	24	4	5	5	5	6	25	49
경북	6	6	7	6	6	31	5	6	6	6	7	30	61
경남	7	7	8	7	6	35	6	7	7	7	7	34	69
제주	3	3	3	3	3	15	2	3	3	3	3	14	29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3-5>에는 표본설계의 항목별 세부내역이 정리되어있다.

<표 3-5> 표본설계 세부내역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전국의 20세이상 국민(통계청 추계인구)을 대상으로 층화계통추출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목표오차 : 95% ± 3% - 표본규모 : 성인 1,000명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2012년 통계청 인구추계치를 모집단으로 하여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하여 등확률로 표본선정 - 층내에서 계통추출 -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 - 세종시는 모집단 미파악으로 제외
표본배정방식	- 지역, 성별, 연령별 모집단 크기에 근거하여 1/38,418의 확률로 각 셀별로 표본 할당
추정식 (평균, 총합, 비율, 분산)	$r : 16\text{개 지역,}$ $s : 1,2(\text{남,여}),$ $a : 20\text{대, ...}60\text{대이상}$ $: \text{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의 가중치}$ <p>여기에서</p>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는 전년 대비, 올해, 내년의 3종으로 구성 - 식품안전체감도는 5개 세부영역으로 구분 (수입식품, 외식, 단체급식, 학교주변 식품, 제도가공식품)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조사의 총 Sample 수는 1,000표본이고, Final Sampling Unit 1단위 (명)에 대한 Sampling Fraction(표본추출확률)은 (단위:명)이

적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 전체 List(Sampling Frame)를 확보하여 일정한 확률을 유지하기 위해 Random하게 복원 추출(With replacement)하는 단순 무작위추출(SRS : Simple Random Sampling)을 할 경우 모집단의 수가 전국민이 되고,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 할 때 불가능함에 따라 이 연구의 최종적인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연령.지역이라 가정하고 층화계통추출(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추출은 조사원에게 주어진 표본할당의 70%를 Birthday Method 방식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30%는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대/과소 표집 계층을 해소하기 위한 유의할당 추출을 하였다.

표본의 연령은 10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2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설계되어있으며, 표본의 거주지에 제주도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1,000명의 패널을 지역, 성, 연령별 각 셀별로 분포시키다 보니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 연령대별 일부 계층군은 표본 수가 적어 발생 오차율이 10%p 이상 발생하는 계층이 있어 향후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 발표시 지역은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등 4대 권역으로 묶어 자료분석 및 결과를 발표하였다.

<표 3-6> 표본설계에 따른 조사대상계층별 오차발생 현황

지역	목표 허용오차	연령	목표 허용오차
경기(최소)	±8.5%p	40대(최소)	±6.7%p
제주(최대)	±18.5%p	60대~(최대)	±7.2%p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제2절 조사계획

1. 조사계획 개요

<표 3-7>에는 사전조사, 상·하반기조사 등 이 연구의 조사계획 개요가 정리되어있다.

사전조사는 200명, 본조사는 패널 1,000명과 전문가 200명을 조사 완료할 목표이며, 조사방법은 패널조사의 경우 최근 통계청이 조사비 절약 등을 이유로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터넷 조사와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 등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방법을 다양하게 채택하여 실시기로 하였다.

사전조사는 이번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시에 기 실시되어 2015년에는 본조사 전에 따로 실시하지 않고 상반기 조사와 함께 실시하여 조사 초기의 200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2015년 조사의 특징은 일반인인 식품패널 조사와 함께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는 것으로 조사대상 전문가는 200명이었다. 그리고 기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조사형태 는 동일하였으나 부가조사 내용을 전환하여 주요 10개 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를 조 사하였다.

<표 3-7> 조사실시 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선정방법	조사방법	조사시기
사전조사	전국, 식품패널	200명	식품패널 중 유작위할당추출	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6월 29일 ~ 7월 2일
상반기 조사	식품패널	1,272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6월 29일 ~ 7월 10일
	전문가	230명	전수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상동
하반기 조사	식품패널	1,200명	전수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11월 19일 ~ 11월 30일
	전문가	230명	전수	상동	상동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2. 설문지 수정·보완

가. 전체 설문지

<표 3-8>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사용되기 위해 수정, 보완된 설문지가 제시되어 있으며, 응답항목 등 세부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있다.

<표 3-8>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구성

평가 분야	평가 영역	평가 항목
기본조사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1. 작년 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변화
		1-1.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진 이유
		1-2.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진 이유
	수입 식품의 안전	2. 수입식품의 안전정도
		2-1.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유통식품의 안전	3.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3-1. 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외식의 안전	4. 외식의 안전정도
		4-1.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체급식의 안전	5-0. 단체급식 경험 여부
		5. 단체급식의 안전정도
		5-1.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6.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정도
		6-1. 학교 주변 판매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7. 2015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8.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9. 내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부가조사	식품안전 관련 정보 이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식품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
		11. 식품안전 영향 요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12.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12-1. 잘 추진되고 있는 이유
	불량식품 근절	13. 불량식품 근절 정책 인지정도
		14.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나. 부가조사 설문지

2015년 조사의 특징은 부가조사의 내용 전환으로 부가조사 내용이 <표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3년과 2014년과는 달리 설계되었다. 즉, 2015년 주요 추진 정책 10개 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 조사가 포함된 것이었다.

<표 3-9>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부가조사 구성

평가 영역	평가 문항
식품안전 관련 정보 이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귀하께서 평소에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복선택)
	11.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12. 다음 정책 중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①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③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④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⑤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⑥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⑦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⑧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⑨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⑩ 나트륨 줄이기 운동 ⑪ 기타
	12-1.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②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③ 식품관련 사건·사고 감소 ④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⑤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⑥ 기타
불량식품 근절	13. 귀하께서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4. 귀하께서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절 사전조사

1. 조사 개요

2014년 사전조사는 2013년 하반기 조사와 동일한 조사대상,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3년 조사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부가조사 항목이 일부 변경되어 상반기 조사에 포함되어 조사초기 200명의 조사결과를 사전조사결과 분석하였는데 설문지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2. 설문지 신뢰도 검증

2013년 0.71에서 <표 3-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4년 0.81로 상승하였다. 2015년 Cronbach's alpha 계수 값은 부가조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전문가 조사를 추가하였으나 2014년보다 조금 높은 0.82로 나타났다.

<표 3-10> 설문지의 Cronbach's alpha 값

항목	Cronbach's α 계수 값	변수 제외 시 Cronbach's α 값			
		Raw variable		Standardized variable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0.82	0.67	0.78	0.67	0.78
수입식품 안전		0.53	0.80	0.53	0.81
유통식품 안전		0.67	0.77	0.67	0.78
외식 안전		0.59	0.79	0.59	0.79
단체급식 안전		0.54	0.80	0.54	0.80
학교주변 판매 식품 안전		0.53	0.80	0.53	0.81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제 4 장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제1절 조사 계획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4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제1절 조사 계획

1. 조사개요

<표 4-1>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실시 개요가 제시되어있다.

<표 4-1> 상반기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5년 6월 29일 ~ 7월 10일
조사대상	- 패널: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식품패널 1,000명 - 전문가: 230명
조사내용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로 총 14개 조사항목
조사방법	- 패널: 인터넷 조사 835명, 전화조사 427명, 대면조사 10명(전화조사로 대체) - 전문가: 인터넷 조사 199명, 전화조사 18명, 대면조사 5명(인터넷조사로 대체)
탈락사유	인터넷 조사에 무응답, 전화조사 거부, 전화연결 안됨
조사 성공자	- 패널: 총 995명 - 전문가: 총162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식품패널 1,272명의 명단을 제공 받아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반기 조사가 2015년 6월 29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12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면조사를 원하는 10명의 패널은 전화조사로 조사방법을 대체하여 조사되었고, 전문가중 대면조사를 원하던 5명은 인터넷조사로 대체하여 조사가 완료되었다.

2. 조사방법

상반기 조사는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 전화조사, 방문조사가 사용되었다.

<표 4-2> 조사 선호 방법

구분	식품패널		전문가	
	대상자수	비율	대상자수	비율
합계	1,272	100.0	222	100.0
인터넷조사	835	65.6	199	89.6
전화조사	427	33.6	18	8.1
대면조사	10	0.8	5	2.3

전화조사는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수행하였으며, 2015년 6월 29일(월)에 전화 조사원 3인에 대한 사전 교육이 실시된 후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인터넷 조사의 경우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설문지를 송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주일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272명의 조사대상자 중 패널선정 기준인 연령, 성, 권역별 조사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조사단위의 조사를 마감하여 과조사되지 않게 하였으며,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조사단위의 경우 추가 반복 접촉을 시도하여 조사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전문가의 경우도 조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반복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패널 995명과 전문가 162명에 대해 상반기 조사가 완료되었다.

3. 조사실시 현황

가. 조사목표

<표 4-3>에는 본조사 목표인 식품패널 1,000명에 대한 성, 지역, 권역별 구성현황

이 제시되어있다. 총 1,000명이 대상이며 성별, 4개 권역별 (수도권,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5개 연령군(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층화되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중부권은 강원, 대전, 충남, 충북을, 호남권은 광주, 제주, 전남, 전북을 포함하고 있다.

〈표 4-3〉 조사대상 식품패널 현황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000	502	81	96	99	100	126	498	79	88	100	98	133
수도권	329	167	26	39	32	31	39	162	29	29	31	31	42
영남권	292	145	24	25	29	30	37	147	21	30	29	28	39
중부권	201	101	16	17	21	21	26	100	15	16	20	21	28
호남권	178	89	15	15	17	18	24	89	14	13	20	18	24

나. 조사 성공

〈표 4-4〉에는 조사에 성공한 995명에 대한 각 지역, 성, 연령별 성공률이 제시되어있다. 총 40개 조사단위중 35개 조사단위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조사 성공률이 가장 낮은 조사단위는 호남권의 20대 여성군(92.9%)이었으나 모든 조사단위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나타냈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 성별로는 남성, 연령군별로는 50대에서 조사 성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4〉 상반기조사 조사 성공률 현황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99.5	99.6	100.0	99.0	100.0	100.0	99.2	99.4	98.7	100.0	99.0	100.0	99.2
수도권	99.7	99.4	100.0	9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남권	99.7	99.3	100.0	100.0	100.0	100.0	9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부권	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0	100.0	100.0	95.0	100.0	100.0
호남권	9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8	92.9	100.0	100.0	100.0	95.8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다. 조사표 신뢰도 검증

부가조사 일부내용이 수정되고, 전문가 조사가 추가된 2015년 조사표의 Cronbach's alpha 값이 <표 4-5, 6>에 제시되어있다. Cronbach's alpha 값은 0.82로 2014년 0.81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조사표의 Cronbach's alpha 값(패널)

항목	Cronbach's α 계수 값	변수제외시 Cronbach's α 값			
		Raw variable		Standardized variable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수입식품 안전	0.82	0.52	0.80	0.52	0.80
유통식품 안전		0.67	0.77	0.67	0.77
외식 안전		0.60	0.78	0.60	0.78
단체급식 안전		0.53	0.80	0.52	0.80
학교주변 판매 식품 안전		0.52	0.80	0.52	0.80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0.65	0.77	0.65	0.77

<표 4-6> 조사표의 Cronbach's alpha 값 (패널, 전문가 전체)

항목	Cronbach's α 계수 값	변수제외시 Cronbach's α 값			
		Raw variable		Standardized variable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Correlation with total	Alpha
수입식품 안전	0.82	0.53	0.80	0.53	0.81
유통식품 안전		0.67	0.77	0.67	0.78
외식 안전		0.59	0.79	0.59	0.79
단체급식 안전		0.54	0.80	0.54	0.80
학교주변 판매 식품 안전		0.53	0.80	0.53	0.81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0.67	0.78	0.67	0.78

제2절 조사 결과

1. 기본분석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7>에는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2013년 구축된 식품패널이 80% 이상 조사에 참여하여 패널의 경제적, 학력수준이 국민 평균수준 보다 높은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표 4-7>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식품패널		전문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합계	995	100.0	162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3	6.3	0	0.0
	100만원대	155	15.6	2	1.2
	200만원대	170	17.1	8	4.9
	300만원대	199	20.0	12	7.4
	400만원대	160	16.1	34	21.0
	500만원 이상	245	24.6	106	65.4
교육수준	중졸 이하	94	9.4	0	0.0
	고졸	358	36.0	0	0.0
	대졸 이상	543	54.6	162	100.0
직업분류	공무원	17	1.7	14	8.6
	자영업	101	10.2	1	0.6
	판매 서비스직	65	6.5	5	3.1
	기능직	41	4.1	0	0.0
	사무기술직	221	22.2	33	20.4
	사무관리직	111	11.2	40	24.7
	전문자유직	33	3.3	69	42.6
	주부	233	23.4	0	0.0
	학생	81	8.1	0	0.0
무직	92	9.2	0	0.0	

주) 소득수준의 경우 무응답 패널 3명 있어, 응답자 수가 패널은 981명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나. 기본 조사

1) 전체 식품안전체감도

<표 4-8>에는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95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는 74.3%로 나타나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66.6 % 보다는 높았지만, 2014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74.4%보다 0.1%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는 89.5%로 패널에 비하여 15% 가량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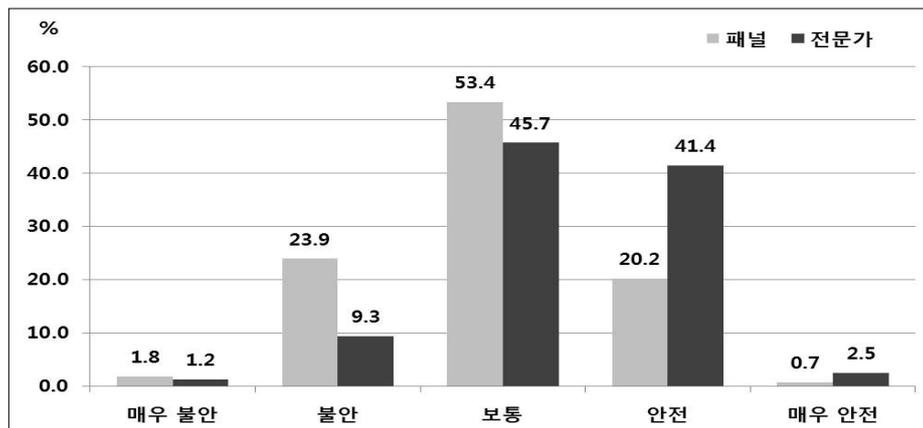
<표 4-8>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74.3	995	1.8	23.9	53.4	20.2	0.7
전문가	89.5	162	1.2	9.3	45.7	41.4	2.5

[그림 4-1]에는 이 결과가 막대 그래프로 비교되어있다.

[그림 4-1]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2)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가) 안전체감도

<표 4-9>에는 2015년 상반기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85.8%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4년 상반기의 90.6%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문가의 92.0%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여 식품안전체감도에 비해 적은 격차를 나타냈다.

<표 4-9>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짐	크게 나아짐
패널	85.8	995	1.3	12.9	49.3	34.4	2.1
전문가	92.0	162	0.6	7.4	46.9	40.7	4.3

나) 나아진 이유

<표 4-10>에는 2015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23.1%와 전문가의 31.5%가 동일하게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식품안전관리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고, 또한 패널은 동일한 비율(23.1%)의 응답자가 ‘수입식품, 국내생산 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10>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63	100.0	73	100.0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84	23.1	23	31.5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84	23.1	8	11.0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74	20.4	15	20.6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59	16.3	17	23.3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56	15.4	8	11.0
기타	6	1.7	2	2.7

다) 감소한 이유

<표 4-11>에는 2015년 상반기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 대비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11>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141	100.0	13	100.0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34	24.1	3	23.1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33	23.4	3	23.1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31	22.0	3	23.1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26	18.4	2	15.4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17	12.1	2	15.4

패널(24.1%)과 전문가(23.1%)가 동일하게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을 식품안전관리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라고 선택하였다. 전문가는 동일한 비율의 응답자가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과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도 저조’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3)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4-12>에는 2016년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예측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자의 92.3%가 동일할 것 또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4년 상반기 94.4% 수준보다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나아짐 이상을 선택한 비율도 2014년 상반기 52.7%에서 크게 감소한 7.7%였다. 이는 백수오 사건 등 대형 식품안전사고 발생의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의 식품안전체감도는 96.3%로 패널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12> 내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크게 떨어질 것	떨어질 것	동일할 것	나아질 것	크게 나아질 것
패널	92.3	995	0.7	7.0	44.5	46.1	1.6
전문가	96.3	162	1.2	2.5	39.5	55.6	1.2

4)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표 4-13>에는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식품안전 현안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로 45.9%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5.2%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34.0%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가 가장 주된 현안으로 응답하였다.

〈표 4-13〉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95	100.0	162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57	45.9	55	34.0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277	27.8	25	15.4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99	9.9	22	13.6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91	9.1	44	27.2
정부 정책 홍보 강화	52	5.2	5	3.1
기타	19	1.9	11	6.8

5)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표 4-14〉에는 수입식품안전, 유통식품안전, 외식안전, 단체급식의 안전, 학교 주변 판매식품안전 등 5개 분야별 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대상 조사에서 5개 분야를 총괄한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가 74.3%인데 이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분야는 77.2%의 응답률을 보인 단체급식의 안전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수입식품 안전 체감도는 51.3%, 학교 주변 판매식품 안전체감도는 45.6%로 작년과 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 식품안전체감도는 89.5%로 나타났는데 단체급식 안전도 동일한 체감도를 보여 가장 안전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체감도가 60.5%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에 대해 특히 정책개발, 적용, 홍보 등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4-14〉 세부분야별 식품안전 체감도

(단위 :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수입식품 안전	51.3	995	5.0	43.7	37.5	13.4	0.4
	유통식품의 안전	69.1	995	2.2	28.6	46.3	22.0	0.8
	외식 안전	68.7	995	3.5	27.7	51.6	16.7	0.5
	단체급식의 안전	77.2	474	2.3	20.5	41.8	32.5	3.0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45.6	995	6.3	48.0	38.0	7.2	0.4
	전반적인 식품안전	74.3	995	1.8	23.9	53.4	20.2	0.7
전문가	수입식품 안전	65.4	162	1.2	33.3	44.4	19.1	1.9
	유통식품의 안전	85.2	162	0.0	14.8	38.9	42.6	3.7
	외식 안전	74.7	162	3.7	21.6	50.6	23.5	0.6
	단체급식의 안전	89.5	114	0.9	9.7	38.6	47.4	3.5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60.5	162	7.4	32.1	46.9	13.0	0.6
	전반적인 식품안전	89.5	162	1.2	9.3	45.7	41.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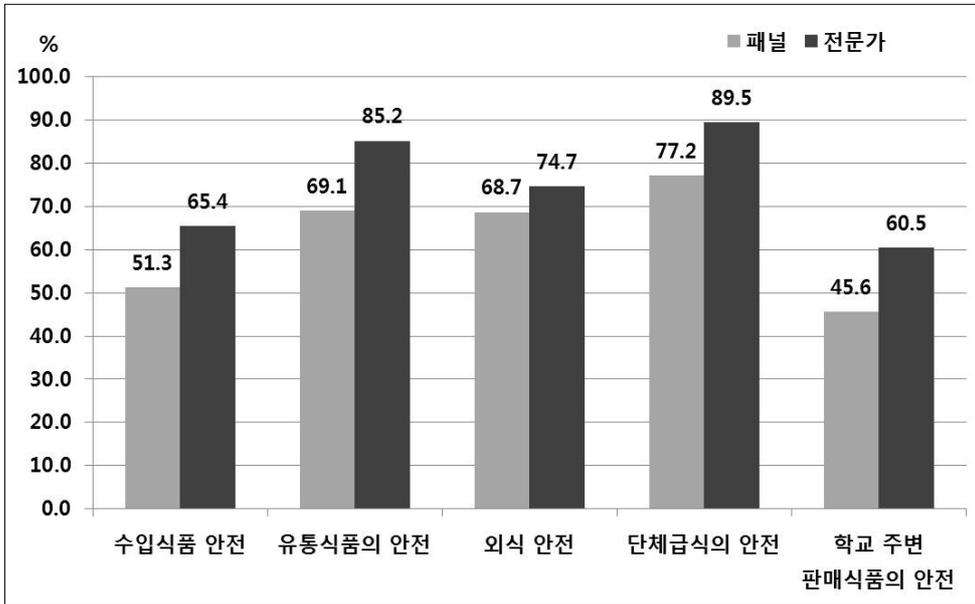
[그림 4-2]에는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패널과 전문가의 체감도를 막대 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가는 패널보다 모든 세부영역에서 식품안전체감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패널과 전문가 모두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인 분야는 단체급식 안전이었고,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이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패널과 전문가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으로 16.1% 차이를 보였으며 외식의 안전은 6.0%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게 조사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그림 4-2]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비교



다. 부가 조사

2015년 상반기에 실시된 부가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보 구득원

<표 4-15>에는 평소에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에 대해 중복응답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방송매체가 주요 구득원이라고 응답한 패널 비율은 3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5%의 인터넷 지식정보로 나타났다. SNS는 6.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활용하는 매체는 정부(발표)로 전체의 30.1%가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24.3%가 인터넷 지식정보를 선택하였다. 패널과 마찬가지로 SNS가 2.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15〉 정보 구득 매체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1,901	100.0	272	100.0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692	36.4	59	21.7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579	30.5	66	24.3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280	14.7	54	19.9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191	10.0	82	30.1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137	7.2	8	2.9
기타	22	1.2	3	1.1

2) 영향요인

〈표 4-16〉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16〉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95	100.0	162	100.0
언론 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547	55.0	86	53.1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90	19.1	14	8.6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142	14.3	54	33.3
주변 사람의 의견	77	7.7	5	3.1
정부의 보도 자료	36	3.6	3	1.9
기타	3	0.3	0	0.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언론 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패널은 55.0%로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본인 및 가족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3.4%, 11.0%로 나타났다.

전문가도 53.1%가 언론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3.3%가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을 선택하여 일반인이 패널과 전문가간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방송의 영향력은 모두에게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품안전정책의 추진 체감도

<표 4-17>에는 2015년 부가조사에서 추가된 항목으로 10종의 현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추진 체감도를 중복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17>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2,817	100.0	413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452	16.0	100	24.2
나트륨 줄이기 운동	352	12.5	43	10.4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344	12.2	51	12.3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329	11.7	47	11.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271	9.6	30	7.3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251	8.9	36	8.7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211	7.5	25	6.1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98	7.0	23	5.6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191	6.8	30	7.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169	6.0	27	6.5
기타	49	1.7	1	0.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패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 ‘나트륨 줄이기 운동’, ‘학교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순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전문가는 24.2%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를 선택하였고, 그 외 ‘학교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나트륨 줄이기 운동’, 순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패널과 마찬가지로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 가장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4)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4-18>에는 <표 4-17>에서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18>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52	100.0	162	100.0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324	34.0	76	46.9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290	30.5	27	16.7
식품관련 사건·사고 감소	180	18.9	36	22.2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인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103	10.8	9	5.6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42	4.4	8	4.9
기타	13	1.4	6	3.7

패널의 34.0%가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정책추진 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을, 30.5%가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되기 때문'을 선택하였다.

전문가는 46.9%가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고, 22.2%가 '식품관련 사건.사고가 감소 했음'을 선택하였다.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를 선택한 비율은 패널과 전문가에서 각각 4.4%, 4.9%로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여전히 업체의 법 위반은 발생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불량식품 근절 노력

<표 4-19>에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75.2%와 전문가의 90.1%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안전체감도가 패널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9>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보통이상	응답자 수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75.2	995	3.8	21.0	46.0	27.1	2.0
전문가	90.1	162	1.2	8.6	29.6	45.1	15.4

6) 불량식품 유통 이유

<표 4-20>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45.2%와 전문가의 29.6%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의 35.2%와 패널의 29.6%가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이유로 지적하였다.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강화, 식품안전규제의 강화, 부당이의 환수제의 확대 등의 정부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조사결과라 하겠다.

〈표 4-20〉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95	100.0	162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50	45.2	48	29.6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92	19.3	57	35.2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67	16.8	34	21.0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98	9.8	14	8.6
정부의 단속 소홀	84	8.4	6	3.7
기타	4	0.4	3	1.9

2. 세부 분석

가. 기본 조사

1) 식품안전체감도

〈표 4-21〉에는 2015년 상반기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를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50대, 중부권 거주자, 소득 500만원대, 기능직 종사자의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군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표 4-21〉 패널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74.3	-	1.8	23.9	53.4	20.2	0.7
성별	남	78.6	0.0017	0.8	20.6	51.0	26.8	0.8
	여	69.9		2.8	27.3	55.8	13.5	0.6
연령군별	20대	69.8	0.0136	0.6	29.6	52.8	16.4	0.6
	30대	67.8		1.1	31.2	51.4	16.4	0.0
	40대	75.8		0.5	23.7	52.5	22.2	1.0
	50대	79.3		2.5	18.2	56.1	22.7	0.5
	60대 이상	76.7		3.5	19.8	53.7	21.8	1.2
권역별	수도권	73.5	0.4462	2.4	24.1	52.4	20.4	0.6
	영남권	73.9		1.0	25.1	54.0	19.2	0.7
	중부권	78.5		1.5	20.0	55.5	22.5	0.5
	호남권	71.6		2.3	26.1	51.7	18.8	1.1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3.0	0.1981	0.0	27.0	55.6	15.9	1.6
	100만원대	71.6		2.6	25.8	57.4	13.6	0.7
	200만원대	75.9		3.5	20.6	52.9	22.9	0.0
	300만원대	69.4		2.0	28.6	52.3	17.1	0.0
	400만원대	76.9		0.6	22.5	57.5	18.1	1.3
	500만원 이상	77.6		1.2	21.2	48.6	27.8	1.2
학력별	중졸 이하	69.2	0.2962	3.2	27.7	57.5	10.6	1.1
	고졸	74.3		2.5	23.2	52.0	22.1	0.3
	대졸 이상	75.1		1.1	23.8	53.6	20.6	0.9
직업별	공무원	76.5	0.5456	0.0	23.5	41.2	29.4	5.9
	자영업	77.2		3.0	19.8	54.5	21.8	1.0
	판매 서비스직	61.5		3.1	35.4	46.2	15.4	0.0
	기능직	82.9		2.4	14.6	61.0	22.0	0.0
	사무기술직	74.7		1.8	23.5	52.0	22.6	0.0
	사무관리직	75.7		1.8	22.5	47.8	25.2	2.7
	전문자유직	81.8		0.0	18.2	66.7	15.2	0.0
	주부	76.0		1.7	22.3	61.4	14.2	0.4
	학생	72.8		0.0	27.2	51.9	21.0	0.0
	무직	67.4		2.2	30.4	42.4	23.9	1.1

주)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안항이 3명 있어 전체 응답자 수가 992명임

<표 4-22>에는 2015년 상반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하여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40대 이상, 영남권 거주자, 소득 500만원 이상, 자영업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군별, 소득수준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2> 전문가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89.5	-	1.2	9.3	45.7	41.4	2.5
성별	남	95.9	0.001	0.0	4.1	41.8	50.0	4.1
	여	79.7		3.1	17.2	51.6	28.1	0.0
연령군별	20대	57.1	0.0102	14.3	28.6	28.6	28.6	0.0
	30대	81.1		0.0	18.9	43.2	37.8	0.0
	40대	93.6		2.1	4.3	44.7	40.4	8.5
	50대	94.3		0.0	5.7	49.1	45.3	0.0
	60대 이상	94.4		0.0	5.6	50.0	44.4	0.0
권역별	수도권	89.1	0.4027	0.9	10.0	43.6	42.7	2.7
	영남권	100.0		0.0	0.0	38.9	61.1	0.0
	중부권	83.3		5.6	11.1	44.4	38.9	0.0
	호남권	87.5		0.0	12.5	68.8	12.5	6.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0.0003	-	-	-	-	-
	100만원대	0.0		50.0	50.0	0.0	0.0	0.0
	200만원대	75.0		0.0	25.0	37.5	37.5	0.0
	300만원대	83.3		0.0	16.7	50.0	33.3	0.0
	400만원대	88.2		0.0	11.8	41.2	47.1	0.0
500만원 이상	93.4	0.9	5.7	48.1	41.5	3.8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
	고졸	-		-	-	-	-	-
	대졸 이상	89.5		1.2	9.3	45.7	41.4	2.5
직업별	공무원	92.9	0.2871	0.0	7.1	50.0	42.9	0.0
	자영업	100.0		0.0	0.0	0.0	100.0	0.0
	판매 서비스직	100.0		0.0	0.0	80.0	20.0	0.0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78.8		3.0	18.2	39.4	36.4	3.0
	사무관리직	95.0		0.0	5.0	32.5	57.5	5.0
	전문자유직	89.9		1.5	8.7	53.6	34.8	1.5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주)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안함이 3명 있어 전체 응답자 수가 981명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표 4-23>에는 작년 대비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23>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2015년 상반기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체감도	p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짐	크게 나아짐	
합계	85.8	-	1.8	23.9	53.4	20.2	0.7	
성별	남	86.6	0.4835	1.6	11.8	46.4	38.4	1.8
	여	85.0		1.0	13.9	52.3	30.3	2.4
연령군별	20대	83.7	0.0477	1.3	15.1	62.3	20.8	0.6
	30대	80.9		2.7	16.4	59.0	21.9	0.0
	40대	86.9		0.0	13.1	45.0	39.4	2.5
	50대	88.9		0.5	10.6	43.9	43.9	1.0
	60대 이상	87.6		2.0	10.5	42.0	40.5	5.1
지역별	수도권	83.5	0.2106	1.5	14.9	48.5	33.5	1.5
	영남권	86.3		0.7	13.1	52.6	32.3	1.4
	중부권	90.0		1.5	8.5	49.5	37.0	3.5
	호남권	84.7		1.7	13.6	45.5	36.4	2.8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7.8	0.2224	3.2	19.1	52.4	23.8	1.6
	100만원대	87.1		1.9	11.0	47.7	36.1	3.2
	200만원대	87.1		1.8	11.2	49.4	35.3	2.4
	300만원대	81.9		1.5	16.6	48.2	31.7	2.0
	400만원대	88.8		0.0	11.3	50.6	36.3	1.9
학력별	500만원 이상	87.4	0.3621	0.8	11.8	49.8	35.9	1.6
	중졸 이하	80.9		3.2	16.0	51.1	24.5	5.3
	고졸	86.6		1.4	12.0	47.8	36.6	2.2
직업별	대졸 이상	86.2	0.5500	0.9	12.9	50.1	34.6	1.5
	공무원	88.2		0.0	11.8	29.4	58.8	0.0
	자영업	90.1		1.0	8.9	46.5	41.6	2.0
	판매 서비스직	76.9		0.0	23.1	43.1	32.3	1.5
	기능직	85.4		2.4	12.2	31.7	53.7	0.0
	사무기술직	85.1		2.3	12.7	53.9	30.3	0.9
	사무관리직	85.6		0.0	14.4	42.3	41.4	1.8
	전문자유직	81.8		0.0	18.2	57.6	21.2	3.0
	주부	88.0		1.3	10.7	51.9	33.1	3.0
	학생	87.7		2.5	9.9	60.5	25.9	1.2
무직	83.7	1.1	15.2	46.7	31.5	5.4		

주)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안함인 3명 있어 전체 응답자 수가 992명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3)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4-24>에는 올해 대비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4-24>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체감도	p	크게 떨어질 것	떨어질 것	동일할 것	나아질 것	크게 나아질 것
합계	92.3	-	0.7	7.0	44.5	46.1	1.6
성별	남	0.3068	0.4	8.2	40.0	49.0	2.4
	여		1.0	5.9	49.1	43.2	0.8
연령군별	20대	0.0510	1.3	8.2	68.6	20.8	1.3
	30대		0.6	13.1	52.5	33.9	0.0
	40대		0.5	4.6	48.0	45.5	1.5
	50대		0.0	3.0	34.3	61.1	1.5
	60대 이상		1.2	7.0	29.2	59.5	3.1
권역별	수도권	0.0081	0.9	10.4	43.0	44.8	0.9
	영남권		0.0	4.8	45.4	48.5	1.4
	충부권		0.0	5.0	46.5	45.5	3.0
	호남권		2.3	6.8	43.8	45.5	1.7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0.3491	4.8	6.4	39.7	49.2	0.0
	100만원대		0.7	9.7	43.2	45.8	0.7
	200만원대		0.0	5.9	47.7	45.3	1.2
	300만원대		1.5	5.5	50.3	41.7	1.0
	400만원대		0.0	6.9	44.4	48.1	0.6
500만원 이상	0.0	7.8	40.0	48.2	4.1		
학력별	중졸 이하	0.8934	1.1	9.6	34.0	52.1	3.2
	고졸		0.6	5.9	45.5	46.9	1.1
	대졸 이상		0.7	7.4	45.7	44.6	1.7
직업별	공무원	0.5921	0.0	0.0	47.1	52.9	0.0
	자영업		1.0	5.0	27.7	63.4	3.0
	판매 서비스직		0.0	9.2	43.1	47.7	0.0
	기능직		0.0	4.9	41.5	51.2	2.4
	사무기술직		0.5	10.0	49.8	37.1	2.7
	사무관리직		0.0	6.3	37.8	54.1	1.8
	전문자유직		0.0	9.1	42.4	48.5	0.0
	주부		1.3	4.7	43.8	49.8	0.4
	학생		1.2	9.9	67.9	18.5	2.5
	무직		1.1	6.5	42.4	48.9	1.1

주)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안함 3명 있어 전체 응답자 수가 992명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4) 수입식품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25>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널의 51.3%가 안전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2014년 52.1%보다 미미하게 감소한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의 65.4%가 안전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패널에 비해 높은 안전 체감도를 보였다.

〈표 4-25〉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51.3	100.0	5.0	43.7	37.5	13.4	0.4
전문가	65.4	100.0	1.2	33.3	44.4	19.1	1.9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26>에는 수입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변수별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20대, 중부권 거주, 100만원 미만, 고졸, 학생층의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성별에서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20대, 40대, 60대 이상은 5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이 45.5%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가장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반대로 학생은 63.0%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가장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직군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26〉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51.3	-	5.0	43.7	37.5	13.4	0.4
성별	남	57.0	0.0003	5.0	38.0	39.8	17.0	0.2
	여	45.5		5.1	49.5	35.2	9.7	0.6
연령군별	20대	59.1	0.7492	4.4	36.5	38.4	19.5	1.3
	30대	45.9		6.6	47.5	36.1	9.8	0.0
	40대	51.0		6.1	42.9	37.9	13.1	0.0
	50대	45.0		6.1	49.0	29.3	15.7	0.0
	60대 이상	55.3		2.7	42.0	44.0	10.5	0.8
권역별	수도권	51.5	0.5190	5.8	42.7	35.4	16.2	0.0
	영남권	48.8		4.5	46.7	37.1	11.3	0.3
	중부권	55.5		3.5	41.0	41.5	13.5	0.5
	호남권	50.0		6.3	43.8	37.5	11.4	1.1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8.7	0.3674	1.6	39.7	44.4	12.7	1.6
	100만원대	51.0		3.2	45.8	43.2	7.1	0.7
	200만원대	52.9		6.5	40.6	38.8	13.5	0.6
	300만원대	46.2		6.5	47.2	34.2	12.1	0.0
	400만원대	48.1		5.0	46.9	37.5	10.6	0.0
	500만원 이상	54.7		4.9	40.4	33.9	20.4	0.4
학력별	중졸 이하	52.1	0.3306	4.3	43.6	41.5	9.6	1.1
	고졸	53.6		5.0	41.3	38.0	15.1	0.6
	대졸 이상	49.5		5.2	45.3	36.5	12.9	0.2
직업별	공무원	52.9	0.3974	0.0	47.1	23.5	29.4	0.0
	자영업	53.5		4.0	42.6	38.6	14.9	0.0
	판매 서비스직	47.7		6.2	46.2	36.9	10.8	0.0
	기능직	51.2		7.3	41.5	39.0	12.2	0.0
	사무기술직	46.2		5.9	48.0	32.1	14.0	0.0
	사무관리직	54.1		6.3	39.6	35.1	18.9	0.0
	전문자유직	45.5		6.1	48.5	39.4	6.1	0.0
	주부	49.4		4.3	46.4	40.3	8.2	0.9
	학생	63.0		3.7	33.3	34.6	25.9	2.5
	무직	56.5		4.4	39.1	48.9	7.6	0.0

주)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안함인 3명 있어 전체 응답자 수가 992명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4-27>에는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이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4.4%, 위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4.3%로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입업체의 낮은 안전 인식,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7> 수입식품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485	100.0	56	100.0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167	34.4	15	26.8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118	24.3	21	37.5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79	16.3	13	23.2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78	16.1	3	5.4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39	8.0	2	3.6
기타	4	0.8	2	3.6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28>에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령군별로 보면 40대와 50대의 의견이 유사하여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역시 주된 이유로 선택한 반면에 20, 30, 40대는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40, 50대는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을 선택한 비율이 많았다. 고소득, 고학력으로 갈수록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보다 정부의 검사 및 관리미흡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28〉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16.3	34.6	8.0	16.0	24.3	0.8	-	
성별	남	19.1	36.7	5.1	15.4	23.7	0.0	0.0807
	여	14.0	32.8	10.3	16.6	24.7	1.5	
연령군별	20대	9.2	52.3	6.2	16.9	12.3	3.1	0.0103
	30대	11.1	43.4	10.1	17.2	18.2	0.0	
	40대	19.6	30.9	4.1	13.4	30.9	1.0	
	50대	17.4	28.4	8.3	14.7	31.2	0.0	
권역별	60대 이상	20.7	25.9	10.3	18.1	24.1	0.9	0.0419
	수도권	17.0	35.9	4.4	16.4	25.8	0.6	
	영남권	14.7	32.0	4.7	18.7	28.0	2.0	
	중부권	13.5	38.2	15.7	10.1	22.5	0.0	
소득 수준별*	호남권	20.5	33.0	12.5	17.1	17.1	0.0	0.2439
	100만원 미만	11.5	26.9	7.7	42.3	11.5	0.0	
	100만원대	17.1	31.6	11.8	15.8	23.7	0.0	
	200만원대	16.1	33.3	9.9	12.4	25.9	2.5	
	300만원대	21.5	29.0	6.5	15.0	27.1	0.9	
학력별	400만원대	16.9	45.8	7.2	8.4	21.7	0.0	0.0176
	500만원 이상	11.7	36.0	6.3	19.8	25.2	0.9	
	중졸 이하	20.0	24.4	15.6	24.4	15.6	0.0	
직업별	고졸	14.5	28.9	10.8	19.9	24.7	1.2	0.0751
	대졸 이상	16.7	39.6	5.1	12.4	25.5	0.7	
	공무원	12.5	25.0	12.5	25.0	25.0	0.0	
	자영업	21.3	46.8	8.5	8.5	14.9	0.0	
	판매 서비스직	8.8	44.1	11.8	2.9	32.4	0.0	
	기능직	40.0	20.0	10.0	15.0	15.0	0.0	
	사무기술직	10.9	37.8	6.7	19.3	24.4	0.8	
	사무관리직	23.5	29.4	5.9	15.7	25.5	0.0	
	전문자유직	11.1	44.4	0.0	16.7	27.8	0.0	
주부	16.0	26.1	11.8	19.3	26.1	0.8		
학생	10.0	50.0	6.7	13.3	13.3	6.7		
무직	20.0	27.5	2.5	17.5	32.5	0.0		

- 이유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이유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이유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29>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95명의 응답한 패널 중 69.2%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식품안전체감도인 74.3%보다 낮게 조사되었고, 또한 2014년 상반기 77.5%보다도 8.4%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상반기에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원료 허위 사건의 영향으로 보여졌다.

전문가의 85.2%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패널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고,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 89.5%에 비해서는 4.3%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4-29〉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69.1	100.0	2.2	28.6	46.3	22.0	0.8
전문가	85.2	100.0	0.0	14.8	38.9	42.6	3.7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30>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40대, 중부권 거주, 100만원 미만, 고졸, 공무원의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이 76.0%로 가장 높고, 호남권이 63.6%로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자영업에서 80%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에서 71.0%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성별 및 권역별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3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69.1	-	2.2	28.6	46.3	22.0	0.8
성별	남	76.0	<.0001	1.8	22.2	46.6	28.2	1.2
	여	62.2		2.6	35.2	46.1	15.8	0.4
연령군별	20대	67.9	0.1204	1.9	30.2	48.4	18.9	0.6
	30대	61.8		5.5	32.8	44.8	16.9	0.0
	40대	73.7		0.5	25.8	45.5	27.3	1.0
	50대	68.2		1.0	30.8	43.9	23.7	0.5
	60대 이상	72.4		2.3	25.3	48.6	22.2	1.6
권역별	수도권	66.8	0.0458	3.1	30.2	45.1	21.3	0.3
	영남권	70.5		1.4	28.2	50.5	19.2	0.7
	중부권	76.0		1.5	22.5	47.5	27.5	1.0
	호남권	63.6		2.8	33.5	40.3	21.6	1.7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3.0	0.7992	1.6	25.4	50.8	20.6	1.6
	100만원대	71.0		3.2	25.8	51.6	18.7	0.7
	200만원대	70.6		1.8	27.7	47.1	22.9	0.6
	300만원대	62.8		4.0	33.2	42.2	20.1	0.5
	400만원대	68.1		0.6	31.3	44.4	23.8	0.0
	500만원 이상	71.4		1.6	26.9	45.3	24.5	1.6
학력별	중졸 이하	67.0	0.7981	1.1	31.9	51.1	13.8	2.1
	고졸	71.0		2.5	26.5	47.2	23.2	0.6
	대졸 이상	68.3		2.2	29.5	44.9	22.7	0.7
직업별	공무원	88.2	0.1212	0.0	11.8	47.1	35.3	5.9
	자영업	81.2		1.0	17.8	49.5	29.7	2.0
	판매 서비스직	64.6		1.5	33.9	46.2	18.5	0.0
	기능직	68.3		7.3	24.4	48.8	17.1	2.4
	사무기술직	70.1		2.7	27.2	49.3	20.4	0.5
	사무관리직	67.6		2.7	29.7	36.9	28.8	1.8
	전문자유직	66.7		0.0	33.3	51.5	15.2	0.0
	주부	64.4		2.2	33.5	45.9	18.0	0.4
	학생	65.4		1.2	33.3	44.4	21.0	0.0
	무직	71.7		2.2	26.1	46.7	25.0	0.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4-31>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정부의 관리 미흡이 31.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제조·유통업체의 식품 보관 문제가 20%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31>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07	100.0	24	100.0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98	31.9	4	16.7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87	28.3	9	37.5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65	21.2	5	20.8
저가의 원재료 사용	43	14.0	4	16.7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10	3.3	1	4.2
기타	4	1.3	1	4.2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32>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공무원의 경우 제조·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정부의 단속, 관리 미흡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직업군은 판매서비스직과 학생이었다.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지적한 직업군은 전문자유직이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이 적절하지 않음과 저가의 원재료 사용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모든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2〉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3.3	28.3	32.1	21.1	14.0	1.3	-	
성별	남	3.3	34.2	35.8	15.8	10.0	0.8	0.1354
	여	3.2	24.5	29.8	24.5	16.5	1.6	
연령군별	20대	0.0	31.4	41.2	13.7	13.7	0.0	0.5988
	30대	5.7	25.7	35.7	15.7	15.7	1.4	
	40대	1.9	36.5	21.2	30.8	7.7	1.9	
	50대	3.2	23.8	28.6	27.0	15.9	1.6	
	60대 이상	4.2	26.4	33.3	19.4	15.3	1.4	
권역별	수도권	0.9	25.7	40.4	20.2	11.9	0.9	0.2327
	영남권	3.5	29.9	28.7	25.3	10.3	2.3	
	중부권	4.2	31.3	16.7	25.0	22.9	0.0	
	호남권	6.3	28.1	34.4	14.1	15.6	1.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9	29.4	23.5	29.4	11.8	0.0	0.9221
	100만원대	4.4	26.7	33.3	17.8	17.8	0.0	
	200만원대	2.0	23.5	33.3	25.5	11.8	3.9	
	300만원대	5.4	31.1	33.8	18.9	9.5	1.4	
	400만원대	0.0	29.4	25.5	21.6	21.6	2.0	
학력별	500만원 이상	2.9	28.6	35.7	20.0	12.9	0.0	0.6996
	중졸 이하	9.7	19.4	32.3	19.4	19.4	0.0	
	고졸	1.9	28.9	33.7	21.2	12.5	1.9	
직업별	대졸 이상	2.9	29.5	31.2	21.4	13.9	1.2	0.2014
	공무원	0.0	0.0	0.0	100.0	0.0	0.0	
	자영업	0.0	36.8	26.3	26.3	10.5	0.0	
	판매 서비스직	8.7	8.7	39.1	26.1	13.0	4.4	
	기능직	0.0	30.8	23.1	15.4	30.8	0.0	
	사무기술직	0.0	34.9	37.9	15.2	12.1	0.0	
	사무관리직	2.8	33.3	33.3	16.7	13.9	0.0	
	전문자유직	0.0	54.6	27.3	18.2	0.0	0.0	
	주부	6.0	19.1	27.4	28.6	15.5	3.6	
	학생	0.0	28.6	32.1	14.3	25.0	0.0	
무직	7.7	34.6	38.5	15.4	3.9	0.0		

이유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이유 2.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이유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이유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이유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6) 외식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33>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널의 69.8%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안전체감도보다는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전문가는 74.7%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패널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지만, 역시 전반적인 안전체감도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4-33>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68.7	100.0	3.5	27.7	51.6	16.7	0.5
전문가	74.7	100.0	3.7	21.6	50.6	23.5	0.6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34>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40대, 호남권 거주,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공무원 및 자영업의 특성을 갖는 조사대상자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자영업, 사무기술직, 사무관리직의 경우 70% 이상의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62.2%로 타 권역에 비해 10% 가량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34〉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68.7	-	3.5	27.7	51.6	16.7	0.5	
성별	남	74.4	0.0001	2.6	23.0	52.4	21.2	0.8
	여	63.0		4.4	32.5	50.7	12.1	0.2
연령군별	20대	62.9	0.1487	5.0	32.1	46.5	15.7	0.6
	30대	65.0		3.8	31.2	50.8	14.2	0.0
	40대	75.3		1.0	23.7	54.6	19.7	1.0
	50대	69.7		4.0	26.3	53.5	16.2	0.0
	60대 이상	69.3		3.9	26.9	51.4	17.1	0.8
권역별	수도권	62.2	0.0059	4.9	32.9	43.9	17.7	0.6
	영남권	68.7		3.1	28.2	52.9	15.8	0.0
	중부권	73.5		2.5	24.0	56.0	17.0	0.5
	호남권	75.6		2.8	21.6	58.5	15.9	1.1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4.6	0.6997	3.2	22.2	54.0	19.1	1.6
	100만원대	67.7		4.5	27.7	54.8	12.3	0.7
	200만원대	69.4		2.9	27.7	52.9	15.9	0.6
	300만원대	66.8		4.5	28.6	54.3	12.6	0.0
	400만원대	69.4		1.9	28.8	51.9	16.9	0.6
	500만원 이상	68.6		3.7	27.8	45.3	22.9	0.4
학력별	중졸 이하	73.4	0.7296	3.2	23.4	60.6	10.6	2.1
	고졸	65.4		3.6	31.0	47.5	17.3	0.6
	대졸 이상	70.2		3.5	26.3	52.7	17.3	0.2
직업별	공무원	82.4	0.0401	0.0	17.7	58.8	23.5	0.0
	자영업	80.2		1.0	18.8	64.4	14.9	1.0
	판매 서비스직	64.6		6.2	29.2	50.8	13.9	0.0
	기능직	68.3		2.4	29.3	53.7	12.2	2.4
	사무기술직	72.4		1.8	25.8	57.0	14.9	0.5
	사무관리직	72.1		4.5	23.4	47.8	24.3	0.0
	전문자유직	60.6		6.1	33.3	45.5	15.2	0.0
	주부	62.2		3.4	34.3	48.9	12.9	0.4
	학생	61.7		8.6	29.6	38.3	22.2	1.2
	무직	69.6		3.3	27.2	47.8	21.7	0.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4-35>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조리되는 것을 응답 패널의 39.6%가 선택하여 가장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가 식재료의 사용 선호가 28.3%,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이 14.8%,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이 11.3%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은 2.3%로 나타났다.

<표 4-35>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11	100.0	41	100.0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123	39.6	19	46.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88	28.3	13	31.7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46	14.8	4	9.8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35	11.3	2	4.9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12	3.9	3	7.3
기타	7	2.3	0	0.0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36>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자영업, 기능직, 사무기술직, 사무관리직, 학생, 무직에서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았고, 반대로 판매서비스직과 주부는 해당 이유보다는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고졸 이상에서는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 부족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조리 또는 저가 식재료 사용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50%가 넘었다. 중졸 이하에서는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기타 의견을 선택한 비율이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36〉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39.4	14.7	28.2	11.2	4.2	2.2	-
성별	남	43.8	17.2	25.8	7.0	5.5	0.8	0.1214
	여	36.4	13.0	29.9	14.1	3.3	3.3	
연령군별	20대	55.9	15.3	17.0	6.8	5.1	0.0	0.0782
	30대	35.9	17.2	29.7	15.6	1.6	0.0	
	40대	26.5	10.2	42.9	16.3	2.0	2.0	
	50대	40.0	13.3	30.0	8.3	6.7	1.7	
	60대 이상	37.5	16.3	25.0	10.0	5.0	6.3	
권역별	수도권	40.8	14.4	28.8	10.4	4.8	0.8	0.9029
	영남권	35.2	18.7	28.6	11.0	2.2	4.4	
	충부권	45.3	13.2	24.5	11.3	3.8	1.9	
	호남권	37.2	9.3	30.2	14.0	7.0	2.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37.5	25.0	25.0	6.3	6.3	0.0	0.1264
	100만원대	46.0	8.0	32.0	4.0	6.0	4.0	
	200만원대	32.7	13.5	34.6	13.5	1.9	3.9	
	300만원대	33.3	6.1	39.4	18.2	1.5	1.5	
	400만원대	44.9	20.4	16.3	12.2	2.0	4.1	
학력별	500만원 이상	42.3	21.8	19.2	9.0	7.7	0.0	0.0070
	중졸 이하	24.0	16.0	20.0	20.0	8.0	12.0	
	고졸	46.4	12.8	24.0	9.6	4.0	3.2	
직업별	대졸 이상	36.4	16.1	32.7	11.1	3.7	0.0	0.6277
	공무원	66.7	0.0	33.3	0.0	0.0	0.0	
	자영업	40.0	15.0	15.0	15.0	5.0	10.0	
	판매 서비스직	26.1	26.1	34.8	8.7	4.4	0.0	
	기능직	53.9	7.7	23.1	15.4	0.0	0.0	
	사무기술직	39.3	11.5	31.2	11.5	4.9	1.6	
	사무관리직	38.7	12.9	29.0	12.9	3.2	3.2	
	전문자유직	23.1	30.8	23.1	23.1	0.0	0.0	
	주부	29.2	13.5	36.0	13.5	4.5	3.4	
	학생	58.1	12.9	16.1	6.5	6.5	0.0	
무직	60.7	17.9	17.9	0.0	3.6	0.0		

이유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이유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이유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이유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이유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7) 단체급식의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37>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95명중 단체급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474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7.2%가 보통 이상 응답하여 전반적인 체감도보다 약간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전문가는 166명 중 단체급식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5%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표 4-37>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77.2	100.0	2.3	20.5	41.8	32.5	3.0
전문가	89.5	100.0	0.9	9.7	38.6	47.4	3.5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38>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분야별 안전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특성별로 보면 남자, 50대, 호남권 거주자, 400만원대. 중졸 이하, 주부가 상대적으로 타 계층에 비해 안전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령군별, 권역별을 제외하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개 세부영역 중 단체급식에서만 남녀의 체감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38〉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77.2	-	2.3	20.5	41.8	32.5	3.0	
성별	남	75.0	0.1381	2.7	22.3	39.9	32.4	2.7
	여	80.9		1.7	17.4	44.9	32.6	3.4
연령군별	20대	70.2	0.0007	4.3	25.5	44.7	24.5	1.1
	30대	67.7		2.1	30.2	45.8	21.9	0.0
	40대	78.7		2.8	18.5	38.0	36.1	4.6
	50대	85.6		1.1	13.3	41.1	38.9	5.6
	60대 이상	84.9		1.2	14.0	39.5	41.9	3.5
권역별	수도권	68.3	0.0028	3.5	28.3	36.6	29.0	2.8
	영남권	75.5		2.1	22.4	44.8	29.4	1.4
	충부권	85.3		1.8	12.8	43.1	36.7	5.5
	호남권	85.7		1.3	13.0	44.2	39.0	2.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8.3	0.4762	0.0	21.7	56.5	13.0	8.7
	100만원대	74.1		3.7	22.2	42.6	31.5	0.0
	200만원대	76.0		2.7	21.3	33.3	40.0	2.7
	300만원대	75.0		3.4	21.6	44.3	25.0	5.7
	400만원대	79.6		2.2	18.3	46.2	31.2	2.2
	500만원 이상	78.7		1.4	19.9	39.0	37.6	2.1
학력별	중졸 이하	86.7	0.7897	0.0	13.3	66.7	20.0	0.0
	고졸	76.2		3.4	20.4	40.1	31.3	4.8
	대졸 이상	77.2		1.9	20.8	41.4	33.7	2.2
직업별	공무원	72.7	0.6026	0.0	27.3	27.3	36.4	9.1
	자영업	74.5		2.1	23.4	42.6	29.8	2.1
	판매 서비스직	76.9		3.9	19.2	38.5	34.6	3.9
	기능직	80.0		0.0	20.0	40.0	36.0	4.0
	사무기술직	77.3		2.1	20.6	41.8	31.9	3.6
	사무관리직	82.0		0.0	18.0	37.7	37.7	6.6
	전문자유직	79.0		0.0	21.1	52.6	26.3	0.0
	주부	85.5		0.0	14.6	43.6	40.0	1.8
	학생	65.2		6.5	28.3	41.3	23.9	0.0
	무직	74.4		7.0	18.6	46.5	27.9	0.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4-39>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불안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보통 미만으로 응답한 총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급식관리자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대상자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23.1%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언론의 불안감 보도 및 교육/홍보부족을 선택한 대상자는 각각 5.6%와 3.7%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4-39>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108	100.0	12	100.0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38	35.2	7	58.3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25	23.1	4	33.3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22	20.4	1	8.3
정부의 관리 미흡	12	11.1	0	0.0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6	5.6	0	0.0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4	3.7	0	0.0
기타	1	0.9	0	0.0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40>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녀 모두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안전의식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대신 여성은 실제 비위생적인 급식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을 각각 8.9%, 7.4% 남성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모든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40〉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35.2	11.1	5.6	20.4	3.7	23.1	0.9	-
성별	남	36.5	13.5	6.8	17.6	1.4	24.3	0.1924
	여	32.4	5.9	2.9	26.5	8.8	20.6	
연령군별	20대	42.9	7.1	7.1	14.3	7.1	17.9	0.7009
	30대	22.6	16.1	3.2	22.6	6.5	29.0	
	40대	43.5	8.7	8.7	17.4	0.0	21.7	
	50대	23.1	0.0	7.7	38.5	0.0	30.8	
	60대 이상	46.2	23.1	0.0	15.4	0.0	15.4	
권역별	수도권	34.8	13.0	4.4	19.6	4.4	23.9	0.7265
	영남권	37.1	11.4	5.7	20.0	2.9	22.9	
	충부권	37.5	6.3	12.5	25.0	6.3	6.3	
	호남권	27.3	9.1	0.0	18.2	0.0	45.5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0.0	0.0	0.0	40.0	0.0	20.0	0.3310
	100만원대	50.0	14.3	7.1	21.4	0.0	7.1	
	200만원대	33.3	22.2	16.7	16.7	5.6	5.6	
	300만원대	36.4	9.1	4.6	22.7	4.6	18.2	
	400만원대	21.1	5.3	0.0	15.8	0.0	57.9	
	500만원 이상	36.7	10.0	3.3	20.0	6.7	23.3	
학력별	중졸 이하	50.0	0.0	0.0	50.0	0.0	0.0	0.7823
	고졸	37.1	17.1	2.9	17.1	5.7	17.1	
	대졸 이상	33.8	8.5	7.0	21.1	2.8	26.8	
직업별	공무원	0.0	33.3	33.3	0.0	0.0	33.3	0.8304
	자영업	58.3	0.0	8.3	25.0	0.0	8.3	
	판매 서비스직	33.3	16.7	0.0	33.3	0.0	16.7	
	기능직	20.0	20.0	20.0	20.0	0.0	20.0	
	사무기술직	40.6	15.6	3.1	21.9	3.1	15.6	
	사무관리직	18.2	9.1	0.0	9.1	9.1	54.6	
	전문자유직	25.0	0.0	0.0	25.0	0.0	50.0	
	주부	25.0	12.5	0.0	37.5	12.5	12.5	
	학생	31.3	12.5	12.5	12.5	6.3	18.8	
	무직	45.5	0.0	0.0	18.2	0.0	36.4	

- 이유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이유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이유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이유 7.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8)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4-41>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안전체감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한 패널의 45.6%로 5개 세부분야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작년 상반기 47.7%보다도 하락한 결과이다.

전문가 중 60.5%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마찬가지로 5개 세부분야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표 4-4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45.6	100.0	6.3	48.0	38.0	7.2	0.4
전문가	60.5	100.0	7.4	32.1	46.9	13	0.6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4-42>에는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정도에 대해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개 세부분야중 해마다 50%를 밑도는 안전체감도로 최하위권을 형성하는 분야인데 올해는 50%를 상회하는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보면 남자, 60대 이상, 중부권 거주, 200만원대, 중졸 이하, 자영업의 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성별 차이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42〉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에 대한 세부변수별 분석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45.6	-	6.3	48.0	38.0	7.2	0.4
성별	남	51.2	0.0004	5.6	43.2	41.2	9.4	0.6
	여	40.0		7.1	52.9	34.8	5.1	0.2
연령군별	20대	47.2	0.538	10.1	42.8	37.1	10.1	0
	30대	41.0		10.9	48.1	33.3	7.1	0.6
	40대	47.0		5.1	48.0	41.4	4.6	1.0
	50대	43.9		4.0	52.0	37.4	6.6	0
	60대 이상	48.3		3.5	48.3	39.7	8.2	0.4
권역별	수도권	44.2	0.5811	7.0	48.8	36.3	7.3	0.6
	영남권	43.6		5.8	50.5	37.1	6.5	0.0
	중부권	49.0		6.0	45.0	41.5	7.0	0.5
	호남권	47.7		6.3	46.0	38.6	8.5	0.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1.3	0.8002	3.2	55.6	33.3	6.4	1.6
	100만원대	45.8		7.7	46.5	39.4	6.5	0.0
	200만원대	48.8		4.7	46.5	41.8	6.5	0.6
	300만원대	46.2		5.5	48.2	40.7	5.5	0.0
	400만원대	47.5		8.8	43.8	38.8	8.1	0.6
	500만원 이상	43.3		6.1	50.6	33.5	9.4	0.4
학력별	중졸 이하	54.3	0.1043	4.3	41.5	47.9	6.4	0.0
	고졸	45.8		6.2	48.0	38.3	7.3	0.3
	대졸 이상	44.0		6.8	49.2	36.1	7.4	0.6
직업별	공무원	47.1	0.5965	5.9	47.1	17.7	29.4	0.0
	자영업	55.5		4.0	40.6	49.5	5.0	1.0
	판매 서비스직	41.5		6.2	52.3	35.4	6.2	0.0
	기능직	53.7		4.9	41.5	46.3	7.3	0.0
	사무기술직	43.9		9.5	46.6	35.8	7.7	0.5
	사무관리직	46.0		4.5	49.6	36.9	7.2	1.8
	전문자유직	36.4		6.1	57.6	27.3	9.1	0.0
	주부	43.4		6.0	50.6	38.2	5.2	0.0
	학생	45.7		6.2	48.2	34.6	11.1	0.0
	무직	46.7		5.4	47.8	40.2	6.5	0.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4-43>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9.0%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식품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작년과 대동소이 했다. 전문가에서는 식품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 4-43>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541	100.0	64	100.0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157	29.0	13	20.3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51	27.9	26	40.6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84	15.5	6	9.4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62	11.5	12	18.8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51	9.4	2	3.1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30	5.6	3	4.7
기타	6	1.1	2	3.1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4-44>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와 여자 간에 학교주변 판매식품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 남성에 비해 ‘학교 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선택한 비율이 5.2% 높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12.0% 더 높았다.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에서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44〉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27.7	15.4	6.1	28.8	9.4	11.4	1.3	-	
성별	남	51.2	16.2	8.4	3.0	12.2	4.4	0.0003	
	여	39.2	14.1	8.5	3.6	19.4	5.9		8.1
연령군별	20대	19.0	14.3	9.5	33.3	9.5	13.1	1.2	0.5466
	30대	22.2	14.8	4.6	37.0	11.1	9.3	0.9	
	40대	33.3	14.3	4.8	26.7	7.6	13.3	0.0	
	50대	32.1	11.6	6.3	26.8	11.6	10.7	0.9	
	60대 이상	29.4	20.6	5.9	22.8	7.4	11.0	2.9	
권역별	수도권	29.0	17.7	5.9	28.0	7.5	11.3	0.5	0.6908
	영남권	26.2	14.0	3.7	30.5	10.4	12.8	2.4	
	충부권	33.3	12.7	7.8	30.4	7.8	6.9	1.0	
	호남권	21.5	16.1	8.6	25.8	12.9	14.0	1.1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37.8	16.2	0.0	27.0	2.7	10.8	5.4	0.0191
	100만원대	21.4	20.2	8.3	23.8	15.5	9.5	1.2	
	200만원대	34.5	16.1	6.9	20.7	6.9	12.6	2.3	
	300만원대	28.7	11.1	5.6	34.3	7.4	13.0	0.0	
	400만원대	17.4	16.3	7.0	34.9	11.6	10.5	2.3	
	500만원 이상	30.0	15.0	5.7	30.0	7.9	11.4	0.0	
학력별	중졸 이하	25.0	20.5	13.6	11.4	9.1	18.2	2.3	0.1960
	고졸	29.1	16.3	6.1	28.6	9.2	8.7	2.0	
	대졸 이상	27.2	14.1	4.9	31.5	9.5	12.1	0.7	
직업별	공무원	22.2	22.2	0.0	55.6	0.0	0.0	0.0	0.5904
	자영업	42.2	15.6	2.2	8.9	20.0	8.9	2.2	
	판매 서비스직	28.2	23.1	5.1	20.5	10.3	10.3	2.6	
	기능직	31.6	21.1	10.5	10.5	10.5	15.8	0.0	
	사무기술직	25.8	15.3	5.6	35.5	8.9	8.1	0.8	
	사무관리직	28.3	18.3	3.3	23.3	8.3	18.3	0.0	
	전문자유직	23.8	4.8	9.5	33.3	14.3	9.5	4.8	
	주부	22.2	12.6	8.1	32.6	8.9	14.1	1.5	
	학생	22.7	15.9	6.8	31.8	9.1	11.4	2.3	
	무직	38.8	14.3	6.1	30.6	2.0	8.2	0.0	

- 이유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이유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이유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유 6. 저가의 수입품 대한 안전성 우려
 이유 7.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9) 정책현안

가) 현안

<표 4-45>에는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45.9%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법 등 법, 규정의 개선을 27.8%의 대상자가 선택하여 그 뒤를 이었다.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정부발표의 신뢰성 강화가 각각 9.9%, 9.1%를 차지하였으며,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5.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4-45>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95	100.0	162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57	45.9	55	34.0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277	27.8	25	15.4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99	9.9	22	13.6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91	9.1	44	27.2
정부 정책 홍보 강화	52	5.2	5	3.1
기타	19	1.9	11	6.8

나) 세부변수별 현안

<표 4-46>에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보면 직업별로 공무원과 판매서비스직은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을, 그 외 직업군에서는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를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46〉 조사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단위: %)

구분		현안1	현안2	현안3	현안4	현안5	현안6	p
합계		9.2	27.8	45.9	5.2	10.0	1.9	-
성별	남	10.2	26.8	46.2	4.0	10.2	2.6	0.2140
	여	8.1	28.9	45.7	6.5	9.7	1.2	
연령군별	20대	10.7	22.0	56.6	4.4	5.7	0.6	0.1578
	30대	8.7	33.3	41.0	5.5	8.7	2.7	
	40대	9.1	31.8	43.9	3.0	11.6	0.5	
	50대	9.6	27.8	43.9	5.6	11.1	2.0	
	60대 이상	8.2	24.5	45.9	7.0	11.3	3.1	
권역별	수도권	8.2	27.4	48.8	4.0	9.2	2.4	0.3209
	영남권	7.9	28.9	47.8	4.8	9.3	1.4	
	중부권	8.0	27.0	47.5	5.5	10.5	1.5	
	호남권	14.2	27.8	35.8	8.0	11.9	2.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9.5	27.0	42.9	4.8	14.3	1.6	0.9019
	100만원대	7.7	29.0	43.9	7.7	9.7	1.9	
	200만원대	10.6	30.0	40.0	7.1	11.2	1.2	
	300만원대	8.5	27.1	47.2	4.5	11.1	1.5	
	400만원대	10.0	28.8	46.3	4.4	8.8	1.9	
	500만원 이상	9.0	26.1	50.6	3.3	8.2	2.9	
학력별	중졸 이하	7.5	33.0	41.5	8.5	6.4	3.2	0.2928
	고졸	9.2	26.3	48.0	5.6	10.3	0.6	
	대졸 이상	9.4	28.0	45.3	4.4	10.3	2.6	
직업별	공무원	0.0	41.2	29.4	11.8	11.8	5.9	0.0360
	자영업	7.9	30.7	41.6	4.0	9.9	5.9	
	판매 서비스직	7.7	36.9	30.8	4.6	18.5	1.5	
	기능직	19.5	26.8	39.0	9.8	4.9	0.0	
	사무기술직	11.3	30.8	44.8	3.6	8.1	1.4	
	사무관리직	9.9	24.3	51.4	2.7	9.9	1.8	
	전문자유직	9.1	30.3	42.4	9.1	6.1	3.0	
	주부	6.9	27.0	45.1	8.6	11.2	1.3	
	학생	11.1	19.8	58.0	2.5	8.6	0.0	
무직	6.5	21.7	56.5	3.3	9.8	2.2		

주) 현안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현안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현안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현안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현안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현안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나. 부가 조사

1) 식품안전인식

가) 영향요인

<표 4-47>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가 55.0%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본인 및 가족의 경험, 과학적 사실, 주변 사람의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47>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95	100.0	162	100.0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547	55.0	86	53.1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90	19.1	14	8.6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142	14.3	54	33.3
주변 사람의 의견	77	7.7	5	3.1
정부의 보도 자료	36	3.6	3	1.9
기타	3	0.3	0	0.0

나) 세부변수별 영향요인

<표 4-48>에는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연령군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언론 보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20대는 본인 및 가족의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요인은 언론 보도였고, 대졸 이상에서 대졸 미만에 비하여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중졸 이하에서 주변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48〉 조사대상자 특성별 영향요인

(단위: %)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p
합계		19.1	14.3	55.0	7.7	3.6	0.3	-
성별	남	19.0	15.8	53.0	8.4	3.6	0.2	0.6575
	여	19.2	12.7	57.0	7.1	3.6	0.4	
연령군별	20대	26.4	14.5	48.4	8.2	1.9	0.6	0.0238
	30대	19.7	15.9	53.6	9.8	0.6	0.6	
	40대	16.7	11.1	64.7	4.0	3.5	0.0	
	50대	18.7	17.2	53.0	7.1	4.0	0.0	
	60대 이상	16.3	13.2	54.1	9.3	6.6	0.4	
권역별	수도권	20.1	14.9	53.4	8.2	3.4	0.0	0.3321
	영남권	18.2	15.8	56.7	6.5	2.4	0.3	
	충부권	13.5	14.5	59.5	7.5	4.5	0.5	
	호남권	25.0	10.2	50.0	9.1	5.1	0.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9.1	12.7	49.2	15.9	1.6	1.6	0.5389
	100만원대	20.7	12.9	51.6	8.4	6.5	0.0	
	200만원대	21.8	12.4	52.4	7.7	5.3	0.6	
	300만원대	16.6	16.6	59.3	5.0	2.5	0.0	
	400만원대	21.9	15.0	53.1	7.5	2.5	0.0	
	500만원 이상	16.3	14.3	58.4	7.8	2.9	0.4	
학력별	중졸 이하	20.2	11.7	52.1	11.7	4.3	0.0	0.0018
	고졸	20.7	10.3	54.5	7.5	6.7	0.3	
	대졸 이상	17.9	17.3	55.8	7.2	1.5	0.4	
직업별	공무원	5.9	5.9	82.4	5.9	0.0	0.0	0.7402
	자영업	19.8	8.9	58.4	8.9	4.0	0.0	
	판매 서비스직	20.0	10.8	58.5	7.7	3.1	0.0	
	기능직	29.3	17.1	39.0	7.3	7.3	0.0	
	사무기술직	19.0	14.5	53.9	8.6	3.6	0.5	
	사무관리직	13.5	15.3	62.2	5.4	3.6	0.0	
	전문자유직	18.2	21.2	51.5	6.1	3.0	0.0	
	주부	18.5	13.7	53.7	9.0	4.7	0.4	
	학생	25.9	22.2	42.0	8.6	0.0	1.2	
무직	18.5	13.0	60.9	4.4	3.3	0.0		

요인 1. 본인 및 가족의 경험
 요인 2.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요인 3.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요인 4. 주변 사람의 의견
 요인 5. 정부의 보도 자료
 요인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불량 식품 근절

가) 인지도

<표 4-49>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패널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75.2%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4년 상반기 76.9%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90.1%로 패널보다 14.9% 높았다.

<표 4-49>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75.2	100	3.8	21.0	46.0	27.1	2.0
전문가	90.1	162	1.2	8.6	29.6	45.1	15.4

나) 인지도 세부분석

<표 4-50>에는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50대, 중부권 거주자, 200만원대, 고졸, 공무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40대 이상이 2-30대보다 인지도가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학생의 인지도가 낮고, 공무원과 사무관리직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80%대) 나타났다. 연령군별과 직업별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나타났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4-50〉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합계	75.2	-	3.8	21.0	46.0	27.1	2.0	
성별	남	77.4	0.1026	3.0	19.6	43.8	31.2	2.4
	여	72.9		4.7	22.4	48.3	23.0	1.6
연령군별	20대	61.6	<.0001	7.6	30.8	39.0	21.4	1.3
	30대	66.1		3.3	30.6	43.2	22.4	0.6
	40대	76.8		2.5	20.7	43.9	30.3	2.5
	50대	86.9		1.5	11.6	55.6	30.3	1.0
	60대 이상	79.8		4.7	15.6	46.7	29.2	3.9
권역별	수도권	74.4	0.8276	4.3	21.3	41.8	30.2	2.4
	영남권	76.0		4.5	19.6	47.4	27.5	1.0
	중부권	77.0		3.0	20.0	49.5	25.0	2.5
	호남권	73.3		2.8	23.9	47.7	23.3	2.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65.1	0.2174	7.9	27.0	49.2	15.9	0.0
	100만원대	72.3		5.2	22.6	53.6	16.8	1.9
	200만원대	81.8		2.9	15.3	50.6	28.2	2.9
	300만원대	75.4		2.5	22.1	50.3	24.1	1.0
	400만원대	74.4		3.1	22.5	42.5	30.0	1.9
	500만원 이상	75.5		3.7	20.8	35.9	36.7	2.9
학력별	중졸 이하	68.1	0.1067	10.6	21.3	53.2	10.6	4.3
	고졸	78.2		3.4	18.4	51.7	25.7	0.8
	대졸 이상	74.4		3.0	22.7	41.1	30.9	2.4
직업별	공무원	82.4	0.0278	0.0	17.7	41.2	41.2	0.0
	자영업	80.2		3.0	16.8	50.5	25.7	4.0
	판매 서비스직	61.5		6.2	32.3	47.7	13.9	0.0
	기능직	75.6		4.9	19.5	46.3	26.8	2.4
	사무기술직	76.5		3.2	20.4	43.0	32.1	1.4
	사무관리직	82.9		1.8	15.3	38.7	36.9	7.2
	전문자유직	72.7		0.0	27.3	42.4	30.3	0.0
	주부	76.0		3.4	20.6	52.8	21.9	1.3
	학생	63.0		11.1	25.9	42.0	19.8	1.2
	무직	75.0		3.3	21.7	44.6	30.4	0.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다)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

<표 4-51>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5.2%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9.3%), 식품 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6.8%)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2014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2위와 3위 순서만 바뀌어 2013년 상반기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표 4-51>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95	100.0	162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50	45.2	48	29.6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92	19.3	57	35.2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67	16.8	34	21.0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98	9.8	14	8.6
정부의 단속 소홀	84	8.4	6	3.7
기타	4	0.4	3	1.9

라)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4-52>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불량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50대 이상에서 더욱 강했다 (50% 이상).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정부의 단속 소홀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생은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표 4-52〉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5.2	19.3	16.8	9.8	8.4	0.4	-
성별	남	47.8	17.2	19.2	7.8	7.4	0.6	0.0168
	여	42.6	21.4	14.3	11.9	9.5	0.2	
연령군별	20대	33.3	16.4	16.4	23.9	9.4	0.6	<.0001
	30대	45.4	17.5	18.6	14.2	4.4	0.0	
	40대	43.9	23.7	19.7	7.6	5.1	0.0	
	50대	50.5	19.2	15.7	5.1	9.6	0.0	
	60대 이상	49.4	19.1	14.4	3.5	12.5	1.2	
권역별	수도권	46.0	18.6	17.4	11.3	6.4	0.3	0.5892
	영남권	46.7	17.5	18.9	8.6	8.3	0.0	
	중부권	45.0	21.0	15.5	8.5	9.5	0.5	
	호남권	41.5	21.6	13.6	10.8	11.4	1.1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6.0	19.1	11.1	1.6	22.2	0.0	0.0153
	100만원대	49.0	17.4	10.3	11.6	10.3	1.3	
	200만원대	47.1	16.5	17.1	10.0	9.4	0.0	
	300만원대	39.2	24.6	16.6	11.6	8.0	0.0	
	400만원대	43.1	21.3	19.4	11.3	5.0	0.0	
	500만원 이상	47.4	17.1	20.4	8.6	5.7	0.8	
학력별	중졸 이하	47.9	20.2	6.4	7.5	16.0	2.1	<.0001
	고졸	46.4	20.1	12.6	11.5	9.5	0.0	
	대졸 이상	44.0	18.6	21.4	9.2	6.5	0.4	
직업별	공무원	47.1	23.5	17.7	5.9	5.9	0.0	0.0120
	자영업	51.5	17.8	14.9	5.0	8.9	2.0	
	판매 서비스직	43.1	18.5	20.0	6.2	12.3	0.0	
	기능직	56.1	9.8	17.1	12.2	4.9	0.0	
	사무기술직	43.9	17.7	19.5	12.2	6.8	0.0	
	사무관리직	44.1	19.8	17.1	11.7	6.3	0.9	
	전문자유직	36.4	24.2	27.3	9.1	3.0	0.0	
	주부	46.8	24.5	12.9	6.0	9.9	0.0	
	학생	27.2	17.3	18.5	24.7	11.1	1.2	
	무직	54.4	15.2	14.1	6.5	9.8	0.0	

이유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이유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이유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이유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이유 5. 정부의 단속 소홀

이유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2015년 상반기 패널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4-5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식품안전체감도가 74.3%로 2014년 74.5%에 비해 0.2%포인트 안전체감도가 감소하였다. 여전히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이 가장 안전체감도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4-53>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패널)

(단위 :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	74.3	995	1.8	23.9	53.4	20.2	0.7
수입식품 안전	51.3	995	5.0	43.7	37.5	13.4	0.4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69.1	995	2.2	28.6	46.3	22.0	0.8
외식 안전	68.7	995	3.5	27.7	51.6	16.7	0.5
단체급식 안전	77.2	474	2.3	20.5	41.8	32.5	3.0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45.6	995	6.3	48.0	38.0	7.2	0.4

나. 2015년 상반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4-5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패널에 비해 전체 영역에서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표 4-54〉 2015년 상반기 식품안전체감도(전문가)

(단위 :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	89.5	162	1.2	9.3	45.7	41.4	2.5
수입식품 안전	65.4	162	1.2	33.3	44.4	19.1	1.9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85.2	162	0.0	14.8	38.9	42.6	3.7
외식 안전	74.7	162	3.7	21.6	50.6	23.5	0.6
단체급식 안전	89.5	114	0.9	9.7	38.6	47.4	3.5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60.5	162	7.4	32.1	46.9	13.0	0.6

다. 부가조사 결과에서 10가지 현안정책에 대해 잘 추진되고 있는 체감도를 중복조사한 결과를 보면,

- 패널과 전문가 모두 HACCP 적용, 나트륨 정책, 식중독 예방, 표시정책 등이 추진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 타 정책에 비해 정책홍보 및 실제 활용도가 높은 정책들로 평가되었다.

라.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정부 출범시 4대 사회악 등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정책홍보 강도가 낮아지고 국민들도 정책에 대한 신선감이 다소 퇴색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시사점

- 가. 향후 통계청 지적대로 식품패널 선정이 통계학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이메일 모집으로 선정된 패널을 통계청 패널 모집단을 활용하여 확률비례로 재 구축함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패널이 애당초 이메일로 모집되었기 때문에 선호하는 조사방법 중 인터넷 조사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전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우리나라 평균인보다 다소 높은 이유이다.
- 나. 2014년에 조사대상자별 맞춤형 조사방법이 채택되어 조사에 활용되었다.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소통의 일환으로 맞춤형 조사방법을 파악하여 활용하면 조사 성공률도 높힐 수 있고, 조사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여명 내외의 패널이 원하는 대면조사는 다른 조사방법으로 전환하여 조사하거나 차라리 조사 실시를 하지 않아 조사비 낭비를 예방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필요하다.
- 다. 올해 처음으로 부가조사 내용이 일부수정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10가지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에 대한 인식조사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워낙이 패널조사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면 부가조사는 매년 조사내용을 달리 하여 현안에 대한 답을 얻는 조사로 명년에도 바람직한 부가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제1절 조사 계획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5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 실시 및 결과

제1절 조사 계획

1. 조사개요

<표 5-1>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개요가 제시되어있다.

<표 5-1> 본조사 구축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5년 11월 19일 ~ 11월 30일
조사대상	- 패널: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식품패널 1,000명 - 전문가: 220명
조사내용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로 총 14개 조사항목
조사방법	- 패널: 인터넷 조사 810명, 전화조사 384명, 대면조사 6명(전화조사로 대체) - 전문가: 인터넷 조사 204명, 전화조사 16명(인터넷조사로 대체)
탈락사유	인터넷 조사에 무응답, 전화조사 거부, 전화연결 안됨
조사 성공자	- 패널: 총 984명 - 전문가: 총166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식품패널 1,272명 중 대체표본 72명을 제외한 1,200명의 식품패널과 2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하반기 조사가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12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

상반기 조사는 <표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별 선호하는 맞춤형 조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 전화조사가 사용되었다.

<표 5-2> 조사 선호 방법

구분	식품패널		전문가	
	대상자수	비율	대상자수	비율
합계	1,200	100.0	220	100.0
인터넷조사	810	67.5	204	92.7
전화조사	384	32.0	16	7.3
대면조사	6	0.5	0	0.0

전화조사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넷 조사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조사를 선호하는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설문지를 송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200명의 패널과 220명의 전문가 조사대상자 중 패널선정 기준인 연령, 성, 권역별 조사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조사단위의 조사를 마감하여 과조사되지 않게 하였으며,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조사단위의 경우 추가 반복 접촉을 시도하여 조사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최종 패널 984명과 전문가 166명에 대해 하반기 조사가 완료되었다.

3. 조사실시 현황

가. 조사목표

하반기 조사도 상반기 조사와 마찬가지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 4개 권역별, 5개 연령군으로 층화된 식품패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해 조사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실시되었다.

하반기 조사에 참여한 식품패널 현황은 상반기 조사에 참여한 패널 현황이 제시된 <표 4-3>의 결과와 동일하다.

나. 조사 성공

<표 5-3>에는 조사에 성공한 984명에 대한 각 지역, 성, 연령별 성공률이 제시되어 있다.

총 40개 조사단위중 31개 조사단위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조사 성공률이 가장 낮은 조사단위는 호남권의 20대 남성군으로 86.7%였으며 중부권 20대 남성도 87.5%의 조사 성공률을 보여 20대 남성의 조사 성공률이 낮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권역별로는 영남권, 연령군별로는 40대에서 조사 성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3> 하반기조사 조사 성공률 현황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98.4	97.6	95.1	95.8	99.0	97.0	100.0	99.2	98.7	98.9	100.0	100.0	98.5
수도권	98.2	97.6	100.0	89.7	100.0	100.0	100.0	98.8	96.6	96.6	100.0	100.0	100.0
영남권	99.3	98.6	100.0	100.0	100.0	9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부권	99.0	98.0	8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호남권	96.6	95.5	86.7	100.0	94.1	94.4	100.0	97.8	100.0	100.0	100.0	100.0	91.7

다. 조사표 신뢰도 검증

상반기와 동일한 조사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반기와 달리신뢰도 검증은 다시 실시되지 않았다.

제2절 조사 결과

1. 기본분석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5-4>에는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4> 상반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식품패널		전문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합계	984	100.0	166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3	6.4	0	0.0
	100만원대	155	15.8	3	1.8
	200만원대	177	18.0	16	9.6
	300만원대	182	18.5	10	6.0
	400만원대	159	16.2	34	20.5
	500만원 이상	245	24.9	102	61.5
교육수준	중졸 이하	93	9.5	0	0.0
	고졸	362	36.8	0.0	0.0
	대졸 이상	529	53.8	166	100.0
직업분류	공무원	15	1.52	16	9.6
	자영업	114	11.59	1	0.6
	판매 서비스직	57	5.79	4	2.4
	기능직	38	3.86	0	0.0
	사무기술직	217	22.05	37	22.3
	사무관리직	113	11.48	43	25.9
	전문자유직	29	2.95	65	39.2
	주부	230	23.37	0	0.0
	학생	81	8.23	0	0.0
	무직	90	9.15	0	0.0

주)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안함이 패널 3명, 전문가 1명 있어, 응답자 수가 패널은 981명, 전문가는 165명임

2013년 구축된 식품패널이 80% 이상 조사에 참여하여 패널의 경제적, 학력수준이 국민 평균수준 보다 높은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나. 기본 조사

1) 전체 식품안전체감도

<표 5-5>에는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84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6%로 조사되었다. 2014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73.2%보다 6.4% 높게 나타났고,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5회 중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전문가는 90.4%로 패널에 비하여 식품안전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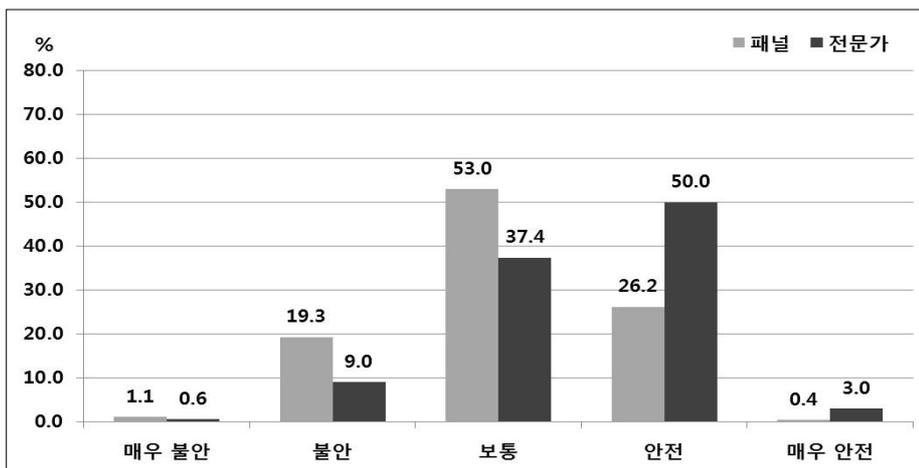
<표 5-5>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79.6	984	1.1	19.3	53.0	26.2	0.4
전문가	90.4	166	0.6	9.0	37.4	50.0	3.0

[그림 5-1]에는 이 결과가 막대 그래프로 비교되어있다.

[그림 5-1]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 정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가) 안전체감도

<표 5-6>에는 2015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89.5%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작년 하반기 89.8%보다 낮아진 수준이었다. 전문가의 94.6%가 작년보다 동일하거나 나아졌다고 응답하여 식품안전체감도에 비해 적은 격차를 나타냈다.

<표 5-6>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짐	크게 나아짐
패널	89.5	984	1.4	9.0	49.3	37.9	2.3
전문가	94.6	166	-	5.4	38.0	50.6	6.0

나) 나아진 이유

<표 5-7>에는 2015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진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27.8%)와 전문가(33.0%)가 동일하게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을 식품안전관리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패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뒤를 이었고, 전문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뒤를 이었다.

〈표 5-7〉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82	100.0	94	100.0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106	27.8	31	33.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75	19.6	20	21.3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73	19.1	10	10.6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61	16.0	19	20.2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61	16.0	12	12.8
기타	6	1.6	2	2.1

다) 감소한 이유

〈표 5-8〉에는 2015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8〉 작년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103	100.0	9	100.0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37	35.9	5	55.6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19	18.5	1	11.1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18	17.5	3	33.3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16	15.5	-	-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12	11.7	-	-
기타	1	1.0	-	-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패널(35.9%)과 전문가(55.6%)가 동일하게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 인식 저조’를 식품안전관리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라고 선택하였다. 전문가에서는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을 선택한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3)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5-9>에는 내년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을 예측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9>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감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크게 떨어질 것	떨어질 것	동일할 것	나아질 것	크게 나아질 것
패널	95.2	983	0.4	4.4	43.2	50.5	1.5
전문가	97.0	166	0.6	2.4	31.3	61.5	4.2

응답 패널의 95.2%가 동일할 것 또는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4년 하반기 95.0% 수준보다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나아짐 이상을 선택한 비율도 2014년 하반기 51.0%에서 증가한 52.0%였다.

전문가의 식품안전체감도는 97.0%로 패널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4)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표 5-10>에는 2015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패널을 대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현안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로 47.2%의 대상자가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5.3%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34.9%가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를 가장

주된 현안으로 응답하였다.

〈표 5-10〉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84	100.0	166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64	47.2	58	34.9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293	29.8	28	16.9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79	8.0	21	12.7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77	7.8	33	19.9
정부 정책 홍보 강화	52	5.3	8	4.8
기타	19	1.9	18	10.8

5)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표 5-11〉에는 수입식품안전, 유통식품안전, 외식안전, 단체급식의 안전, 학교 주변 판매식품안전 등 5개 분야별 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대상 조사에서 5개 분야를 총괄한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9.36%인데, 5개 세부영역은 모두 이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수입식품 안전 체감도는 56.6%, 학교 주변 판매식품 안전체감도는 51.5%로 작년과 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전반적 식품안전체감도는 90.4%였고, 세부 영역의 안전체감도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유통식품의 안전 체감도는 86.8%로 가장 안전한 분야로 평가하였고,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체감도가 60.5%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에 대해 특히 정책개발, 적용, 홍보 등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11〉 세부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수입식품 안전	56.6	984	5.2	38.2	41.1	14.9	0.6
	유통식품의 안전	70.7	984	1.6	27.6	49.5	20.3	0.9
	외식 안전	67.8	984	2.4	29.8	48.7	18.7	0.4
	단체급식의 안전	74.2	507	3.0	22.9	40.0	32.0	2.2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51.5	984	6.2	42.3	41.0	10.4	0.2
	전반적인 식품안전	79.6	984	1.1	19.3	53.0	26.2	0.4
전문가	수입식품 안전	72.9	166	2.4	24.7	50.0	20.5	2.4
	유통식품의 안전	86.8	166	0.6	12.7	32.5	53.0	1.2
	외식 안전	78.9	166	1.2	19.9	50.6	27.7	0.6
	단체급식의 안전	86.0	114	-	14.0	36.0	42.1	7.9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72.3	166	4.8	22.9	53.6	18.7	-
	전반적인 식품안전	90.4	166	0.6	9.0	37.4	5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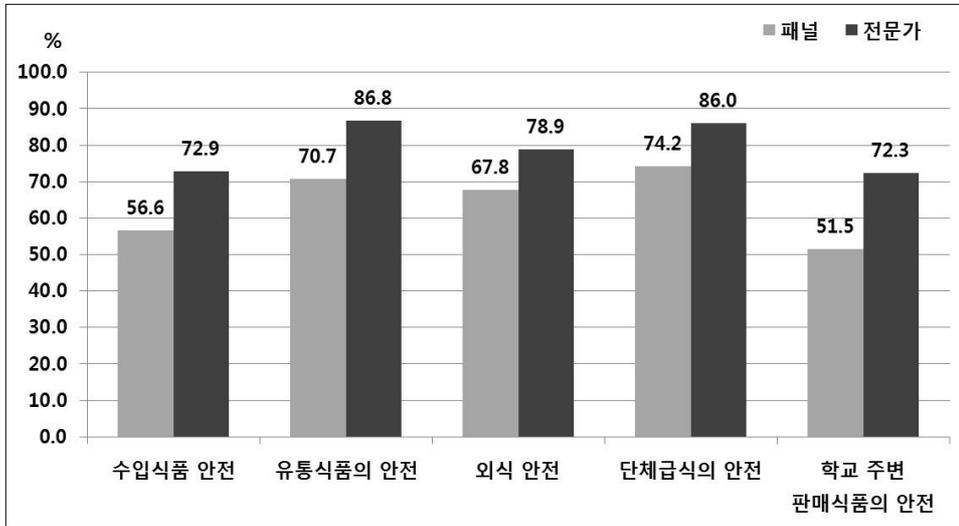
[그림 5-2]에는 분야별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한 패널과 전문가의 결과가 막대그래프로 제시되어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모든 영역에서 패널보다 높은 체감도를 보였다. 전문가가 가장 높은 체감도를 보인 영역은 제조·유통식품 안전이었고, 패널의 경우 단체급식의 안전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인 영역은 패널과 전문가 모두 상반기에 이어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이었으나 체감도 자체는 패널 5.9%, 전문가 11.8%의 상승치를 보였다. 동시에 패널과 전문가 사이에 가장 큰 체감도 차이를 보인 영역도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으로 20.8% 차이가 있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그림 5-2] 분야별 식품안전체감 정도



다. 부가 조사

2015년 하반기에 실시된 부가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보 구득원

<표 5-12>에는 평소에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에 대해 중복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방송매체가 주요 구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패널의 3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6.4%가 인터넷 지식정보로 나타났다. SNS는 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가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활용하는 매체는 정부(발표)로 전체의 35.3%가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25.1%가 인터넷 지식정보를 선택하였다. 패널과 마찬가지로 SNS가 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5-12> 정보 구득 매체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2,055	100.0	255	100.0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753	36.6	47	18.4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542	26.4	64	25.1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357	17.4	43	16.9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242	11.8	90	35.3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144	7.0	7	2.7
기타	17	0.8	4	1.6

2) 영향요인

<표 5-13>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13>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84	100.0	166	100.0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534	54.3	99	59.6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87	19.0	11	6.6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135	13.7	49	29.5
주변 사람의 의견	89	9.0	2	1.2
정부의 보도 자료	38	3.9	4	2.4
기타	1	0.1	1	0.6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언론 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패널은 54.3%로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고, 그 다음은 ‘본인 및 가족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9.0%, 13.7%로 나타났다.

전문가도 59.6%가 언론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29.5%가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을 선택하여 일반인인 패널과 전문가 간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방송의 영향력은 모두에게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품안전정책의 추진 체감도

<표 5-14>에는 10종의 현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가장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중복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14>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009	100.0	442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483	16.1	93	21.0
나트륨 줄이기 운동	393	13.1	51	11.5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342	11.4	43	9.7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325	10.8	49	11.1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319	10.6	53	12.0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263	8.7	44	10.0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256	8.5	32	7.2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22	7.4	24	5.4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217	7.2	23	5.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167	5.6	29	6.6
기타	22	0.7	1	0.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패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 ‘나트륨 줄이기 운동’,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순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전문가는 21.0%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를 선택하였고, 그 외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나트륨 줄이기 운동’, 학교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순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정책이 가장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4)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5-15>에는 <표 5-14>에서 선택한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15>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82	100.0	166	100.0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359	36.6	26	15.7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325	33.1	88	53.0
식품관련 사건·사고 감소	151	15.4	29	17.5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인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84	8.6	11	6.6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39	4.0	3	1.8
기타	24	2.4	9	5.4

패널의 36.6%가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되기 때문’을, 33.1%가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정책추진 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을 선택하였다.

전문가는 53.0%가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고, 17.5%가 '식품관련 사건.사고가 감소 했음'을 선택하였다.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를 선택한 비율은 패널과 전문가에서 각각 4.0%, 1.8%로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여전히 업체의 법 위반은 발생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5) 불량식품 근절 노력

<표 5-16>에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정도를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77.6%와 전문가의 95.2%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의 안전체감도가 패널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16>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체감도	응답자 수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77.6	984	5.8	16.7	42.9	31.7	3.0
전문가	95.2	166	0.6	4.2	25.3	50.6	19.3

6) 불량식품 유통 이유

<표 5-17>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의 43.8%와 전문가의 28.9%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의 35.5%와 패널의 19.8%가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이유로 지적하였다.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강화, 식품안전규제의 강화, 부당이익 환수제의 확대 등의 정부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를 제공해주는 조사결과라 하겠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17〉 불량식품의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84	100.0	166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31	43.8	48	28.9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95	19.8	59	35.5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89	19.2	44	26.5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87	8.8	4	2.4
정부의 단속 소홀	79	8.0	8	4.8
기타	3	0.3	3	1.8

2. 세부 분석

가. 기본 조사

1) 식품안전체감도

〈표 5-18〉에는 2015년 하반기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하여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50대, 중부권 거주자, 소득 500만원대, 고졸, 무직 대상자의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군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18〉 조사대상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79.6		1.1	19.3	53.0	26.2	0.4
성별	남	85.1	<.0001	1.2	13.7	49.8	34.9	0.4
	여	74.1		2.8	1.0	24.9	56.1	17.6
연령군별	20대	76.8	0.0382	1.3	21.9	54.8	21.3	0.7
	30대	72.1		1.1	26.8	57.5	14.5	0.0
	40대	81.3		1.5	17.2	53.5	27.8	0.0
	50대	83.1		0.5	16.4	49.7	32.8	0.5
	60대 이상	82.5		1.2	16.3	50.6	31.1	0.8
권역별	수도권	77.7	0.6201	1.9	20.4	52.9	24.5	0.3
	영남권	79.0		0.3	20.7	51.7	26.2	1.0
	중부권	81.9		0.5	17.6	54.3	27.6	0.0
	호남권	81.4		1.7	16.9	53.5	27.9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81.0	0.8592	3.2	15.9	50.8	30.2	0.0
	100만원대	81.9		0.0	18.1	60.7	20.7	0.7
	200만원대	77.4		0.0	22.6	53.7	23.2	0.6
	300만원대	78.0		1.7	20.3	54.4	23.6	0.0
	400만원대	78.0		1.9	20.1	50.9	27.0	0.0
	500만원 이상	81.6		1.2	17.1	48.2	32.7	0.8
학력별	중졸 이하	78.5	0.5228	0.0	21.5	58.1	19.4	1.1
	고졸	81.5		0.3	18.2	55.5	25.7	0.3
	대졸 이상	78.5		1.9	19.7	50.3	27.8	0.4
직업별	공무원	80.0	0.2172	0.0	20.0	20.0	53.3	6.7
	자영업	83.3		0.9	15.8	50.0	33.3	0.0
	판매 서비스직	71.9		1.8	26.3	54.4	17.5	0.0
	기능직	81.6		0.0	18.4	55.3	26.3	0.0
	사무기술직	79.3		1.8	18.9	55.3	23.5	0.5
	사무관리직	83.2		0.9	15.9	49.6	33.6	0.0
	전문자유직	75.9		0.0	24.1	48.3	27.6	0.0
	주부	76.5		1.3	22.2	57.8	18.3	0.4
	학생	74.1		0.0	25.9	46.9	27.2	0.0
	무직	88.9		1.1	10.0	53.3	34.4	1.1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19>에는 2015년 하반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안전체감도에 대하여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50대, 중부권 거주자, 소득 300만원대, 자영업종사자의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연령군별, 소득수준별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9> 전문가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체감 정도

구분	식품안전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90.4	-	0.6	9.0	37.4	50.0	3.0	
성별	남	94.0	0.0505	0.0	6.0	31.0	59.0	4.0
	여	84.9		1.5	13.6	47.0	36.4	1.5
연령군별	20대	77.8	0.0203	11.1	11.1	55.6	22.2	0.0
	30대	79.6		0.0	20.5	31.8	47.7	0.0
	40대	93.8		0.0	6.3	29.2	58.3	6.3
	50대	98.0		0.0	2.0	42.9	51.0	4.1
	60대 이상	93.8		0.0	6.3	50.0	43.8	0.0
권역별	수도권	88.6	0.7187	0.9	10.5	37.7	48.3	2.6
	영남권	93.3		0.0	6.7	26.7	66.7	0.0
	중부권	93.8		0.0	6.3	37.5	50.0	6.3
	호남권	95.2		0.0	4.8	42.9	47.6	4.8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0.0003	-	-	-	-	-
	100만원대	33.3		33.3	33.3	33.3	0.0	0.0
	200만원대	75.0		0.0	25.0	37.5	37.5	0.0
	300만원대	100.0		0.0	0.0	50.0	50.0	0.0
	400만원대	82.4		0.0	17.7	23.5	55.9	2.9
	500만원 이상	96.1		0.0	3.9	40.2	52.0	3.9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
	고졸	-		-	-	-	-	-
	대졸 이상	90.4		0.6	9.0	37.4	50.0	3.0
직업별	공무원	87.5	0.0727	0.0	12.5	37.5	50.0	0.0
	자영업	100.0		0.0	0.0	100.0	0.0	0.0
	판매 서비스직	75.0		0.0	25.0	25.0	50.0	0.0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81.1		2.7	16.2	32.4	46.0	2.7
	사무관리직	88.4		0.0	11.6	23.3	62.8	2.3
	전문자유직	98.5		0.0	1.5	49.2	44.6	4.6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작년대비 식품안전체감도

<표 5-20>에는 작년 대비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20> 조사대상자 특성별 작년대비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크게 떨어짐	떨어짐	동일	나아짐	크게 나아짐
합계		89.5		1.4	9.0	49.3	37.9	2.3
성별	남	91.6	0.0321	1.6	6.7	47.1	42.0	2.5
	여	87.5		1.2	11.3	51.4	33.8	2.2
연령군별	20대	83.2	0.0171	3.9	12.9	62.6	18.7	1.9
	30대	86.6		1.1	12.3	60.3	25.7	0.6
	40대	91.9		1.0	7.1	45.5	45.5	1.0
	50대	92.3		1.0	6.7	44.1	46.2	2.1
	60대 이상	91.4		0.8	7.8	40.5	45.9	5.1
지역별	수도권	88.5	0.3641	0.9	10.5	48.0	39.0	1.6
	영남권	89.0		1.4	9.7	51.4	35.9	1.7
	중부권	93.0		0.5	6.5	52.3	39.2	1.5
	호남권	88.4		3.5	8.1	44.8	37.8	5.8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9.4	0.2182	6.4	14.3	54.0	22.2	3.2
	100만원대	90.3		1.3	8.4	52.3	33.6	4.5
	200만원대	91.0		1.1	7.9	52.5	36.2	2.3
	300만원대	90.1		1.1	8.8	57.1	32.4	0.6
	400만원대	88.7		1.9	9.4	44.7	42.8	1.3
학력별	500만원 이상	90.6	0.0823	0.4	9.0	40.8	46.9	2.9
	중졸 이하	82.8		3.2	14.0	53.8	22.6	6.5
	고졸	90.1		1.4	8.6	48.6	39.2	2.2
직업별	대졸 이상	90.4	0.3648	1.1	8.5	49.0	39.7	1.7
	공무원	80.0		6.7	13.3	20.0	60.0	0.0
	자영업	88.6		0.9	10.5	44.7	43.0	0.9
	판매 서비스직	87.7		0.0	12.3	47.4	36.8	3.5
	기능직	86.8		5.3	7.9	44.7	39.5	2.6
	사무기술직	87.1		0.5	12.4	50.7	35.5	0.9
	사무관리직	93.8		0.0	6.2	50.4	40.7	2.7
	전문자유직	89.7		0.0	10.3	51.7	37.9	0.0
	주부	92.6		1.3	6.1	51.3	38.7	2.6
학생	85.2	4.9	9.9	59.3	22.2	3.7		
무직	91.1	2.2	6.7	43.3	42.2	5.6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3) 내년 식품안전체감도

<표 5-21>에는 올해 대비 2016년 식품안전체감도 변화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5-21> 조사대상자 특성별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체감도	p	크게 떨어질 것	떨어질 것	동일할 것	나아질 것	크게 나아질 것	
합계	95.2		0.4	4.4	43.2	50.5	1.5	
성별	남	95.9	0.3054	0.4	3.7	39.4	54.5	2.0
	여	94.5		0.4	5.1	47.1	46.5	1.0
연령군별	20대	91.0	0.0001	0.7	8.4	63.2	26.5	1.3
	30대	90.5		0.6	8.9	54.2	36.3	0.0
	40대	97.5		0.5	2.0	47.5	48.5	1.5
	50대	98.0		0.0	2.1	32.3	64.6	1.0
	60대 이상	97.3		0.4	2.3	28.5	65.6	3.1
권역별	수도권	94.7	0.3632	0.3	5.0	47.7	45.2	1.9
	영남권	94.1		0.7	5.2	43.3	49.1	1.7
	충부권	97.5		0.0	2.5	37.2	59.8	0.5
	호남권	95.4		0.6	4.1	41.9	51.7	1.7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93.7	0.9057	3.2	3.2	42.9	47.6	3.2
	100만원대	94.2		0.0	5.8	37.4	55.5	1.3
	200만원대	94.9		0.0	5.1	45.8	47.5	1.7
	300만원대	96.1		0.6	3.3	46.4	49.7	0.0
	400만원대	94.3		0.0	5.7	47.2	45.9	1.3
500만원 이상	96.3	0.4	3.3	40.0	53.9	2.5		
학력별	중졸 이하	95.7	0.9683	1.1	3.3	31.5	62.0	2.2
	고졸	95.3		0.0	4.7	45.3	49.2	0.8
	대졸 이상	95.1		0.6	4.4	43.9	49.3	1.9
직업별	공무원	93.3	0.0571	0.0	6.7	33.3	60.0	0.0
	자영업	97.4		0.0	2.6	35.1	62.3	0.0
	판매 서비스직	96.5		0.0	3.5	50.9	45.6	0.0
	기능직	97.4		2.6	0.0	44.7	52.6	0.0
	사무기술직	94.0		0.9	5.1	46.1	46.1	1.8
	사무관리직	98.2		0.0	1.8	46.0	49.6	2.7
	전문자유직	96.6		0.0	3.5	48.3	48.3	0.0
	주부	94.8		0.4	4.8	38.9	54.2	1.8
	학생	87.7		0.0	12.4	58.0	28.4	1.2
무직	97.8	0.0	2.2	35.6	58.9	3.3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4) 수입식품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22>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널의 56.6%가 안전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2014년 51.5%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의 72.9%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패널보다 안전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2〉 수입식품 안전체감 정도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56.6	100.0	5.2	38.2	41.1	14.9	0.6
전문가	72.9	100.0	2.4	24.7	50.0	20.5	2.4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23>에는 수입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20대, 중부권 거주, 200만원대, 중졸 이하, 공무원인 조사대상자의 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성별과 연령군별에서만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20대에서 65%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전문가자유직이 44.8%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반대로 공무원은 66.7%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가장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인 직군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23〉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56.6		5.2	38.2	41.1	14.9	0.6
성별	남	61.8	0.0010	3.3	34.9	41.6	19.4	0.8
	여	51.4		7.1	41.5	40.5	10.5	0.4
연령군별	20대	65.2	0.0453	5.8	29.0	43.9	20.0	1.3
	30대	53.1		6.7	40.2	39.7	12.9	0.6
	40대	54.6		6.1	39.4	36.9	17.2	0.5
	50대	50.8		4.6	44.6	38.5	12.3	0.0
	60대 이상	59.9		3.5	36.6	45.5	13.6	0.8
권역별	수도권	53.9	0.2152	5.9	40.3	38.7	14.9	0.3
	영남권	54.5		2.8	42.8	39.7	14.5	0.3
	중부권	62.3		4.5	33.2	46.2	15.1	1.0
	호남권	58.7		8.7	32.6	41.9	15.7	1.2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60.3	0.8157	4.8	34.9	44.4	15.9	0.0
	100만원대	61.3		4.5	34.2	49.0	11.0	1.3
	200만원대	55.4		3.4	41.2	41.8	13.6	0.0
	300만원대	54.4		8.2	37.4	36.8	17.0	0.6
	400만원대	56.0		6.3	37.7	39.0	17.0	0.0
	500만원 이상	55.9		3.7	40.4	39.2	15.5	1.2
학력별	중졸 이하	60.2	0.6313	6.5	33.3	49.5	9.7	1.1
	고졸	57.5		2.8	39.8	41.4	15.5	0.6
	대졸 이상	55.4		6.6	38.0	39.3	15.5	0.6
직업별	공무원	66.7	0.8001	0.0	33.3	33.3	26.7	6.7
	자영업	54.4		4.4	41.2	40.4	14.0	0.0
	판매 서비스직	50.9		7.0	42.1	33.3	15.8	1.8
	기능직	57.9		5.3	36.8	39.5	18.4	0.0
	사무기술직	56.7		6.0	37.3	39.2	17.5	0.0
	사무관리직	56.6		4.4	38.9	38.9	16.8	0.9
	전문자유직	44.8		6.9	48.3	31.0	13.8	0.0
	주부	55.7		5.7	38.7	45.2	10.0	0.4
	학생	61.7		7.4	30.9	40.7	18.5	2.5
	무직	62.2		1.1	36.7	48.9	13.3	0.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5-24>에는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이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1.2%, 위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0.6%로 주요 이유로 나타나는 등 상반기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입업체의 낮은 안전 인식,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24〉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423	100.0	45	100.0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132	31.2	10	22.2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87	20.6	18	40.0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83	19.6	8	17.8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58	13.7	4	8.9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56	13.2	3	6.7
기타	7	1.7	2	4.4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25>에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령군별로 보면 40대는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역시 주된 이유로 선택한 반면에 그 외 연령대는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중졸 이하에서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를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25〉 조사대상자 특성별 수입식품이 불안한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19.6	31.2	13.2	13.7	20.6	1.7	-
성별	남	24.3	33.0	8.7	12.4	19.5	2.2	0.0655
	여	16.0	29.8	16.8	14.7	21.4	1.3	
연령군별	20대	16.7	50.0	7.4	13.0	9.3	3.7	0.0395
	30대	21.4	29.8	16.7	17.9	13.1	1.2	
	40대	18.9	27.8	8.9	14.4	30.0	0.0	
	50대	24.2	27.4	11.6	9.5	24.2	3.2	
	60대 이상	16.0	29.0	19.0	14.0	21.0	1.0	
권역별	수도권	22.8	32.9	7.4	14.8	20.1	2.0	0.4561
	영남권	16.2	32.3	15.4	10.8	23.1	2.3	
	중부권	20.3	23.0	20.3	14.9	21.6	0.0	
	호남권	18.6	34.3	14.3	15.7	15.7	1.4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6.7	41.7	16.7	8.3	12.5	4.2	0.5230
	100만원대	15.3	37.3	22.0	6.8	17.0	1.7	
	200만원대	16.7	33.3	10.3	19.2	18.0	2.6	
	300만원대	22.9	26.5	15.7	13.3	21.7	0.0	
	400만원대	18.6	20.0	12.9	15.7	31.4	1.4	
	500만원 이상	22.4	34.6	8.4	14.0	18.7	1.9	
학력별	중졸 이하	10.8	29.7	32.4	13.5	10.8	2.7	0.0159
	고졸	20.3	34.0	13.7	9.2	22.2	0.7	
	대졸 이상	20.6	29.6	9.9	16.7	21.0	2.2	
직업별	공무원	20.0	20.0	0.0	0.0	60.0	0.0	0.4425
	자영업	19.6	35.3	13.7	11.8	15.7	3.9	
	판매 서비스직	14.3	35.7	17.9	17.9	14.3	0.0	
	기능직	12.5	31.3	18.8	6.3	31.3	0.0	
	사무기술직	19.4	29.0	10.8	18.3	21.5	1.1	
	사무관리직	32.7	22.5	12.2	14.3	16.3	2.0	
	전문자유직	43.8	31.3	0.0	0.0	25.0	0.0	
	주부	11.9	26.7	19.8	14.9	24.8	2.0	
	학생	19.4	45.2	6.5	9.7	16.1	3.2	
무직	21.2	42.4	9.1	12.1	15.2	0.0		

- 이유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이유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 이유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 이유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 이유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26>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984명의 응답한 패널 중 70.7%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인 안전체감도인 79.6%보다 낮게 조사되었고, 2014년 하반기 78.8%보다 8.1%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상반기에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원료 허위 사건의 영향으로 제조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 인식이 2014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전문가의 86.8%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패널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고, 전반적인 식품안전체감도 90.4%에 비해서 3.6%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5-26〉 유통식품의 안전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70.7	100.0	1.6	27.6	49.5	20.3	0.9
전문가	86.8	100.0	0.6	12.7	32.5	53.0	1.2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27>에는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50대 및 60대 이상, 수도권 거주, 500만원 이상, 고졸, 공무원의 제조·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3.1%로 가장 높고, 호남권이 66.9%로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공무원과 기능직, 무직에서 80%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에서 72.1%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성별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표 5-27〉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70.7		1.6	27.6	49.5	20.3	0.9
성별	남	77.4	<.0001	1.2	21.4	50.2	25.7	1.4
	여	64.2		2.0	33.8	48.8	15.0	0.4
연령군별	20대	71.0	0.0667	1.3	27.7	51.0	19.4	0.7
	30대	62.0		3.4	34.6	49.2	11.7	1.1
	40대	71.2		1.0	27.8	44.4	26.3	0.5
	50대	73.9		1.0	25.1	50.8	22.6	0.5
	60대 이상	73.9		1.6	24.5	51.8	20.6	1.6
권역별	수도권	73.1	0.5485	2.5	24.5	54.8	17.0	1.2
	영남권	70.3		0.7	29.0	48.6	21.4	0.3
	중부권	70.9		1.0	28.1	48.2	21.6	1.0
	호남권	66.9		2.3	30.8	42.4	23.3	1.2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1.4	0.2444	1.6	27.0	47.6	20.6	3.2
	100만원대	71.6		1.3	27.1	54.8	15.5	1.3
	200만원대	70.1		1.1	28.8	48.0	21.5	0.6
	300만원대	63.2		1.7	35.2	46.7	16.5	0.0
	400만원대	71.7		0.6	27.7	51.6	20.1	0.0
	500만원 이상	75.5		2.9	21.6	48.2	25.7	1.6
학력별	중졸 이하	68.8	0.7469	0.0	31.2	49.5	18.3	1.1
	고졸	72.1		1.7	26.2	53.6	17.7	0.8
	대졸 이상	70.1		1.9	28.0	46.7	22.5	1.0
직업별	공무원	86.7	0.1856	0.0	13.3	53.3	33.3	0.0
	자영업	67.5		1.8	30.7	50.9	15.8	0.9
	판매 서비스직	63.2		0.0	36.8	47.4	14.0	1.8
	기능직	81.6		2.6	15.8	52.6	29.0	0.0
	사무기술직	71.4		2.3	26.3	46.1	25.4	0.0
	사무관리직	71.7		1.8	26.6	46.0	23.0	2.7
	전문자유직	69.0		0.0	31.0	51.7	17.2	0.0
	주부	67.4		2.2	30.4	52.2	14.8	0.4
	학생	67.9		0.0	32.1	51.9	14.8	1.2
	무직	81.1		1.1	17.8	50.0	28.9	2.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5-28>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정부의 관리 미흡이 32.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식품제조업자의 안전의식 부족, 제조·유통업체의 식품 보관 문제가 25%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5-28〉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288	100.0	22	100.0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93	32.3	2	9.1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76	26.4	8	36.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72	25.0	6	27.3
저가의 원재료 사용	27	9.4	3	13.6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14	4.9	3	13.6
기타	6	2.1	-	-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29>에는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공무원, 사무기술직, 학생은 정부의 단속, 관리 미흡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자영업자와 주부의 경우 제조·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된 이유로 지적하였다.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지적한 직업군은 사무관리직과 전문자유직이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이 적절하지 않음과 저가의 원재료 사용을 주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모든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표 5-29〉 조사대상자 특성별 제조·유통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9	26.4	32.3	25.0	9.4	2.1	-
성별	남	5.4	27.0	34.2	22.5	8.1	2.7	0.9205
	여	4.5	26.0	31.1	26.6	10.2	1.7	
연령군별	20대	0.0	31.1	48.9	15.6	2.2	2.2	0.2990
	30대	4.4	25.0	29.4	29.4	10.3	1.5	
	40대	7.0	29.8	22.8	21.1	14.0	5.3	
	50대	7.8	19.6	29.4	29.4	11.8	2.0	
	60대 이상	4.5	26.9	34.3	26.9	7.5	0.0	
권역별	수도권	6.9	27.6	37.9	19.5	5.8	2.3	0.2582
	영남권	4.7	22.1	33.7	27.9	8.1	3.5	
	충부권	3.5	39.7	24.1	22.4	10.3	0.0	
	호남권	3.5	17.5	29.8	31.6	15.8	1.8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1.1	11.1	38.9	27.8	5.6	5.6	0.5984
	100만원대	4.6	20.5	43.2	22.7	9.1	0.0	
	200만원대	3.8	22.6	24.5	35.9	9.4	3.8	
	300만원대	6.0	29.9	26.9	23.9	13.4	0.0	
	400만원대	2.2	28.9	33.3	22.2	6.7	6.7	
	500만원 이상	5.0	31.7	35.0	20.0	8.3	0.0	
학력별	중졸 이하	6.9	20.7	27.6	31.0	13.8	0.0	0.4996
	고졸	5.9	19.8	36.6	28.7	6.9	2.0	
	대졸 이상	3.8	31.7	30.4	21.5	10.1	2.5	
직업별	공무원	0.0	0.0	50.0	0.0	50.0	0.0	0.2237
	자영업	5.4	13.5	29.7	35.1	16.2	0.0	
	판매 서비스직	9.5	28.6	28.6	23.8	4.8	4.8	
	기능직	28.6	14.3	14.3	28.6	14.3	0.0	
	사무기술직	3.2	29.0	37.1	21.0	6.5	3.2	
	사무관리직	0.0	40.6	37.5	15.6	6.3	0.0	
	전문자유직	11.1	44.4	11.1	11.1	22.2	0.0	
	주부	5.3	21.3	26.7	32.0	12.0	2.7	
	학생	0.0	26.9	53.9	19.2	0.0	0.0	
무직	5.9	35.3	23.5	23.5	5.9	5.9		

- 이유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 이유 2.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이유 3.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 이유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적절하지 않음
- 이유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 이유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6) 외식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30>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널의 67.8%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인 안전체감도 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응답한 전문가의 78.9%가 보통 이상을 선택하여 패널보다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체감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5-30>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67.8	100.0	2.4	29.8	48.7	18.7	0.4
전문가	78.9	166	1.2	19.9	50.6	27.7	0.6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31>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 40대, 중부권 거주, 100만원대, 중졸 이하, 공무원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자영업, 사무관리직, 무직의 경우 70% 이상의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에서 71.4%로 타 권역에 비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31〉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67.8	-	2.4	29.8	48.7	18.7	0.4	
성별	남	75.9	<.0001	1.6	22.5	49.8	25.3	0.8
	여	59.7		3.2	37.0	47.6	12.2	0.0
연령군별	20대	63.2	0.0831	1.9	34.8	43.2	19.4	0.7
	30대	62.0		2.2	35.8	50.8	10.1	1.1
	40대	72.7		1.0	26.3	49.5	23.2	0.0
	50대	66.7		3.1	30.3	46.2	20.0	0.5
	60대 이상	71.6		3.5	24.9	51.8	19.8	0.0
권역별	수도권	65.6	0.5015	3.1	31.3	49.2	16.1	0.3
	영남권	66.6		1.0	32.4	47.2	19.3	0.0
	중부권	71.4		2.0	26.6	52.8	18.6	0.0
	호남권	69.8		4.1	26.2	45.4	22.7	1.7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69.8	0.5369	4.8	25.4	44.4	25.4	0.0
	100만원대	72.3		1.9	25.8	56.8	14.2	1.3
	200만원대	70.1		2.3	27.7	49.7	19.8	0.6
	300만원대	65.4		2.2	32.4	49.5	15.9	0.0
	400만원대	64.2		1.3	34.6	48.4	15.7	0.0
	500만원 이상	67.4		2.9	29.8	44.1	22.9	0.4
학력별	중졸 이하	69.9	0.8975	3.2	26.9	55.9	12.9	1.1
	고졸	67.4		2.5	30.1	48.1	19.3	0.0
	대졸 이상	67.7		2.3	30.1	47.8	19.3	0.6
직업별	공무원	86.7	0.1141	0.0	13.3	46.7	40.0	0.0
	자영업	72.8		0.0	27.2	50.9	21.9	0.0
	판매 서비스직	66.7		1.8	31.6	54.4	10.5	1.8
	기능직	68.4		0.0	31.6	42.1	23.7	2.6
	사무기술직	65.9		3.2	30.9	47.9	18.0	0.0
	사무관리직	72.6		0.9	26.6	46.9	24.8	0.9
	전문자유직	65.5		0.0	34.5	44.8	20.7	0.0
	주부	61.7		5.7	32.6	51.3	10.4	0.0
	학생	63.0		1.2	35.8	44.4	18.5	0.0
무직	77.8	1.1	21.1	47.8	28.9	1.1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5-32>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이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조리되는 것을 응답 패널의 41.2%가 선택하여 가장 주된 이유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가 식재료의 사용 선호가 25.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이 19.5%,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이 9.9%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은 3.5%로 나타났다.

<표 5-32>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313	100.0	35	100.0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129	41.2	17	48.6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79	25.2	13	37.1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61	19.5	2	5.7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31	9.9	1	2.9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11	3.5	1	2.9
기타	2	0.6	1	2.9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33>에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은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를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고, 그 외 다른 직종에서는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대졸 이상에서는 저가 식재료 사용,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함을 선택한 비율이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33〉 조사대상자 특성별 외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1.2	19.5	25.2	9.9	3.5	0.6	-
성별	남	39.8	22.9	24.6	10.2	2.5	0.0	0.7042
	여	42.1	17.4	25.6	9.7	4.1	1.0	
연령군별	20대	36.8	17.5	22.8	17.5	5.3	0.0	0.5909
	30대	39.7	20.6	26.5	10.3	1.5	1.5	
	40대	40.7	18.5	25.9	7.4	7.4	0.0	
	50대	35.5	19.4	33.9	8.1	3.2	0.0	
	60대 이상	51.4	20.8	18.1	6.9	1.4	1.4	
권역별	수도권	39.6	16.2	22.5	17.1	3.6	0.9	0.1156
	영남권	47.4	19.0	22.1	5.3	5.3	1.1	
	중부권	42.1	28.1	24.6	3.5	1.8	0.0	
	호남권	32.0	18.0	38.0	10.0	2.0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2.1	15.8	21.1	15.8	5.3	0.0	0.9991
	100만원대	43.9	19.5	24.4	7.3	4.9	0.0	
	200만원대	36.5	23.1	26.9	9.6	1.9	1.9	
	300만원대	47.6	19.1	22.2	7.9	3.2	0.0	
	400만원대	42.1	15.8	22.8	14.0	3.5	1.8	
	500만원 이상	36.7	21.5	29.1	8.9	3.8	0.0	
학력별	중졸 이하	46.2	26.9	15.4	7.7	3.9	0.0	0.2250
	고졸	48.7	20.5	19.7	6.8	4.3	0.0	
	대졸 이상	35.3	17.7	30.6	12.4	2.9	1.2	
직업별	공무원	100.0	0.0	0.0	0.0	0.0	0.0	0.8781
	자영업	41.9	25.8	22.6	6.5	3.2	0.0	
	판매 서비스직	47.4	26.3	15.8	5.3	5.3	0.0	
	기능직	41.7	8.3	16.7	25.0	8.3	0.0	
	사무기술직	39.7	21.9	21.9	12.3	4.1	0.0	
	사무관리직	25.8	16.1	48.4	6.5	3.2	0.0	
	전문자유직	40.0	20.0	20.0	10.0	10.0	0.0	
	주부	45.9	17.7	25.9	5.9	2.4	2.4	
	학생	40.0	13.3	23.3	20.0	3.3	0.0	
	무직	40.0	25.0	25.0	10.0	0.0	0.0	

- 이유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 이유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 이유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 이유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 이유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7) 단체급식의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34>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984명중 단체급식에 참여한 총 507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4.2%가 보통 이상 응답하여 전반적인 체감도보다 약간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전문가 166명 중 114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86.0%가 보통 이상을 선택하였다. 전체 안전체감도 90.4%보다 4.4% 낮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매우 불안을 선택한 전문가는 없었다.

<표 5-34>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74.2	100.0	3.0	22.9	40.0	32.0	2.2
전문가	86.0	100.0	-	14.0	36.0	42.1	7.9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35>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분야별 안전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로 조사대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자, 40대, 호남권 거주자,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판매 서비스직 상대적으로 타 계층에 비해 안전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령군별, 권역별을 제외하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개 세부영역 중 단체급식에서만 남녀의 체감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다. 판매 서비스직,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기능직, 무직의 경우 80%이상의 응답자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고, 학생의 경우 61.4%만이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여 가장 안전체감도가 낮은 직군으로 나타났다. 40대와 60대 이상, 호남권, 월소득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에서 80% 이상의 패널 응답자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표 5-35〉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의 안전체감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74.2	-	3.0	22.9	40.0	32.0	2.2
성별	남	0.5361	3.4	23.5	36.9	34.2	2.0
	여		2.4	22.0	44.5	28.7	2.4
연령군별	20대	0.0004	4.3	31.2	35.5	28.0	1.1
	30대		7.3	29.2	38.5	25.0	0.0
	40대		3.1	12.5	46.9	34.4	3.1
	50대		1.0	26.5	34.7	34.7	3.1
	60대 이상		0.0	16.9	43.6	36.3	3.2
권역별	수도권	0.0030	5.8	30.3	31.0	31.0	1.9
	영남권		0.6	23.2	45.7	29.9	0.6
	중부권		1.9	19.4	42.6	31.5	4.6
	호남권		3.8	12.5	42.5	38.8	2.5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0.7262	4.4	8.7	47.8	34.8	4.4
	100만원대		1.5	26.5	44.1	27.9	0.0
	200만원대		4.3	18.3	32.3	43.0	2.2
	300만원대		3.3	23.1	46.2	23.1	4.4
	400만원대		1.3	25.0	45.0	27.5	1.3
500만원 이상	2.7	25.3	35.3	34.7	2.0		
학력별	중졸 이하	0.1272	0	11.43	62.86	25.71	0
	고졸		2.2	25.27	38.46	31.32	2.75
	대졸 이상		3.79	22.76	38.28	33.1	2.07
직업별	공무원	0.3658	0.0	36.4	18.2	45.5	0.0
	자영업		5.3	26.3	38.6	28.1	1.8
	판매 서비스직		0.0	16.0	52.0	28.0	4.0
	기능직		4.0	16.0	36.0	44.0	0.0
	사무기술직		3.0	23.3	38.4	33.1	2.3
	사무관리직		1.6	19.7	39.3	36.1	3.3
	전문자유직		0.0	31.3	56.3	12.5	0.0
	주부		2.4	22.6	47.6	26.2	1.2
	학생		9.1	29.6	31.8	29.6	0.0
무직	0.0	17.7	37.3	39.2	5.9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5-36>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불안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보통 미만으로 응답한 총1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급식관리자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대상자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23.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교육/홍보부족을 선택한 대상자는 0.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5-36>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133	100.0	16	100.0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57	42.9	5	31.3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31	23.3	5	31.3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19	14.3	-	-
정부의 관리 미흡	14	10.5	2	12.5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9	6.8	2	12.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1	0.8	-	-
기타	2	1.5	2	12.5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37>에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부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녀 모두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안전의식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대신 여성은 정부의 관리 미흡,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품으로 식중독 발생을 각각 11.1%, 4.94% 남성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20, 30, 60대는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응답하였고, 40, 50대에서 저급한 식자재 사용을 주요 이유로 선택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연령군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37〉 조사대상자 특성별 단체급식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42.9	10.5	6.8	14.3	0.8	23.3	1.5	-	
성별	남	48.2	6.2	6.2	12.4	1.2	24.7	1.2	0.3545
	여	34.6	17.3	7.7	17.3	0.0	21.2	1.9	
연령군별	20대	51.5	6.1	0.0	21.2	0.0	21.2	0.0	0.0005
	30대	45.7	20.0	0.0	17.1	0.0	11.4	5.7	
	40대	31.3	6.3	12.5	6.3	0.0	43.8	0.0	
	50대	35.7	3.6	3.6	17.9	0.0	39.3	0.0	
	60대 이상	42.9	14.3	28.6	0.0	4.8	9.5	0.0	
권역별	수도권	38.6	14.0	5.3	14.0	0.0	26.3	1.8	0.7599
	영남권	48.7	7.7	5.1	18.0	0.0	18.0	2.6	
	충부권	34.8	8.7	13.0	17.4	4.4	21.7	0.0	
	호남권	57.1	7.1	7.1	0.0	0.0	28.6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33.3	33.3	0.0	0.0	0.0	33.3	0.0	0.9915
	100만원대	40.0	5.0	10.0	15.0	5.0	25.0	0.0	
	200만원대	42.9	9.5	9.5	23.8	0.0	14.3	0.0	
	300만원대	37.5	12.5	8.3	16.7	0.0	20.8	4.2	
	400만원대	50.0	9.1	9.1	4.6	0.0	27.3	0.0	
	500만원 이상	42.9	11.9	2.4	14.3	0.0	26.2	2.4	
학력별	중졸 이하	50.0	0.0	50.0	0.0	0.0	0.0	0.0	0.1106
	고졸	39.2	9.8	9.8	15.7	2.0	21.6	2.0	
	대졸 이상	44.9	11.5	2.6	14.1	0.0	25.6	1.3	
직업별	공무원	75.0	0.0	0.0	0.0	0.0	25.0	0.0	0.6708
	자영업	36.8	10.5	15.8	10.5	5.3	21.1	0.0	
	판매 서비스직	25.0	25.0	0.0	0.0	0.0	50.0	0.0	
	기능직	60.0	0.0	20.0	0.0	0.0	0.0	20.0	
	사무기술직	44.4	11.1	8.3	16.7	0.0	16.7	2.8	
	사무관리직	38.5	7.7	0.0	7.7	0.0	46.2	0.0	
	전문자유직	80.0	0.0	0.0	20.0	0.0	0.0	0.0	
	주부	28.6	23.8	4.8	19.1	0.0	23.8	0.0	
	학생	47.1	5.9	0.0	17.7	0.0	29.4	0.0	
무직	44.4	0.0	11.1	22.2	0.0	22.2	0.0		

- 이유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이유 2. 정부의 관리 미흡
- 이유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 이유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 이유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 이유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 이유 7.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8)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가) 전체 안전체감도

<표 5-38>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안전체감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패널 응답자의 51.5%로 5개 평가영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얻었다. 작년 상반기 45.6%보다 5.9% 증가한 결과이다. 응답한 전문가의 72.3%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여 5개 세부 영역 중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매우 안전을 선택한 전문가는 없었고, 패널도 극히 낮은 비율이 선택하였다.

<표 5-38>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51.5	100.0	6.2	42.3	41.0	10.4	0.2
전문가	72.3	100.0	4.8	22.9	53.6	18.7	-

나) 세부변수별 안전체감도

<표 5-39>에는 학교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정도에 대해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특성별로 보면 남자, 40대, 호남권 거주, 100만원 미만, 중졸 이하, 기능직의 특성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지만 성별 차이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39〉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체감 정도의 세부변수별 분석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합계	51.5	-	6.2	42.3	41.0	10.4	0.2	
성별	남	55.5	0.0127	4.7	39.8	43.1	12.0	0.4
	여	47.6		7.7	44.7	38.9	8.7	0.0
연령군별	20대	47.7	0.3345	7.1	45.2	36.8	11.0	0.0
	30대	46.9		7.8	45.3	38.6	8.4	0.0
	40대	55.6		6.1	38.4	43.4	11.1	1.0
	50대	54.9		3.6	41.5	45.6	9.2	0.0
	60대 이상	51.4		6.6	42.0	39.7	11.7	0.0
권역별	수도권	47.4	0.2099	6.8	45.8	38.7	8.7	0.0
	영남권	51.7		5.9	42.4	42.1	9.7	0.0
	중부권	53.3		6.0	40.7	42.7	10.1	0.5
	호남권	57.0		5.8	37.2	41.3	15.1	0.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5.6	0.8040	7.9	36.5	36.5	17.5	1.6
	100만원대	55.5		6.5	38.1	45.2	10.3	0.0
	200만원대	53.1		4.5	42.4	41.8	11.3	0.0
	300만원대	48.4		6.0	45.6	42.3	6.0	0.0
	400만원대	50.9		7.6	41.5	42.1	8.8	0.0
	500만원 이상	49.4		5.7	44.9	36.7	12.2	0.4
학력별	중졸 이하	58.1	0.3302	4.3	37.6	46.2	11.8	0.0
	고졸	52.2		6.1	41.7	41.4	10.2	0.6
	대졸 이상	49.9		6.6	43.5	39.7	10.2	0.0
직업별	공무원	53.3	0.8800	6.7	40.0	26.7	20.0	6.7
	자영업	45.6		3.5	50.9	36.0	8.8	0.9
	판매 서비스직	45.6		10.5	43.9	35.1	10.5	0.0
	기능직	60.5		7.9	31.6	39.5	21.1	0.0
	사무기술직	51.2		6.0	42.9	42.4	8.8	0.0
	사무관리직	54.9		2.7	42.5	39.8	15.0	0.0
	전문자유직	55.2		0.0	44.8	48.3	6.9	0.0
	주부	51.7		9.1	39.1	43.9	7.8	0.0
	학생	51.9		7.4	40.7	42.0	9.9	0.0
	무직	53.3		4.4	42.2	41.1	12.2	0.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다) 불안 이유

<표 5-40>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품판매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응답한 패널의 30.0%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정부의 현장 감시,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40>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460	100.0	46	100.0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38	30.0	20	43.5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103	22.4	10	21.7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76	16.5	6	13.0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57	12.4	7	15.2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49	10.7	1	2.2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36	7.8	1	2.2
기타	1	0.2	1	2.2

라) 세부변수별 불안 이유

<표 5-41>에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변수별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남자와 여자 간에 학교주변 판매식품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를 선택한 비율이 4.0% 높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9.9% 더 높았다.

소득별로는 200만원 이상에서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과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를, 100만원 이하에서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 차이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1〉 조사대상자 특성별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이유7	p
합계		30.1	16.6	7.6	22.4	10.7	12.4	0.2	-
성별	남	35.4	18.4	6.6	20.3	10.8	8.5	0.0	0.0248
	여	25.5	15.0	8.5	24.3	10.5	15.8	0.4	
연령군별	20대	20.0	18.8	11.3	27.5	11.3	11.3	0.0	0.2490
	30대	28.0	17.2	9.7	23.7	10.8	10.8	0.0	
	40대	35.3	5.9	4.7	25.9	10.6	17.6	0.0	
	50대	29.8	17.9	6.0	20.2	9.5	16.7	0.0	
	60대 이상	35.0	21.4	6.8	17.1	11.1	7.7	0.9	
권역별	수도권	34.5	13.9	7.3	23.0	8.5	12.7	0.0	0.5571
	영남권	27.4	14.1	5.9	25.9	12.6	13.3	0.7	
	충부권	28.2	24.7	10.6	17.6	10.6	8.2	0.0	
	호남권	27.0	17.6	8.1	20.3	12.2	14.9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18.5	29.6	3.7	18.5	11.1	18.5	0.0	0.5173
	100만원대	18.5	24.6	13.8	18.5	18.5	6.2	0.0	
	200만원대	29.1	17.7	5.1	25.3	10.1	12.7	0.0	
	300만원대	31.1	12.2	8.9	24.4	11.1	12.2	0.0	
	400만원대	29.9	13.0	6.5	20.8	9.1	19.5	1.3	
	500만원 이상	38.3	14.2	6.7	23.3	7.5	10.0	0.0	
학력별	중졸 이하	21.1	31.6	10.5	13.2	13.2	10.5	0.0	0.5064
	고졸	30.5	14.0	8.5	23.8	11.0	11.6	0.6	
	대졸 이상	31.1	16.0	6.6	23.0	10.1	13.2	0.0	
직업별	공무원	42.9	14.3	0.0	14.3	14.3	14.3	0.0	0.8612
	자영업	30.5	16.9	10.2	15.3	11.9	13.6	1.7	
	판매 서비스직	41.4	17.2	3.4	20.7	3.4	13.8	0.0	
	기능직	26.7	6.7	13.3	26.7	20.0	6.7	0.0	
	사무기술직	22.8	20.8	10.9	22.8	10.9	11.9	0.0	
	사무관리직	50.0	18.0	0.0	16.0	6.0	10.0	0.0	
	전문자유직	38.5	15.4	0.0	23.1	7.7	15.4	0.0	
	주부	23.6	13.2	7.5	29.2	10.4	16.0	0.0	
	학생	20.5	17.9	12.8	28.2	10.3	10.3	0.0	
	무직	37.5	15.0	5.0	17.5	17.5	7.5	0.0	

- 이유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이유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 이유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 이유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 이유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 이유 6. 저가의 수입품 대한 안전성 우려
- 이유 7.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9) 정책현안

가) 현안

<표 5-42>에는 현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감독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위생법 등 법, 규정의 개선을 29.8%의 대상자가 선택하여 그 뒤를 이었다.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정부발표의 신뢰성 강화가 각각 8.0%, 7.8%를 차지하였으며, 정부 정책 홍보 강화는 5.3%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5-42>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84	100.0	166	100.0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464	47.2	58	34.9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293	29.8	28	16.9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79	8.0	21	12.7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77	7.8	33	19.9
정부 정책 홍보 강화	52	5.3	8	4.8
기타	19	1.9	18	10.8

나) 세부변수별 현안

<표 5-43>에는 식품안전 현안에 대해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를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였다. 40대 이상에서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를, 40대 이하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43〉 대상자 특성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 비교

(단위: %)

구분		현안1	현안2	현안3	현안4	현안5	현안6	p
합계		7.8	29.8	47.2	5.3	8.0	1.9	-
성별	남	9.2	26.9	48.8	5.1	7.4	2.7	0.1196
	여	6.5	32.6	45.6	5.5	8.7	1.2	
연령군별	20대	7.1	34.8	40.0	9.0	7.1	1.9	0.0032
	30대	6.2	41.9	39.1	6.7	5.0	1.1	
	40대	8.1	30.8	49.5	3.0	6.6	2.0	
	50대	9.2	23.1	49.2	6.2	9.7	2.6	
	60대 이상	8.2	22.6	53.7	3.1	10.5	2.0	
권역별	수도권	6.5	31.6	48.3	5.9	5.6	2.2	0.2290
	영남권	6.9	31.7	48.3	3.5	7.9	1.7	
	충부권	7.5	25.6	46.2	6.5	11.1	3.0	
	호남권	12.2	27.9	44.2	5.8	9.3	0.6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7.9	27.0	49.2	7.9	7.9	0.0	0.4239
	100만원대	3.9	27.7	52.3	4.5	9.7	1.9	
	200만원대	12.4	36.2	39.0	4.5	6.8	1.1	
	300만원대	8.8	25.8	47.8	6.0	9.9	1.7	
	400만원대	8.2	28.3	48.4	5.7	6.3	3.1	
	500만원 이상	6.1	30.2	48.6	4.9	7.8	2.5	
학력별	중졸 이하	10.8	22.6	47.3	3.2	14.0	2.2	0.3774
	고졸	6.9	31.8	46.1	6.4	7.5	1.4	
	대졸 이상	7.9	29.7	47.8	4.9	7.4	2.3	
직업별	공무원	6.7	26.7	60.0	6.7	0.0	0.0	0.7216
	자영업	8.8	26.3	49.1	3.5	11.4	0.9	
	판매 서비스직	7.0	22.8	47.4	10.5	10.5	1.8	
	기능직	10.5	36.8	36.8	7.9	2.6	5.3	
	사무기술직	5.5	35.0	46.1	3.7	6.9	2.8	
	사무관리직	9.7	29.2	50.4	3.5	5.3	1.8	
	전문자유직	6.9	20.7	55.2	10.3	6.9	0.0	
	주부	7.8	30.9	43.9	6.1	9.6	1.7	
	학생	7.4	35.8	39.5	7.4	8.6	1.2	
	무직	10.0	18.9	57.8	3.3	7.8	2.2	

- 현안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 현안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 현안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 현안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 현안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 현안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나. 부가 조사

1) 식품안전인식

가) 영향요인

<표 5-44>에는 평상시 식품안전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가 54.3%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본인 및 가족의 경험, 과학적 사실, 주변 사람의 의견, 정부의 보도 자료가 그 뒤를 이었다.

〈표 5-44〉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84	100.0	166	100.0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534	54.3	99	59.6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87	19.0	11	6.6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135	13.7	49	29.5
주변 사람의 의견	89	9.0	2	1.2
정부의 보도 자료	38	3.9	4	2.4
기타	1	0.1	1	0.6

나) 세부변수별 영향요인

<표 5-45>에는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방송 보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전문자유직은 언론보도보다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표 5-45〉 조사대상자 특성별 영향요인

(단위: %)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p
합계		19.0	13.7	54.3	9.0	3.9	0.1	-
성별	남	18.4	16.7	53.7	6.7	4.3	0.2	0.0159
	여	19.6	10.7	54.9	11.3	3.4	0.0	
연령군별	20대	26.5	15.5	46.5	9.7	1.9	0.0	0.0769
	30대	17.9	11.2	60.3	7.3	3.4	0.0	
	40대	17.2	13.1	61.1	6.1	2.5	0.0	
	50대	15.9	13.3	56.9	10.3	3.6	0.0	
	60대 이상	19.1	15.2	47.5	11.3	6.6	0.4	
권역별	수도권	19.2	13.6	55.1	7.7	4.0	0.3	0.9507
	영남권	17.6	12.4	57.2	10.0	2.8	0.0	
	충부권	19.6	15.6	50.3	10.1	4.5	0.0	
	호남권	20.4	14.0	52.3	8.7	4.7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20.6	11.1	50.8	9.5	7.9	0.0	0.2494
	100만원대	21.3	9.0	54.2	12.3	2.6	0.7	
	200만원대	17.0	11.9	55.4	9.0	6.8	0.0	
	300만원대	20.3	10.4	56.0	9.9	3.3	0.0	
	400만원대	18.9	16.4	50.9	10.1	3.8	0.0	
학력별	500만원 이상	17.6	19.6	55.1	5.7	2.0	0.0	0.0642
	중졸 이하	21.5	7.5	49.5	17.2	4.3	0.0	
	고졸	19.9	12.2	53.9	9.1	5.0	0.0	
직업별	대졸 이상	18.0	15.9	55.4	7.6	3.0	0.2	0.0054
	공무원	6.7	6.7	60.0	20.0	6.7	0.0	
	자영업	16.7	12.3	51.8	14.9	4.4	0.0	
	판매 서비스직	17.5	8.8	61.4	12.3	0.0	0.0	
	기능직	21.1	21.1	44.7	5.3	7.9	0.0	
	사무기술직	19.4	14.8	58.5	4.2	3.2	0.0	
	사무관리직	16.8	15.9	59.3	5.3	2.7	0.0	
	전문자유직	24.1	31.0	27.6	17.2	0.0	0.0	
	주부	18.3	9.1	54.8	12.6	5.2	0.0	
	학생	27.2	14.8	49.4	8.6	0.0	0.0	
무직	18.9	16.7	51.1	4.4	7.8	1.1		

- 요인 1. 본인 및 가족의 경험
- 요인 2.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 요인 3.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 요인 4. 주변 사람의 의견
- 요인 5. 정부의 보도 자료
- 요인 6. 기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불량 식품 근절

가) 인지도

<표 5-46>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응답한 패널 984명의 77.6%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5년 상반기 75.2%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어 정책의 홍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전문가 166명 중 95.2%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패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5-46>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77.6	100.0	5.8	16.7	42.9	31.7	3.0
전문가	95.2	100.0	0.6	4.2	25.3	50.6	19.3

나) 인지도 세부분석

<표 5-47>에는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조사대상 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50대, 중부권, 200만원대, 고졸, 공무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증가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중부권과 호남권의 인지도가 높았다. 소득수준별과 학력별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47〉 조사대상자 특성별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p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합계		77.6	-	5.8	16.7	42.9	31.7	3.0
성별	남	81.8	0.0013	4.3	13.9	41.8	36.1	3.9
	여	73.3		7.3	19.4	43.9	27.3	2.0
연령군별	20대	60.0	<.0001	11.6	28.4	30.3	29.7	0.0
	30대	78.2		3.4	18.4	45.3	32.4	0.6
	40대	76.3		5.6	18.2	45.0	29.8	1.5
	50대	85.6		3.1	11.3	46.7	36.4	2.6
	60대 이상	82.5		6.2	11.3	44.4	30.4	7.8
권역별	수도권	73.4	0.0451	6.5	20.1	39.9	30.7	2.8
	영남권	76.6		5.5	17.9	42.8	32.1	1.7
	중부권	83.4		4.0	12.6	47.2	31.2	5.0
	호남권	80.2		7.0	12.8	43.6	33.7	2.9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66.7	0.1948	12.7	20.6	46.0	20.6	0.0
	100만원대	78.1		5.8	16.1	49.7	25.2	3.2
	200만원대	80.2		6.2	13.6	48.0	28.8	3.4
	300만원대	78.6		6.0	15.4	47.3	29.1	2.2
	400만원대	78.6		4.4	17.0	42.1	35.9	0.6
	500만원 이상	77.1		4.1	18.8	31.4	40.4	5.3
학력별	중졸 이하	74.2	0.5780	8.6	17.2	51.6	18.3	4.3
	고졸	79.0		5.3	15.8	48.3	29.0	1.7
	대졸 이상	77.1		5.7	17.2	37.62	35.9	3.6
직업별	공무원	93.3	0.0020	0.0	6.7	33.3	46.7	13.3
	자영업	79.8		4.4	15.8	51.8	24.6	3.5
	판매 서비스직	73.7		10.5	15.8	57.9	14.0	1.8
	기능직	86.8		2.6	10.5	52.6	31.6	2.6
	사무기술직	77.4		4.6	18.0	37.8	37.8	1.8
	사무관리직	83.2		2.7	14.2	38.1	40.7	4.4
	전문자유직	86.2		0.0	13.8	27.6	51.7	6.9
	주부	77.4		6.1	16.5	48.3	26.5	2.6
	학생	58.0		13.6	28.4	34.6	23.5	0.0
	무직	78.9		7.8	13.3	36.7	37.8	4.4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다)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

<표 5-48>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43.8%가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19.38%),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9.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48>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합계	984	100.0	166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31	43.8	48	28.9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95	19.8	59	35.5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189	19.2	44	26.5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87	8.8	4	2.4
정부의 단속 소홀	79	8.0	8	4.8
기타	3	0.3	3	1.8

라) 불량식품 미근절 사유에 대한 세부분석

<표 5-49>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변수별로 분석한 세부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불량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60대 이상에서 더욱 강했다 (50% 이상). 중졸이하의 정부의 단속 소홀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졸 이상은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49〉 조사대상자 특성별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이유1	이유2	이유3	이유4	이유5	이유6	p
합계		43.8	19.8	19.2	8.8	8.0	0.3	-
성별	남	45.5	17.1	20.6	7.1	9.0	0.6	0.0287
	여	42.1	22.5	17.8	10.5	7.1	0.0	
연령군별	20대	33.6	19.4	15.5	20.7	10.3	0.7	<.0001
	30대	39.7	20.1	19.0	13.4	7.3	0.6	
	40대	45.0	18.2	26.8	6.1	4.0	0.0	
	50대	43.6	23.6	20.5	4.6	7.7	0.0	
	60대 이상	52.1	18.3	14.8	3.9	10.5	0.4	
권역별	수도권	41.5	21.1	22.6	7.7	6.5	0.6	0.5208
	영남권	42.4	18.3	19.0	11.4	8.6	0.3	
	중부권	50.3	19.1	15.1	7.5	8.0	0.0	
	호남권	43.0	20.9	18.0	8.1	9.9	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44.4	15.9	19.1	6.4	14.3	0.0	0.2591
	100만원대	42.6	20.0	15.5	10.3	11.0	0.7	
	200만원대	44.6	19.2	18.1	7.9	10.2	0.0	
	300만원대	37.9	25.3	18.1	11.5	6.6	0.6	
	400만원대	41.5	20.8	20.1	11.3	6.3	0.0	
	500만원 이상	50.2	16.3	22.0	5.7	5.3	0.4	
학력별	중졸 이하	50.5	15.1	14.0	4.3	16.1	0.0	0.0036
	고졸	45.9	20.2	15.8	9.1	9.1	0.0	
	대졸 이상	41.2	20.4	22.5	9.5	5.9	0.6	
직업별	공무원	33.3	26.7	26.7	6.7	6.7	0.0	0.6854
	자영업	50.9	19.3	18.4	5.3	6.1	0.0	
	판매 서비스직	43.9	15.8	22.8	12.3	5.3	0.0	
	기능직	44.7	10.5	21.1	13.2	10.5	0.0	
	사무기술직	38.3	21.2	23.0	9.7	7.4	0.5	
	사무관리직	48.7	17.7	19.5	6.2	8.0	0.0	
	전문자유직	41.4	17.2	24.1	10.3	6.9	0.0	
	주부	45.2	23.5	16.5	7.0	7.8	0.0	
	학생	33.3	21.0	17.3	17.3	9.9	1.2	
	무직	50.0	15.6	13.3	7.8	12.2	1.1	

- 이유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 이유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이유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 이유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 이유 5. 정부의 단속 소홀
- 이유 6. 기타

*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안항이 3명 있어 전체 응답자 수가 981명임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2015년 하반기 패널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5-50>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14년 하반기 73.2%에 비해 6.4% 안전체감도가 증가하였다. 세부영역별로도 모두 50% 이상의 안전체감도를 보여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감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이 가장 안전체감도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5-50>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패널)

(단위 :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	79.6	984	1.1	19.3	53.0	26.2	0.4
수입식품 안전	56.6	984	5.2	38.2	41.1	14.9	0.6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70.7	984	1.6	27.6	49.5	20.3	0.9
외식 안전	67.8	984	2.4	29.8	48.7	18.7	0.4
단체급식 안전	74.2	507	3.0	22.9	40.0	32.0	2.2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51.5	984	6.2	42.3	41.0	10.4	0.2

나. 2015년 상반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는 <표 5-5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문가에서도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이 가장 안전체감도가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체감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패널에 비해 전체 영역에서 높은 안전체감도를 보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5-51〉 2015년 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단위 :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합계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	90.4	166	0.6	9.0	37.4	50.0	3.0
수입식품 안전	72.9	166	2.4	24.7	50.0	20.5	2.4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86.8	166	0.6	12.7	32.5	53.0	1.2
외식 안전	78.9	166	1.2	19.9	50.6	27.7	0.6
단체급식 안전	86.0	114	-	14.0	3.06	42.1	7.9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72.3	166	4.8	22.9	53.6	18.7	-

다. 남자, 40대 이상, 무직/자영업/사무관리직, 1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이상 소득, 중부권, 고졸 조사대상계층의 식품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여자, 20~30대, 200만원대 소득, 수도권, 판매업/전문직/학생 조사대상계층의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라.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중졸이하에서 고졸 이상보다 안전체감도가 낮은 것과 40대를 기준으로 그 아래 연령층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40대 이상 연령층과 차별화 된 것은 작년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체감도가 낮아지다가 200만원대에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V자 형태의 분포를 보인 것 역시 작년과 동일하였다.

마. 전문가의 식품안전체감도가 90.4%로 79.6%인 패널보다 10.8%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성에 의한 체감을 하는 반면, 일반인이 패널의 경우 경험 등에 의한 감성에 의한 체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 향후 일반인과 전문가간의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소통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바. 부가조사 결과에서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 10가지를 조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 HACCP 적용, 나트륨 정책,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 등에서 추진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음
- 타 정책에 비해 정책홍보 및 실제 활용도가 높은 정책들로 평가됨
- 다만 수입식품 안전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면서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최근 관련 법 제정 등을 인지하면서 안전체감도와 추진체감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음

〈표 5-52〉 2015년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비교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5 상반기	'15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16.0	16.1	24.2	21.0
나트륨 줄이기 운동	12.5	13.1	10.4	11.5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12.2	10.8	12.3	11.1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11.7	10.6	11.4	12.0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9.6	11.4	7.3	9.7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8.9	8.7	8.7	10.0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7.5	8.5	6.1	7.2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7.0	7.4	5.6	5.4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6.8	7.2	7.3	5.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6.0	5.6	6.5	6.6
기타	1.7	0.7	0.2	0.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시사점

가. 조사방법 개선

- 통계청의 조사비용 절감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또 대면조사를 원하는 대상자도 한자리 수인 점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는 대면조사는 조사방법에서 제외함이 바람직

제 6 장

2015년을 포함한 연도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제1절 조사 계획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6

2015년을 포함한 연도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제1절 조사계획

1. 조사대상자

<표 6-1>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식품패널 842명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4장과 제5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반기 조사에는 995명, 하반기 조사에는 984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이 중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842명의 패널만을 대상으로 2015년 상·하반기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6-1> 2015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패널)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842	421	68	77	83	85	108	421	66	74	85	84	112
수도권	275	140	21	31	28	26	34	135	24	24	27	25	35
영남권	249	124	21	19	23	27	34	125	17	26	24	24	34
중부권	173	86	14	15	18	18	21	87	14	14	16	19	24
호남권	145	71	12	12	14	14	19	74	11	10	18	16	19

<표 6-2>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전문가 132명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제4장과 제5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반기 조사에는 162명, 하반기 조사에는 166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이 중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32명의 패널만을 대상으로 2015년 상·하반기 조사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6-2> 2015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현황(전문가)

(단위: 명)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32	82	1	17	27	26	11	50	5	15	15	12	3
수도권	93	57	0	14	21	13	9	36	4	11	8	11	2
영남권	13	8	1	2	1	4	0	5	1	1	2	0	1
중부권	12	9	0	1	4	3	1	3	0	1	2	0	0
호남권	14	8	0	0	1	6	1	6	0	2	3	1	0

2. 조사 성공률

<표 6-3>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식품패널 842명의 현황을 목표인 1,000명 대비 비율로 표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연령군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에서 2회 모두 참여한 식품패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권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호남권에서의 연속 참여 비율이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6-3〉 2015년 상·하반기 조사 연속 참여 패널의 목표대비 비율

(단위: %)

구분	합계	남자						여자					
		남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86.0	86.5	81.4	88.9	90.3	82.4	89.5	85.5	83.1	84.7	86.8	86.3	85.9
수도권	86.4	86.5	78.1	84.6	95.0	81.8	92.3	86.3	87.5	84.8	89.5	81.8	88.0
영남권	86.6	88.0	82.8	93.3	91.2	87.1	84.6	85.2	80.8	80.0	85.3	90.9	88.5
충북권	85.9	86.1	78.9	90.5	85.7	82.6	94.1	85.7	88.2	84.2	90.9	85.7	78.9
호남권	84.2	84.6	88.2	88.9	83.3	76.2	88.2	83.8	71.4	93.8	80.0	86.7	86.7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6-4〉에는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식품패널 842명과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이 분석되어 있다.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그룹이 가장 많았고 (24.7%), 100만원 미만 그룹이 가장 적었다(6.4%)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이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졸이 36.1%, 중졸 이하는 9.3%에 불과하였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23.3%로 가장 많았고, 사무기술직이 23.0%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사무관리직의 비율도 11.8%였고, 공무원과 기능직 및 전문자유직은 각각 1.7%와 3.2%로 적은 수준이었다.

2014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상, 대졸이상 층의 조사계속 참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주부층의 지속 참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표 6-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패널		전문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합계		842	100.0	132	100.0
소득수준 ¹⁾	100만원 미만	54	6.4	-	-
	100만원대	134	15.9	2	1.5
	200만원대	151	17.9	8	6.1
	300만원대	159	18.9	10	7.6
	400만원대	134	15.9	30	22.7
	500만원 이상	208	24.7	82	62.1
교육수준	중졸 이하	78	9.3	-	-
	고졸	304	36.1	-	-
	대졸 이상	460	54.6	132	100.0
직업분류	공무원	14	1.7	11	8.3
	자영업	85	10.1	1	0.8
	판매 서비스직	48	5.7	4	3.0
	기능직	30	3.6	-	-
	사무기술직	194	23.0	27	20.5
	사무관리직	99	11.8	34	25.8
	전문자유직	27	3.2	55	41.7
	주부	196	23.3	-	-
	학생	69	8.2	-	-
	무직	80	9.5	-	-

주) 소득수준의 경우 응답안함이 2명 있어 패널 응답자 수가 840명임

제2절 조사결과

1. 기본조사

가. 전체 식품안전체감도

<표 6-5>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다섯 번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큰폭으로 식품안전체감도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 평균치보다도 약 3% 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2015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는 0.9% 증가하였다. 패널에 비해 전문가의 안전체감도가 상·하반기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6-5>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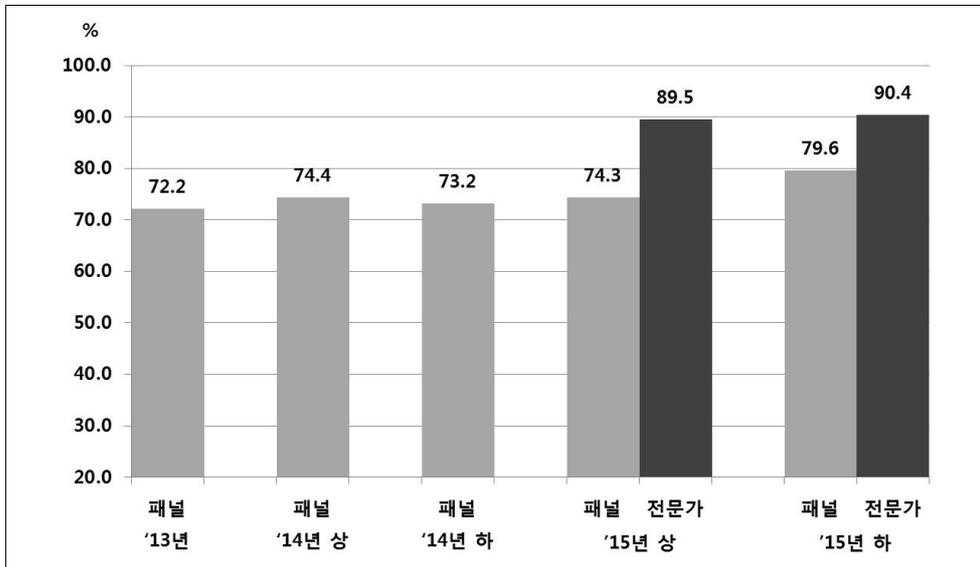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72.2	928	2.1	25.8	54.0	17.2	1.0
	'14년 상반기 조사	74.4	970	1.1	24.4	49.2	24.1	1.1
	'14년 하반기 조사	73.2	974	1.9	25.0	48.5	24.3	0.4
	'14년 상·하반기 평균	73.8	-	1.5	24.7	48.9	24.2	0.8
	'15년 상반기 조사	74.3	995	1.8	23.9	53.4	20.2	0.7
	'15년 하반기 조사	79.6	984	1.1	19.3	53.0	26.2	0.4
	'15년 상·하반기 평균	77.0	-	1.5	21.6	53.2	23.2	0.6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89.5	162	1.2	9.3	45.7	41.4	2.5
	'15년 하반기 조사	90.4	166	0.6	9.0	37.4	50.0	3.0
	'15년 상·하반기 평균	90.0	-	0.9	9.2	41.6	45.7	2.8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그림 6-1]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1]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표 6-6>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42명 패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패널의 67.6%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패널의 18.7%는 하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하였으며,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이 하반기에 ‘보통’과 ‘안전’으로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49.7%, 8.8%였다.

〈표 6-6〉 2015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체감도 일치도 평가

(단위: 명, %)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	
상반기 조사	매우불안	응답수	3	5	8	0	0
		비율	18.8	31.3	50.0	0.0	0.0
	불안	응답수	7	73	96	17	0
		비율	3.6	37.8	49.7	8.8	0.0
	보통	응답수	1	70	290	83	0
		비율	0.2	15.8	65.3	18.7	0.0
	안전	응답수	0	9	49	123	1
		비율	0.0	5.0	26.9	67.6	0.6
	매우안전	응답수	0	1	0	5	1
		비율	0.0	14.3	0.0	71.4	14.3

1) 패널

<표 6-7>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42명 패널을 대상으로 각 세부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비교에 용이하도록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매우 불안은 20점, 불안은 40점, 보통은 60점, 안전은 80점, 매우 안전은 100점씩 등간격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조사보다 하반기 조사의 체감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상·하반기 간 차이가 있었던 변수로는 성별, 연령군별로 50대 이상에서, 권역별로 영남권/중부권/호남권에서, 소득별로 100만원대/300만원대에서,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 직업별로 자영업과 무직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하반기에 약 2.1점, 여성은 1.6점 상승하였으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영남권은 2.3점, 중부권은 2.4점, 호남권은 2.8점이 상승하였다. 100만원대 소득수준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경우 약 4점 가량, 300만원대 소득의 경우 2.6점 상승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인 경우 4.4점, 고졸인 경우 2.3점 상반기보다 상승하였다.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의 경우 상하반기에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자영업 조사대상자의 경우 3.3점, 무직의 경우 5.5점의 안전 체감도의 상승이 나타났다.

〈표 6-7〉 2015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42	59.3	14.9	61.2	14.4	0.0002
성별	남	421	61.9	14.7	64.0	14.4	0.0020
	여	421	56.8	14.6	58.4	13.8	0.0240
연령군별	20대	134	58.1	14.5	59.6	14.6	0.2334
	30대	151	57.1	13.7	57.9	13.3	0.4751
	40대	168	60.6	14.6	61.2	14.3	0.5704
	50대	169	60.4	14.9	63.6	14.4	0.0087
	60대 이상	220	59.8	16.0	62.8	14.6	0.0052
권역별	수도권	275	59.4	15.0	60.2	14.9	0.3717
	영남권	249	59.3	14.6	61.6	14.2	0.0136
	중부권	173	60.0	14.5	62.4	13.5	0.0223
	호남권	145	58.3	15.7	61.1	14.7	0.0345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4	59.3	14.0	61.1	15.7	0.3741
	100만원대	134	56.9	14.5	61.0	12.6	0.0032
	200만원대	151	59.5	15.0	60.5	14.0	0.3336
	300만원대	159	57.7	14.8	60.4	14.5	0.0192
	400만원대	134	59.7	14.3	60.9	14.7	0.3670
	500만원 이상	208	61.8	15.6	62.9	15.1	0.3019
학력별	중졸 이하	78	55.4	14.4	59.7	12.7	0.0234
	고졸	304	59.5	15.3	61.8	14.0	0.0062
	대졸 이상	460	59.8	14.6	61.1	14.9	0.0628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직업별	공무원	14	67.1	16.8	68.6	18.8	0.7202
	자영업	85	60.0	14.8	63.3	14.4	0.0471
	판매 서비스직	48	55.4	16.1	58.8	14.5	0.1459
	기능직	30	60.7	13.4	63.3	11.8	0.2113
	사무기술직	194	59.6	14.5	60.7	14.7	0.2796
	사무관리직	99	61.4	16.5	62.8	14.3	0.3388
	전문자유직	27	61.5	11.0	61.5	14.6	1.000
	주부	196	57.8	13.9	58.8	13.7	0.3234
	학생	69	59.4	14.1	60.6	14.9	0.5204
	무직	80	58.8	16.9	64.3	13.8	0.0033

주) paired t-test

2) 전문가

<표 6-8>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상·하반기 조사 모두에 참여한 132명 전문가 대상으로,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 상하반기 조사간에 안전체감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군별, 권역별, 소득별, 학력별, 직업별 비교에서도 차이가 없는 항목이 더 많았다. 일부 상·하반기간 차이가 있었던 변수로는 연령별로 40대에서, 권역별로 호남권에서, 직업별로 전문자유직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상반기에 비해 4.3점 상승하였으며, 호남권의 경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10점 상승하였다. 직업별로는 전문자유직을 가진 조사대상자의 경우 약 5점 가까이 안전체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6-8〉 2015년 상.하반기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32	66.8	14.8	68.8	14.9	0.0685
성별	남	82	70.7	13.0	72.2	13.2	0.2916
	여	50	60.4	15.4	63.2	15.8	0.1090
연령군별	20대	6	56.7	23.4	56.7	23.4	1.0000
	30대	32	63.1	14.5	64.4	16.6	0.5720
	40대	42	69.5	16.1	73.8	14.3	0.0373
	50대	38	67.9	11.9	70.0	11.2	0.2911
	60대 이상	14	68.6	12.9	65.7	12.2	0.3356
권역별	수도권	93	67.3	15.0	68.0	15.4	0.5927
	영남권	13	72.3	10.1	72.3	13.0	1.0000
	중부권	12	65.0	19.3	70.0	13.5	0.2750
	호남권	14	60.0	11.1	70.0	15.2	0.013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	-	-	-	-
	100만원대	2	30.0	14.1	40.0	28.3	0.5000
	200만원대	8	62.5	16.7	57.5	19.8	0.1705
	300만원대	10	64.0	12.6	70.0	10.5	0.1934
	400만원대	30	66.0	14.0	68.0	17.1	0.4146
	500만원 이상	82	68.8	14.1	70.7	12.6	0.1452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고졸	-	-	-	-	-	-
	대졸 이상	132	66.8	14.8	68.8	14.9	0.0685
직업별	공무원	11	65.5	12.9	65.5	15.7	1.0000
	자영업	1	80.0	.	60.0	.	.
	판매 서비스직	4	65.0	10.0	65.0	19.1	1.0000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27	63.0	16.4	65.9	19.1	0.2119
	사무관리직	34	72.4	13.9	70.6	15.8	0.4468
	전문자유직	55	65.5	14.6	70.2	11.5	0.0021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주) paired t-test

나. 세부영역별 안전체감도

1) 총괄 현황

가) 회차별 안전체감도 비교

<표 6-9>에는 식품안전체감도 세부영역에 대해 패널과 전문가 조사결과를 총 5회차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수입식품 안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5회차에 이르러 급증하였고, 단체급식 안전체감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4회차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대비 수입식품 안전이 2.2% 증가하였고, 그 외 4개 영역(제조·유통식품, 외식, 단체급식, 학교주변 판매식품)에서는 감소하였다.

<표 6-9> 세부영역별 식품안전체감도 회차별 비교

(단위: %)

구분	회차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수입식품 안전	1차	52.9	928	7.8	39.3	42.4	9.7	0.9
	2차	52.1	970	5.9	42.1	41.0	10.7	0.3
	3차	51.5	974	7.9	40.6	38.8	12.3	0.4
	2, 3차 평균	51.8	-	6.9	41.4	39.9	11.5	0.4
	4차	51.3	995	5.0	43.7	37.5	13.4	0.4
	5차	56.6	984	5.2	38.2	41.1	14.9	0.6
	4, 5차 평균	54.0	-	5.1	41.0	39.3	14.2	0.5
제조·유통 식품 안전	1차	79.4	928	1.4	19.2	54.0	24.6	0.9
	2차	77.5	970	1.4	21.0	57.4	19.8	0.3
	3차	78.8	974	1.3	19.9	56.3	21.9	0.6
	2, 3차 평균	78.2	-	1.4	20.5	56.9	20.9	0.5
	4차	69.1	995	2.2	28.6	46.3	22	0.8
	5차	70.7	984	1.6	27.6	49.5	20.3	0.9
	4, 5차 평균	69.9	-	1.9	28.1	47.9	21.2	0.9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외식 안전	1차	74.5	928	2.6	23.0	58.0	16.1	0.4
	2차	69.8	970	2.2	28.0	54.9	14.4	0.5
	3차	74.9	974	1.5	23.6	57.9	16.4	0.5
	2, 3차 평균	72.4	-	1.9	25.8	56.4	15.4	0.5
	4차	68.7	995	3.5	27.7	51.6	16.7	0.5
	5차	67.8	984	2.4	29.8	48.7	18.7	0.4
	4, 5차 평균	68.3	-	3.0	28.8	50.2	17.7	0.5
단체급식 안전	1차	73.4	928	2.4	24.3	46.4	25.8	1.2
	2차	75.7	970	2.5	21.8	42.1	31.8	1.8
	3차	81.3	974	2.7	16.0	45.1	32.8	3.3
	2, 3차 평균	78.5	-	2.6	18.9	43.6	32.3	2.6
	4차	77.2	474	2.3	20.5	41.8	32.5	3
	5차	74.2	507	3.0	22.9	40.0	32.0	2.2
	4, 5차 평균	75.7	-	2.7	21.7	40.9	32.3	2.6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1차	43.0	928	11.1	45.9	34.2	8.4	0.4
	2차	47.7	970	6.3	46.0	36.8	10.6	0.3
	3차	51.6	974	5.7	42.7	38.0	12.9	0.7
	2, 3차 평균	49.7	-	6.0	44.4	37.4	11.8	0.5
	4차	45.6	995	6.3	48	38	7.2	0.4
	5차	51.5	984	6.2	42.3	41.0	10.4	0.2
	4, 5차 평균	48.6	-	6.3	45.2	39.5	8.8	0.3

주) 1차 조사: 2013년 11월
 2차 조사: 2014년 6월~7월
 3차 조사: 2014년 11월~12월
 4차 조사: 2015년 6월~7월
 5차 조사: 2015년 11월~12월

나) 회차별 평균값 비교

<표 6-10>에는 5회차에 걸친 세부영역별 평균 안전체감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가 조사는 2015년부터 조사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2015년 상하반기 현황만 제시되었다.

<표 6-10> 세부영역별 2014년,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평균값 비교

(단위: %)

구분	'14년 대비 증감	패널								전문가	
		2015년				2014년			2013년	2015년	
		평균	상하 대비	하반기	상반기	평균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	2.2	54.0	5.3	56.6	51.3	51.8	51.5	52.1	52.9	72.9	65.4
제조·유통 식품 안전	-8.3	69.9	1.6	70.7	69.1	78.2	78.8	77.5	79.4	86.8	85.2
외식 안전	-4.1	68.3	-0.9	67.8	68.7	72.4	74.9	69.8	74.5	78.9	74.7
단체급식 안전	-2.8	75.7	-3.0	74.2	77.2	78.5	81.3	75.7	73.4	86.0	89.5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	-1.1	48.6	5.9	51.5	45.6	49.7	51.6	47.7	43.0	72.3	60.5

2014년 대비 수입식품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백수오 사건’ 및 ‘가공육의 발암성에 대한 WHO 발표’ 영향 등으로 제조가공식품분야의 안전체감도 하락폭이 8.3%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2) 수입식품의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6-11>에는 수입식품 안전에 대해 패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총 5회차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올해 처음 조사에 추가된 전문가 조사결과는 2015년 상·하반기 결과만 제시되어있다.

<표 6-11>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52.9	928	7.8	39.3	42.4	9.7	0.9
	'14년 상반기 조사	52.1	970	5.9	42.1	41.0	10.7	0.3
	'14년 하반기 조사	51.5	974	7.9	40.6	38.8	12.3	0.4
	'14년 상·하반기 평균	51.8	-	6.9	41.4	39.9	11.5	0.4
	'15년 상반기 조사	51.3	995	5.0	43.7	37.5	13.4	0.4
	'15년 하반기 조사	56.6	984	5.2	38.2	41.1	14.9	0.6
	'15년 상·하반기 평균	54.0	-	5.1	41.0	39.3	14.2	0.5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65.4	162	1.2	33.3	44.4	19.1	1.9
	'15년 하반기 조사	72.9	166	2.4	24.7	50.0	20.5	2.4
	'15년 상·하반기 평균	69.2	-	1.8	29.0	47.2	19.8	2.2

연도별로는 2014년 대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0.6%포인트 감소하였다. 안전의 비율은 2.7%포인트 상승하였고 '불안'과 '매우 불안'의 비율은 0.4%포인트, 1.8%포인트 감소하였다. 회차별로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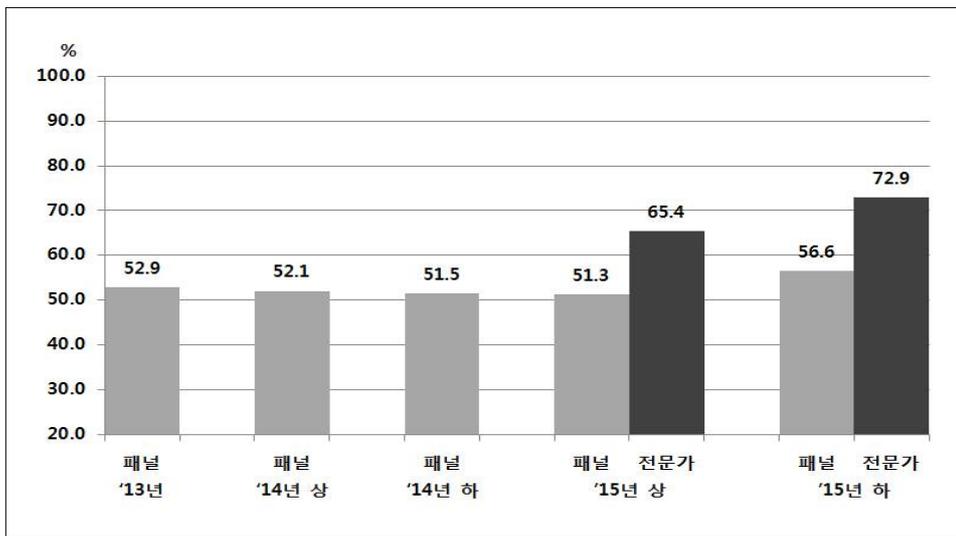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수 있으며, ‘안전’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매우 불안’으로 응답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하였다. 2015년 평균값을 보면 전문가의 안전체감도가 패널보다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2]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일치도

<표 6-12>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42명 패널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 영역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40.0%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36.7%는 보통으로, 22.5%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54.4%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5.8%, 28.0%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52.7%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32.3%는 ‘보통’으로 8.2%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6-12> 2015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단위: 명, %)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
상반기 조사	매우불안	응답수	17	18	7	1	0
		비율	39.5	41.9	16.3	2.3	0.0
	불안	응답수	23	186	114	29	1
		비율	6.5	52.7	32.3	8.2	0.3
	보통	응답수	4	90	175	51	2
		비율	1.2	28.0	54.4	15.8	0.6
	안전	응답수	0	27	44	48	1
		비율	0.0	22.5	36.7	40.0	0.8
	매우안전	응답수	0	1	0	3	0
		비율	0.0	25.0	0.0	75.0	0.0

다) 세부변수별

<표 6-13>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42명 패널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대부분의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득수준별로 100만원대에서 하반기 조사 결과가 상반기 결과에 비하여 3.5점 상승하였다.

<표 6-13> 2015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42	52.6	16.1	53.6	16.3	0.1070	
성별	남	421	54.6	16.5	56.0	16.5	0.1154
	여	421	50.6	15.5	51.2	15.8	0.4948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연령군별	20대	134	56.6	16.9	56.0	16.8	0.7018
	30대	151	50.2	15.6	52.5	16.8	0.0972
	40대	168	52.4	16.1	53.2	16.8	0.5484
	50대	169	50.5	16.9	52.2	15.8	0.2276
	60대 이상	220	53.6	14.9	54.3	15.7	0.5869
권역별	수도권	275	53.1	16.7	52.4	16.6	0.5477
	영남권	249	52.0	15.5	53.9	15.2	0.0640
	충부권	173	52.9	15.7	55.0	16.3	0.1147
	호남권	145	52.4	16.7	53.5	17.6	0.4779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4	55.9	15.7	53.7	16.4	0.3079
	100만원대	134	51.3	14.2	54.8	15.5	0.0256
	200만원대	151	53.0	16.7	53.4	15.1	0.7861
	300만원대	159	50.9	16.0	53.0	17.6	0.1547
	400만원대	134	51.2	15.0	53.1	16.8	0.2143
	500만원 이상	208	54.6	17.5	53.9	16.3	0.5676
학력별	중졸 이하	78	51.5	16.0	53.1	15.7	0.4768
	고졸	304	53.4	16.5	54.5	15.7	0.2801
	대졸 이상	460	52.3	15.9	53.1	16.8	0.3223
직업별	공무원	14	58.6	18.3	61.4	19.9	0.6115
	자영업	85	52.7	15.7	53.2	15.3	0.8072
	판매 서비스직	48	51.3	16.5	54.2	18.9	0.3593
	기능직	30	50.7	17.2	54.7	18.1	0.3514
	사무기술직	194	51.5	16.4	53.7	16.7	0.0769
	사무관리직	99	53.9	17.3	53.7	16.8	0.9020
	전문자유직	27	49.6	15.1	51.1	16.9	0.6632
	주부	196	51.1	15.2	52.2	15.5	0.3656
	학생	69	58.8	17.8	55.1	17.3	0.0907
	무직	80	53.3	13.5	54.3	13.9	0.5198

주) * paired t-test

<표 6-14>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132명 전문가 대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조사보다 하반기 조사가 다소 높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구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6-14〉 2015년 상·하반기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32	58.6	16.6	59.4	16.0	0.5308
성별	남	82	62.9	15.8	62.2	15.7	0.6575
	여	50	51.6	15.7	54.8	15.5	0.0585
연령군별	20대	6	56.7	15.1	60.0	12.6	0.3632
	30대	32	59.4	17.9	57.5	14.1	0.3741
	40대	42	59.5	17.9	61.9	17.0	0.3027
	50대	38	56.3	13.8	57.4	17.5	0.6436
	60대 이상	14	61.4	18.3	61.4	14.6	1.0000
권역별	수도권	93	58.3	16.6	59.6	16.7	0.3455
	영남권	13	67.7	13.0	61.5	12.8	0.1654
	충부권	12	55.0	19.3	53.3	13.0	0.7545
	호남권	14	55.7	16.0	61.4	16.6	0.1039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	-	-	-	-
	100만원대	2	50.0	14.1	60	0	0.5000
	200만원대	8	57.5	16.7	60.0	15.1	0.6845
	300만원대	10	60.0	13.3	60.0	13.3	1.0000
	400만원대	30	57.3	15.5	56.7	13.0	0.7868
	500만원 이상	82	59.3	17.6	60.2	17.6	0.5404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고졸	-	-	-	-	-	-
	대졸 이상	132	58.6	16.6	59.4	16.0	0.5308
직업별	공무원	11	60.0	15.5	58.2	14.0	0.7560
	자영업	1	60.0	.	60.0	.	.
	판매 서비스직	4	55.0	19.1	50.0	11.5	0.3910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27	58.5	17.5	59.3	18.0	0.7130
	사무관리직	34	58.2	18.7	61.2	13.9	0.2574
	전문자유직	55	58.9	15.6	59.3	17.2	0.8494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주) paired t-test

3)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6-15>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다섯 번의 제조·유통식품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체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급락한 후, 하반기 조사에서 다소 상승하였다. ‘불안’의 비율이 2014년 평균에 비해 8.1%포인트 증가하였고, ‘보통’의 비율이 9.0%포인트 감소하였다.

전문가는 2015년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에 안전체감도가 1.6% 증가하였다.

<표 6-15>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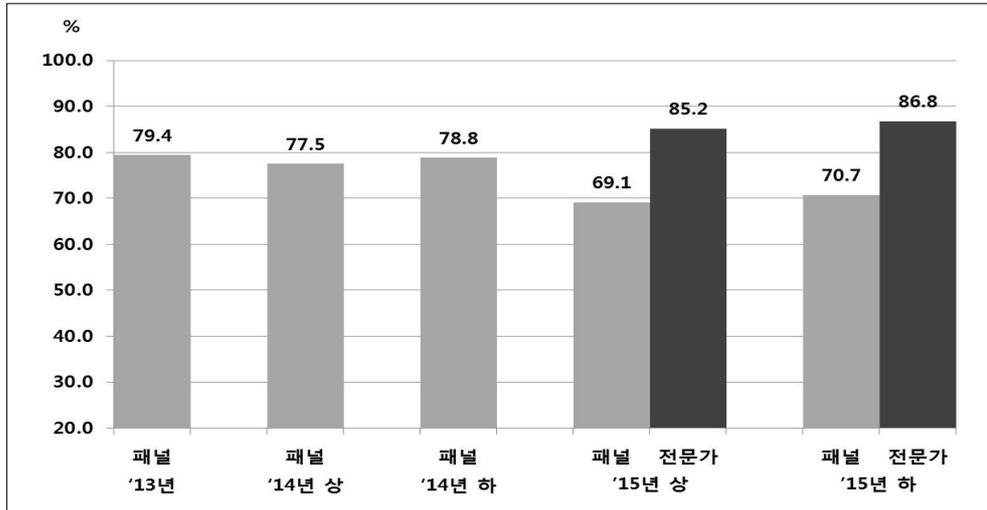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79.4	928	1.4	19.2	54.0	24.6	0.9
	‘14년 상반기 조사	77.5	970	1.4	21.0	57.4	19.8	0.3
	‘14년 하반기 조사	78.8	974	1.3	19.9	56.3	21.9	0.6
	‘14년 상·하반기 평균	78.2	-	1.4	20.5	56.9	20.9	0.5
	‘15년 상반기 조사	69.1	995	2.2	28.6	46.3	22.0	0.8
	‘15년 하반기 조사	70.7	984	1.6	27.6	49.5	20.3	0.9
	‘15년 상·하반기 평균	69.9	-	1.9	28.1	47.9	21.2	0.9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85.2	162	0.0	14.8	38.9	42.6	3.7
	‘15년 하반기 조사	86.8	166	0.6	12.7	32.5	53.0	1.2
	‘15년 상·하반기 평균	86.0	-	0.3	13.8	35.7	47.8	2.5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그림 6-3]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3]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일치도

<표 6-16>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42명 패널을 대상으로,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46.0%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38.9%는 보통으로, 13.6%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64.0%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7.2%, 21.4%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48.5%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41.7%는 ‘보통’으로 6.8%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표 6-16〉 2015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단위: 명, %)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
상반기 조사	매우불안	응답수	8	7	2	0	1
		비율	44.4	38.9	11.1	0.0	5.6
	불안	응답수	6	114	98	16	1
		비율	2.6	48.5	41.7	6.8	0.4
	보통	응답수	2	82	234	66	0
		비율	0.5	21.4	60.9	17.2	0.0
	안전	응답수	0	27	77	91	3
		비율	0.0	13.6	38.9	46.0	1.5
	매우안전	응답수	0	1	1	2	3
		비율	0.0	14.3	14.3	28.6	42.9

다) 세부변수별

〈표 6-17〉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42명 패널을 대상으로,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거의 모든 세부변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직업별로 자영업자 그룹에서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의 체감도가 5.4점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소득수준별로 100만원대의 안전체감도는 상·하반기 결과에 차이가 없었다.

〈표 6-17〉 2015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42	58.6	15.9	58.3	15.4	0.5854	
성별	남	421	61.5	15.8	61.1	15.3	0.6256
	여	421	55.7	15.4	55.5	14.9	0.7728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연령군별	20대	134	58.2	15.4	57.6	14.7	0.6679
	30대	151	54.8	16.2	55.2	15.4	0.7729
	40대	168	61.2	15.4	59.5	15.5	0.1493
	50대	169	58.2	15.7	59.5	15.0	0.2889
	60대 이상	220	59.7	15.9	58.9	15.7	0.4951
권역별	수도권	275	58.0	16.0	57.6	15.3	0.7029
	영남권	249	58.5	14.9	58.7	14.6	0.8064
	중부권	173	60.6	15.8	58.6	15.5	0.1132
	호남권	145	57.7	17.2	58.5	16.5	0.6032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4	59.6	15.3	59.3	17.4	0.8637
	100만원대	134	57.6	15.9	57.6	14.9	1.0000
	200만원대	151	58.5	15.3	58.8	15.2	0.8495
	300만원대	159	56.5	16.6	55.3	14.8	0.3471
	400만원대	134	60.0	15.1	58.5	13.8	0.2936
	500만원 이상	208	59.7	16.3	60.3	16.4	0.5754
학력별	중졸 이하	78	56.2	14.8	57.2	15.0	0.6307
	고졸	304	59.3	15.8	58.1	14.7	0.2234
	대졸 이상	460	58.6	16.1	58.6	15.8	0.9525
직업별	공무원	14	70.0	15.2	62.9	13.3	0.0548
	자영업	85	62.8	15.2	57.4	15.4	0.0019
	판매 서비스직	48	57.5	15.2	57.1	15.4	0.8747
	기능직	30	55.3	18.0	62.0	15.2	0.0304
	사무기술직	194	58.5	15.4	59.4	15.8	0.3671
	사무관리직	99	59.8	17.7	59.6	16.7	0.9005
	전문자유직	27	57.0	14.4	57.8	14.0	0.8017
	주부	196	56.5	15.4	55.5	14.8	0.4125
	학생	69	57.7	15.5	56.8	13.6	0.6714
무직	80	59.3	15.7	61.8	15.7	0.2275	

주) paired t-test

<표 6-18>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132명 전문가 대상으로, 제조·유통식품의 안전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조사결과보다 하반기 조사결과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다소 높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세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18〉 2015년 상·하반기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32	67.6	15.9	68.0	15.2	0.7462		
성별	남	82	70.0	15.2	72.0	12.5	0.2790	
	여	50	63.6	16.5	61.6	17.1	0.3745	
연령군별	20대	6	53.3	10.3	63.3	15.1	0.2031	
	30대	32	64.4	17.4	64.4	15.8	1.0000	
	40대	42	67.6	15.3	71.9	15.3	0.0596	
	50대	38	70.0	15.2	66.3	15.5	0.1467	
	60대 이상	14	74.3	14.5	71.4	10.3	0.5830	
권역별	수도권	93	68.0	16.7	67.3	15.5	0.7239	
	영남권	13	69.2	13.2	70.8	13.2	0.6727	
	충부권	12	68.3	13.4	71.7	13.4	0.3388	
	호남권	14	62.9	15.4	67.1	16.8	0.1894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	-	-	-	-	
	100만원대	2	50.0	14.1	50.0	14.1	.	
	200만원대	8	65.0	17.7	62.5	16.7	0.5983	
	300만원대	10	70.0	14.1	66.0	13.5	0.5554	
	400만원대	30	64.7	13.6	68.0	15.4	0.1340	
500만원 이상	82	69.0	16.7	69.3	15.1	0.8990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고졸	-	-	-	-	-	-
		대졸 이상	132	67.6	15.9	68.0	15.2	0.7462
	직업별	공무원	11	63.6	15.0	63.6	17.5	1.0000
자영업		1	80.0	.	80.0	.	.	
판매 서비스직		4	60.0	16.3	60.0	16.3	.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27	65.2	17.2	65.2	17.2	1.0000	
사무관리직		34	69.4	15.8	72.4	13.9	0.3435	
전문자유직		55	68.7	15.8	68.0	14.2	0.7091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주) paired t-test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4) 외식의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6-19>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다섯 번의 외식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도별로는 패널 중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4년 대비 4.1%포인트 감소하였다. 2014년 하반기 조사에서 상승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에 4.2%포인트 상승하였다. 2015년 평균 패널의 체감도에 비하여 전문가의 체감도는 9.5%포인트 높았다.

<표 6-19>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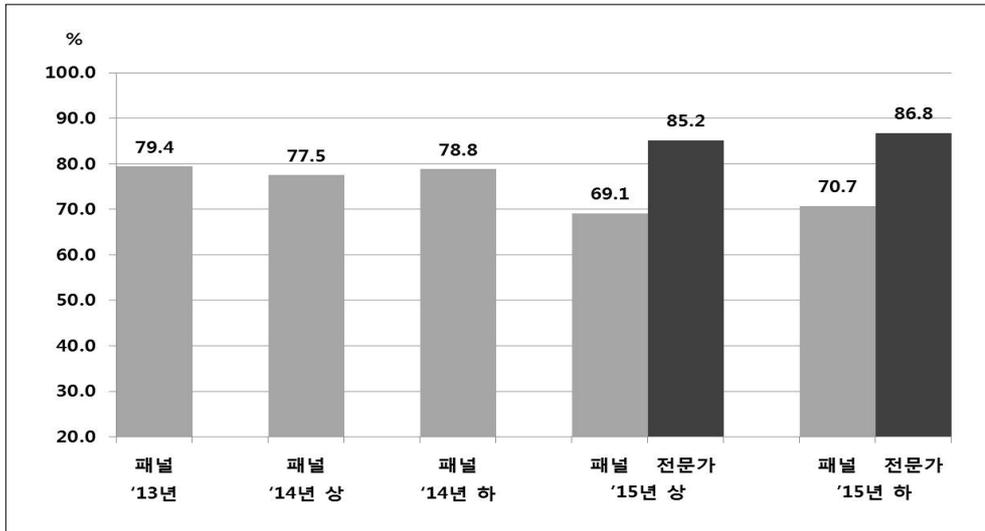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74.5	928	2.6	23.0	58.0	16.1	0.4
	‘14년 상반기 조사	69.8	970	2.2	28.0	54.9	14.4	0.5
	‘14년 하반기 조사	74.9	974	1.5	23.6	57.9	16.4	0.5
	‘14년 상·하반기 평균	72.4	-	1.9	25.8	56.4	15.4	0.5
	‘15년 상반기 조사	68.7	995	3.5	27.7	51.6	16.7	0.5
	‘15년 하반기 조사	67.8	984	2.4	29.8	48.7	18.7	0.4
	‘15년 상·하반기 평균	68.3	-	3.0	28.8	50.2	17.7	0.5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74.7	162	3.7	21.6	50.6	23.5	0.6
	‘15년 하반기 조사	78.9	166	1.2	19.9	50.6	27.7	0.6
	‘15년 상·하반기 평균	76.8	-	2.5	20.8	50.6	25.6	0.6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그림 6-4]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4]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일치도

<표 6-20>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42명 패널을 대상으로, 외식의 안전 영역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49.3%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43.3%는 보통으로, 6.7%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57.5%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5.7%, 25.2%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50.0%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40.8%는 ‘보통’으로 4.1%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하반기에 보통으로 돌아선 것이 전체 체감도를 상승시키는 주요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20> 2015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단위: 명, %)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
상반기 조사	매우불안	응답수	8	15	3	4	0
		비율	26.7	50.0	10.0	13.3	0.0
	불안	응답수	10	109	89	9	1
		비율	4.6	50.0	40.8	4.1	0.5
	보통	응답수	5	111	253	69	2
		비율	1.1	25.2	57.5	15.7	0.5
	안전	응답수	0	10	65	74	1
		비율	0.0	6.7	43.3	49.3	0.7
	매우안전	응답수	0	1	1	2	0
		비율	0.0	25.0	25.0	50.0	0.0

다) 세부변수별

<표 6-21>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42명 패널을 대상으로, 외식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상·하반기 체감도 점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층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수준별 300만원대와 직업별 구분 중 자영업자에서 상·하반기 체감도 점수가 동일하였다.

<표 6-21> 2015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42	57.1	15.2	57.0	15.3	0.7957	
성별	남	421	59.5	15.1	60.4	15.3	0.2455
	여	421	54.8	15.0	53.6	14.5	0.0933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연령군별	20대	134	56.4	15.9	56.1	15.4	0.8423
	30대	151	55.6	15.1	54.8	15.0	0.5462
	40대	168	59.9	14.1	59.0	14.7	0.4546
	50대	169	56.6	15.1	57.2	15.9	0.6302
	60대 이상	220	57.0	15.6	57.4	15.4	0.7397
지역별	수도권	275	56.1	16.7	55.9	15.5	0.8295
	영남권	249	57.2	14.1	57.4	14.5	0.7907
	중부권	173	57.9	14.5	57.1	14.4	0.4961
	호남권	145	58.2	14.9	58.3	17.2	0.9248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4	59.6	15.8	57.4	17.0	0.3706
	100만원대	134	56.0	15.1	57.5	14.4	0.3239
	200만원대	151	56.8	14.4	58.0	15.4	0.3363
	300만원대	159	56.0	14.5	56.0	14.7	1.0000
	400만원대	134	58.1	14.7	55.7	13.7	0.0591
	500만원 이상	208	57.9	16.5	57.8	16.6	0.9326
학력별	중졸 이하	78	56.9	14.4	56.7	14.2	0.8740
	고졸	304	56.6	15.8	56.5	15.3	0.8900
	대졸 이상	460	57.5	15.0	57.4	15.5	0.8601
직업별	공무원	14	62.9	13.3	65.7	14.5	0.3356
	자영업	85	59.3	12.9	59.3	14.3	1.0000
	판매 서비스직	48	55.4	16.6	56.7	14.5	0.6359
	기능직	30	56.7	14.0	60.7	17.0	0.2266
	사무기술직	194	58.1	13.5	56.4	15.4	0.1004
	사무관리직	99	58.4	16.6	59.0	15.7	0.6418
	전문자유직	27	55.6	16.9	58.5	14.6	0.3811
	주부	196	54.6	15.1	53.0	15.1	0.1378
	학생	69	57.1	18.6	56.2	14.7	0.7039
	무직	80	58.0	15.8	61.0	14.9	0.1467

주) paired t-test

<표 6-22>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132명 전문가 대상으로, 외식의 안전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대부분의 층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않았다. 다만 소득수준별 300만원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하반기 체감도가 상반기에 비하여 8점 하락하였다. 200만원대의 상.하반기 결과는 동일하였다.

〈표 6-22〉 2015년 상.하반기 외식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32	59.5	16.3	61.1	15.3	0.2711	
성별	남	82	60.7	16.8	62.9	15.1	0.2184
	여	50	57.6	15.5	58.0	15.3	0.8549
연령군별	20대	6	50.0	16.7	63.3	15.1	0.2856
	30대	32	56.3	14.8	58.1	16.4	0.5720
	40대	42	62.4	17.2	62.9	15.7	0.7998
	50대	38	61.6	14.2	62.6	13.3	0.6436
	60대 이상	14	57.1	20.5	57.1	17.3	1.0000
권역별	수도권	93	59.1	16.1	58.7	15.3	0.7909
	영남권	13	61.5	12.8	66.2	12.6	0.3370
	충부권	12	60.0	14.8	68.3	13.4	0.0960
	호남권	14	60.0	22.2	65.7	16.5	0.1648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	-	-	-	-
	100만원대	2	30.0	14.1	70.0	14.1	0.2952
	200만원대	8	55.0	14.1	55.0	14.1	1.0000
	300만원대	10	66.0	9.7	58.0	14.8	0.0368
	400만원대	30	58.7	15.7	61.3	16.6	0.3545
	500만원 이상	82	60.2	16.8	61.7	15.1	0.3689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고졸	-	-	-	-	-	-
	대졸 이상	132	59.5	16.3	61.1	15.3	0.2711
직업별	공무원	11	61.8	14.0	61.8	14.0	1.0000
	자영업	1	60.0	.	40.0	.	.
	판매 서비스직	4	60.0	16.3	55.0	10.0	0.6376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27	58.5	16.6	63.0	16.4	0.2067
	사무관리직	34	60.6	18.1	57.6	18.3	0.3041
	전문자유직	55	58.9	16.1	62.9	13.0	0.0472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5) 단체급식의 안전

가) 안전체감도

<표 6-23>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다섯 번의 단체급식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대상으로 조사한 안전체감도의 평균값이 작년대비 약 2.8% 정도 감소하였지만, 2013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2.3%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80%를 상회한 후 계속하여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 체감도는 3.5%포인트 하락하였다. 2015년 평균 체감도는 전문가가 패널에 비하여 약 12%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6-23>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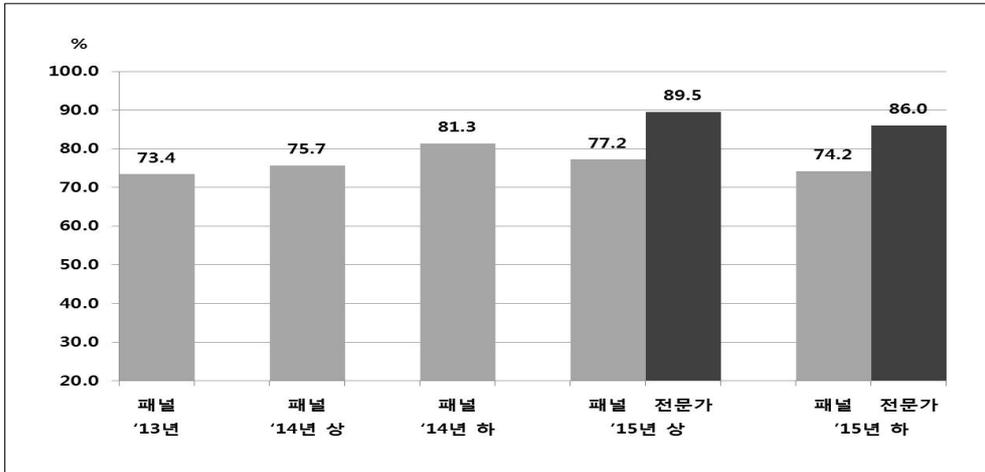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73.4	928	2.4	24.3	46.4	25.8	1.2
	'14년 상반기 조사	75.7	560	2.5	21.8	42.1	31.8	1.8
	'14년 하반기 조사	81.3	512	2.7	16.0	45.1	32.8	3.3
	'14년 상·하반기 평균	78.5	-	2.6	18.9	43.6	32.3	2.6
	'15년 상반기 조사	77.2	474	2.3	20.5	41.8	32.5	3.0
	'15년 하반기 조사	74.2	507	3.0	22.9	40.0	32.0	2.2
	'15년 상·하반기 평균	75.7	-	2.7	21.7	40.9	32.3	2.6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89.5	114	0.9	9.7	38.6	47.4	3.5
	'15년 하반기 조사	86.0	114	-	14.0	36.0	42.1	7.9
	'15년 상·하반기 평균	87.8	-	0.9	11.9	37.3	44.8	5.7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그림 6-5]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5]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일치도

<표 6-24>에는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297명 패널을 대상으로, 그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단체급식의 경우 2014년 상반기부터 직접 관련이 없는 패널은 응답하지 않게 함에 따라 타 영역에 비해 응답수가 적은 편이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64.2%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27.4%는 보통으로, 5.7%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60.5%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6.8%, 20.2%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51.9%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33.3%는 ‘보통’으로 9.3%는 안전으로 조사되었다.

〈표 6-24〉 2015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단위: 명, %)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
상반기 조사	매우불안	응답수	4	1	1	0	0
		비율	66.7	16.7	16.7	0.0	0.0
	불안	응답수	3	28	18	5	0
		비율	5.6	51.9	33.3	9.3	0.0
	보통	응답수	3	24	72	20	0
		비율	2.5	20.2	60.5	16.8	0.0
	안전	응답수	0	6	29	68	3
		비율	0.0	5.7	27.4	64.2	2.8
	매우안전	응답수	0	0	0	7	5
		비율	0.0	0.0	0.0	58.3	41.7

다) 세부변수별

<표 6-25>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396명 패널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5점 척도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전체 체감도는 상반기 점수에 비하여 하반기 점수가 2.1점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하반기 점수가 57.4점으로 상반기에 비하여 4.6점 감소하였고, 소득별로는 주부에서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 점수가 5.4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 외 구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표 6-25> 2015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396	63.5	17.2	61.4	17.2	0.0353	
성별	남	242	63.1	17.5	61.7	17.7	0.1309
	여	154	64.2	16.6	61.1	16.6	0.1314
연령군별	20대	77	59.0	17.4	58.5	18.1	0.5682
	30대	81	57.3	15.4	55.6	17.5	0.8636
	40대	86	65.3	18.3	64.0	16.5	0.2767
	50대	76	68.4	16.4	62.1	18.1	0.0571
	60대 이상	76	67.6	15.3	65.4	14.9	0.4028
권역별	수도권	122	62.0	18.1	57.4	18.5	0.0463
	영남권	118	61.4	16.3	61.6	14.7	0.7594
	충부권	96	66.9	17.1	63.5	18.1	0.1052
	호남권	60	65.3	16.4	65.7	17.1	1.0000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21	62.9	17.1	65.7	18.0	1.0000
	100만원대	46	60.9	17.4	59.3	15.7	0.6009
	200만원대	65	64.3	17.9	63.3	18.7	0.6073
	300만원대	64	63.8	18.8	60.2	17.5	0.0768
	400만원대	78	63.1	16.1	60.3	15.8	0.1317
	500만원 이상	122	64.3	16.7	62.2	17.2	0.5742
학력별	중졸 이하	12	61.7	13.4	63.3	11.8	0.7318
	고졸	124	63.9	18.7	61.4	17.4	0.0705
	대졸 이상	260	63.4	16.6	61.2	17.7	0.2264
직업별	공무원	10	68.0	19.3	64.0	18.4	0.5983
	자영업	39	61.5	16.8	58.2	18.7	0.5009
	판매 서비스직	15	65.3	23.3	63.6	15.9	1.0000
	기능직	16	67.5	16.1	63.0	17.5	0.2620
	사무기술직	122	63.4	17.4	62.5	17.5	0.2181
	사무관리직	56	67.1	17.2	64.0	17.0	0.6606
	전문자유직	16	62.5	12.4	56.3	13.1	0.6761
	주부	48	65.4	14.7	60.0	16.1	0.0231
	학생	37	57.3	18.4	55.4	19.5	0.5743
	무직	37	60.5	16.7	65.0	16.2	0.8019

주) paired t-test

<표 6-26>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90명 전문가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안전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모든 층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득수준별 400만원대의 상.하반기 결과는 동일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표 6-26〉 2015년 상·하반기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90	68.7	15.3	68.1	13.8	0.2194	
성별	남	59	69.2	13.6	68.7	13.2	0.3588
	여	31	67.7	18.4	67.1	15.1	0.4153
연령군별	20대	3	53.3	11.5	60.0	20.0	0.6667
	30대	23	66.1	15.3	62.7	14.2	0.5409
	40대	32	70.6	16.1	70.6	13.4	0.3262
	50대	23	69.6	15.8	71.3	11.8	0.4962
	60대 이상	9	71.1	10.5	66.7	16.3	0.6952
권역별	수도권	62	68.4	14.7	66.7	14.6	0.1964
	영남권	8	75.0	9.3	70.0	15.1	0.7489
	충부권	11	65.5	20.2	75.6	8.8	0.5983
	호남권	9	68.9	17.6	68.9	10.5	0.598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	-	-	-	-
	100만원대	1	60.0	.	40.0	.	.
	200만원대	5	68.0	11.0	70.0	11.5	0.3910
	300만원대	8	65.0	14.1	60.0	16.3	0.7412
	400만원대	19	63.2	15.3	66.3	15.0	1.0000
	500만원 이상	57	71.2	15.6	70.2	12.7	0.1806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고졸	-	-	-	-	-	-
	대졸 이상	90	68.7	15.3	68.1	13.8	0.2194
직업별	공무원	9	71.1	10.5	68.9	14.5	0.5983
	자영업	0	.	.	80.0	.	.
	판매 서비스직	4	75.0	10.0	60.0	16.3	0.2152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19	63.2	16.7	65.6	15.0	0.3332
	사무관리직	21	68.6	14.9	67.3	13.2	0.3800
	전문자유직	37	70.3	16.1	70.6	13.4	0.2936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주) paired t-test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6) 학교 주변 판매식품

가) 안전체감도

<표 6-27>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하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다섯 번의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상·하반기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조사 결과 연도별로는 작년대비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1.1%포인트 감소하였다. 2014년에 비해 ‘매우 불안’과 ‘불안’, ‘보통’의 비율이 각각 0.3%, 0.8%, 2.1% 증가하고, ‘안전’과 ‘매우 안전’은 각각 3.0%, 0.2% 감소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하반기에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반기에 비하여 11.8% 포인트 증가하였다. 전문가의 2015년 평균 안전체감도는 패널에 비하여 약 18%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7>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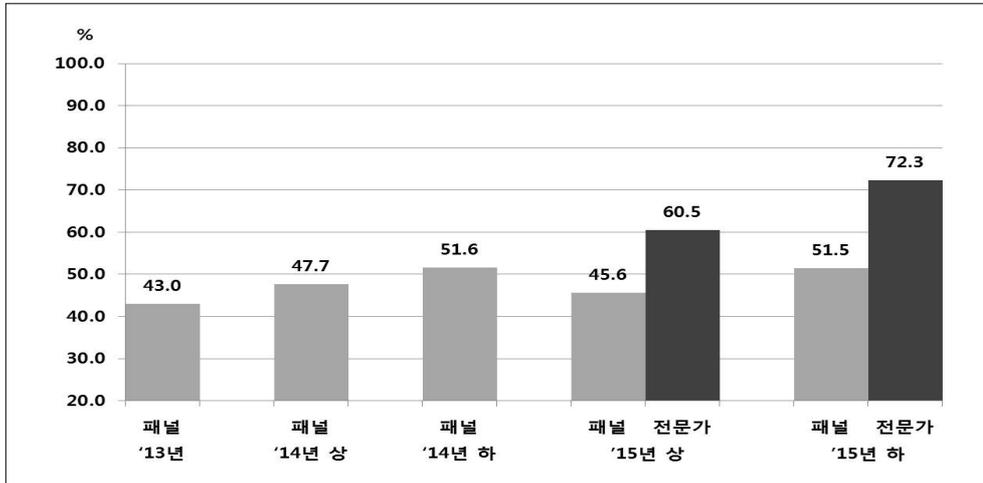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응답자 수	매우 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 안전	
패널	‘13년 조사	43.0	928	11.1	45.9	34.2	8.4	0.4
	‘14년 상반기 조사	47.7	970	6.3	46.0	36.8	10.6	0.3
	‘14년 하반기 조사	51.6	974	5.7	42.7	38.0	12.9	0.7
	‘14년 상·하반기 평균	49.7	-	6.0	44.4	37.4	11.8	0.5
	‘15년 상반기 조사	45.6	995	6.3	48.0	38.0	7.2	0.4
	‘15년 하반기 조사	51.5	984	6.2	42.3	41.0	10.4	0.2
	‘15년 상·하반기 평균	48.6	-	6.3	45.2	39.5	8.8	0.3
전문가	‘15년 상반기 조사	60.5	162	7.4	32.1	46.9	13.0	0.6
	‘15년 하반기 조사	72.3	166	4.8	22.9	53.6	18.7	-
	‘15년 상·하반기 평균	66.4	-	6.1	27.5	50.3	15.9	0.6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그림 6-6]에는 회차별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그림 6-6]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조사결과 비교



나) 일치도

<표 6-28>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842명 패널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응답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상반기에 ‘안전’으로 응답한 비율의 36.5%가 하반기에도 동일한 응답을 하였으며, 35.8%는 보통으로, 11.6%는 불안으로 응답하였다. 상반기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의 55.3%는 하반기에도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과 ‘불안’으로 달라진 응답을 한 경우는 각각 13.4%, 29.7%였다. 상반기에 ‘불안’으로 응답한 패널의 58.5%가 하반기에도 ‘불안’으로 응답하였으며, 30.1%는 ‘보통’, 5.5%는 ‘안전’으로 대답하였다.

<표 6-28> 2015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영역 체감도 일치도 평가

(단위: 명,%)

구분			하반기 조사				
			매우불안	불안	보통	안전	매우안전
상반기 조사	매우불안	응답수	20	25	8	0	0
		비율	37.7	47.2	15.1	0.0	0.0
	불안	응답수	24	235	121	22	0
		비율	6.0	58.5	30.1	5.5	0.0
	보통	응답수	4	95	177	43	1
		비율	1.3	29.7	55.3	13.4	0.3
	안전	응답수	0	14	26	23	0
		비율	0.0	22.2	41.3	36.5	0.0
	매우안전	응답수	0	1	1	1	1
		비율	0.0	25.0	25.0	25.0	25.0

다) 세부변수별

<표 6-29>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396명 패널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체감도 결과를 각 변수별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5점 척도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전체 체감도는 상반기 점수에 비하여 하반기 점수가 1.5점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에서, 연령군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대에서,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직업별로는 무직에서 하반기 체감도 점수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6-29> 2015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패널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842	49.6	14.9	51.1	15.3	0.0060	
성별	남	421	51.3	15.5	52.6	15.6	0.0748
	여	421	48.0	14.1	49.6	14.9	0.0360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연령군별	20대	134	50.1	16.4	50.6	15.1	0.7570
	30대	151	47.9	16.2	49.3	15.6	0.3464
	40대	168	50.0	14.7	52.3	15.8	0.0366
	50대	169	49.0	13.4	51.6	14.1	0.0322
	60대 이상	220	50.6	14.2	51.5	15.9	0.4155
권역별	수도권	275	49.2	15.1	49.9	15.0	0.4973
	영남권	249	49.2	14.4	50.9	14.6	0.0591
	중부권	173	50.3	15.0	51.4	15.7	0.3892
	호남권	145	50.3	15.3	53.5	16.5	0.0203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54	49.6	15.4	53.3	19.0	0.1147
	100만원대	134	48.8	15.2	51.8	15.2	0.0495
	200만원대	151	50.1	14.0	52.2	15.7	0.1099
	300만원대	159	49.4	13.8	49.7	13.8	0.8217
	400만원대	134	50.7	16.0	49.7	14.7	0.4550
	500만원 이상	208	49.4	15.2	51.5	15.5	0.0572
학력별	중졸 이하	78	50.8	13.9	52.8	15.1	0.2301
	고졸	304	49.9	14.6	51.1	16.0	0.1934
	대졸 이상	460	49.3	15.2	50.9	14.9	0.0288
직업별	공무원	14	57.1	20.5	57.1	22.0	1.0000
	자영업	85	51.8	14.2	50.8	14.7	0.5584
	판매 서비스직	48	50.0	14.9	49.6	16.5	0.8549
	기능직	30	50.0	14.6	56.0	18.5	0.0592
	사무기술직	194	48.8	15.9	50.6	15.0	0.1202
	사무관리직	99	50.7	16.0	52.3	15.3	0.3121
	전문자유직	27	49.6	15.1	52.6	12.6	0.3811
	주부	196	48.4	13.7	49.8	15.4	0.2239
	학생	69	50.4	15.6	50.7	14.8	0.8828
	무직	80	48.8	12.7	52.5	14.7	0.0182

주) * paired t-test

<표 6-30>에는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90명 전문가 대상으로,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체감도 결과에 대해 각 변수별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하반기 체감도가 상반기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군별로 40대 응답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반기 체감도가 상반기에 비하여 3.4점 상승하였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표 6-30〉 2015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 전문가 체감도 비교

구분		조사대상	상반기 조사		하반기 조사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132	54.7	16.2	57.1	15.5	0.0663
성별	남	82	56.1	15.5	58.3	15.1	0.1813
	여	50	52.4	17.1	55.2	15.9	0.2119
연령군별	20대	6	40.0	17.9	56.7	19.7	0.1852
	30대	32	52.5	16.7	55.0	17.6	0.4229
	40대	42	57.1	16.3	60.5	15.0	0.0331
	50대	38	56.8	12.8	57.4	13.3	0.8446
	60대 이상	14	52.9	20.2	51.4	15.1	0.5830
권역별	수도권	93	55.3	17.0	56.6	15.8	0.4416
	영남권	13	52.3	13.0	56.9	16.0	0.2735
	중부권	12	53.3	17.8	58.3	15.9	0.0819
	호남권	14	54.3	12.2	60.0	13.6	0.1039
소득 수준별*	100만원 미만	-	-	-	-	-	-
	100만원대	2	30.0	14.1	40.0	0.0	0.5000
	200만원대	8	52.5	21.2	60.0	15.1	0.0796
	300만원대	10	50.0	10.5	54.0	13.5	0.1679
	400만원대	30	56.7	13.0	60.7	16.2	0.2061
	500만원 이상	82	55.4	17.0	56.3	15.4	0.5669
학력별	중졸 이하	-	-	-	-	-	-
	고졸	-	-	-	-	-	-
	대졸 이상	132	54.7	16.2	57.1	15.5	0.0663
직업별	공무원	11	54.5	15.7	60.0	15.5	0.0816
	자영업	1	60.0	.	60.0	.	.
	판매 서비스직	4	55.0	19.1	60.0	16.3	0.3910
	기능직	-	-	-	-	-	-
	사무기술직	27	53.3	18.4	56.3	19.2	0.4899
	사무관리직	34	55.9	16.9	55.3	14.8	0.7861
	전문자유직	55	54.5	15.1	57.8	14.2	0.0832
	주부	-	-	-	-	-	-
	학생	-	-	-	-	-	-
	무직	-	-	-	-	-	-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2. 부가조사

가. 주요 정보 구득원

<표 6-31>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차의 조사결과와 올해부터 조사에 추가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15년 상·하반기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조사 결과 매해 결과는 유사하였고, 방송매체를 주요 구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는 인터넷 지식정보, 인쇄매체 순이었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패널과 달라서 정부를 주요 구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대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인터넷 지식정보, 방송매체 순이었다.

<표 6-31> 2015년 상·하반기 정보 구득 매체 비교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38.4	35.5	36.6	36.6	-	-	21.7	18.4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27.9	27.9	26.4	26.4	-	-	24.3	25.1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17.1	18.1	17.4	17.4	-	-	19.9	16.9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10.0	11.0	11.8	11.8	-	-	30.1	35.3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3.5	7.2	7.0	7.0	-	-	2.9	2.7
기타	0.2	0.3	0.8	0.8	-	-	1.1	1.6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나. 영향 요인

<표 6-32>에는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의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4회차에 걸쳐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와 올해부터 조사에 추가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5년 상·하반기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 조사 결과 매해 방송매체가 주요 영향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5년 상반기 결과에서 본인 및 가족의 경험을 주요인으로 선택한 비율이 26.4%로 다른 회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 조사 결과 언론 보도를 주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패널과 다르게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에서는 그 외 다른 요인을 선택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6-32> 식품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비교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언론 보도(뉴스, 방송 프로그램 등)	62.4	61.7	36.6	54.3	-	-	53.1	59.6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1.0	11.5	26.4	19.0	-	-	8.6	6.6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13.4	12.5	17.4	13.7	-	-	33.3	29.5
주변 사람의 의견	3.1	2.9	11.8	9.0	-	-	3.1	1.2
정부의 보도 자료	2.8	3.1	7.0	3.9	-	-	1.9	2.4
막연한 불안감	7.0	8.0	-	-	-	-	0.0	0.6
기타	0.3	0.3	0.8	0.1	-	-	-	-

다.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가장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조사는 부가조사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졌다.

<표 6-33>에는 2015년 상·하반기 식품 패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복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패널과 전문가에서 모두 제시된 10가지 정책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 나트륨 줄이기 운동,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표시 확대 정책이 상위 4위 안에 포함되었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선택한 비율은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응답 비율이 패널 12.5%, 13.1%이고 전문가에서 10.4%, 11.5%로 전문가 보다 패널에서 더 많은 비율이 잘 추진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 활성화는 전문가는 21% 이상, 패널은 16%대로 전문가에서 더 많은 비율이 잘 추진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표 6-33> 2015년 상·하반기 가장 잘 추진되는 정책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5 상반기	'15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16.0	16.1	24.2	21.0
나트륨 줄이기 운동	12.5	13.1	10.4	11.5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12.2	10.8	12.3	11.1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11.7	10.6	11.4	12.0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9.6	11.4	7.3	9.7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8.9	8.7	8.7	10.0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7.5	8.5	6.1	7.2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7.0	7.4	5.6	5.4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6.8	7.2	7.3	5.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6.0	5.6	6.5	6.6
기타	1.7	0.7	0.2	0.2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라.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6-33>에서 선택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6-34>에 제시되어있다.

2015년 부가조사로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2015년 상·하반기 조사결과만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조사대상자는 식품 패널과 전문가였다.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보면 상·하반기 모두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을 최우선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다른 이유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패널 조사 결과는 상반기에는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을 선택한 비율이 34%로 가장 컸지만, 하반기 조사에서는 관련 정책 추진이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되었음을 선택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는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됨을 선택한 비율(16.7%, 15.7%)보다 식품관련 사건·사고가 감소 되었음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22.25%, 17.5%)이 더 높은 점이 패널 조사 결과와 다른 점이었다.

<표 6-34> 2015년 상·하반기 정책이 잘 추진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비교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5 상반기	'15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34.0	33.1	46.9	33.1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30.5	36.6	16.7	15.7
식품관련 사건·사고 감소	18.9	15.4	22.2	17.5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인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10.8	8.6	5.6	6.6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4.4	4.0	4.9	1.8
기타	1.4	2.4	3.7	5.4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nsoft.com)

마. 불량식품 근절 노력

<표 6-35>에는 식품 패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식품패널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상반기의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부터 올해 하반기 조사까지 총 4회차 조사가 되었고, 전문가 대상 조사는 2015년 상반기 이후 총 2회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알고 있음과 잘 알고 있음을 선택한 비율은 감소하고 있었다. 2015년 상반기에 비하여 패널의 인지 정도는 5.4% 포인트 증가하였고, 전문가의 인지 정도는 5.1%포인트 증가하였다. 전문가의 인지 정도가 패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35>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인지 정도 결과 비교

(단위: %)

구분	식품안전 체감도	패널 수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패널	'14년 상반기 조사	76.9	970	2.1	21.0	42.3	31.3	3.3
	'14년 하반기 조사	78.1	974	2.6	19.3	43.9	30.4	3.8
	'14년 상·하반기 평균	77.5	-	2.4	20.2	43.1	30.9	3.6
	'15년 상반기 조사	75.2	995	3.8	21.0	46.0	27.1	2.0
	'15년 하반기 조사	77.6	984	5.8	16.7	42.9	31.7	3.0
	'15년 상·하반기 평균	76.4	-	4.8	18.9	44.5	29.4	2.5
전문가	'14년 상반기 조사	-	-	-	-	-	-	-
	'14년 하반기 조사	-	-	-	-	-	-	-
	'14년 상·하반기 평균	-	-	-	-	-	-	-
	'15년 상반기 조사	90.1	162	1.2	8.6	29.6	45.1	15.4
	'15년 하반기 조사	95.2	166	0.6	4.2	25.3	50.6	19.3
	'15년 상·하반기 평균	92.7	-	0.9	6.4	27.5	47.9	17.4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바. 불량식품 유통 이유

<표 6-36>에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2014년 상반기 조사 이후 패널 응답자 중 40% 이상이 매 회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반면에 전문가는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이 불량식품 유통의 주원인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35%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6>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비교

(단위: %)

항목	패널				전문가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14 상반기	'14 하반기	'15 상반기	'15 하반기
합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43.7	42.7	45.2	43.8	-	-	29.6	28.9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19.3	21.4	19.3	19.8	-	-	35.2	35.5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21.1	21.5	16.8	19.2	-	-	21.0	26.5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9.2	7.4	9.8	8.8	-	-	8.6	2.4
정부의 단속 소홀	5.9	6.1	8.4	8.0	-	-	3.7	4.8
기타	0.8	1.0	0.4	0.3	-	-	1.9	1.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표 6-7>에는 2015년 상·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를 바탕으로 안전체감도를 서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패널 조사 결과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하반기 조사에서 1.9점 상승하였으며, 그룹별로 분류하면 남성 및 여성, 50대, 60대 이상,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100만원대, 300만원대, 중졸 이하, 고졸, 자영업, 무직에서 상반기에 비하여 체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그룹별로 분류하면 40대, 호남권, 전문자유직에서 상반기에 비하여 체감도가 상승하였다.

나. 수입식품의 안전 영역에서 패널 조사 결과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별로 100만원대인 경우 하반기 체감도가 상승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상하반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세부 그룹은 없었다.

다. 제조·유통식품의 안전 영역에서 패널 조사 결과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별 자영업인 경우에 하반기 체감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상하반기 사이 유의적인 체감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그룹별 분류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라. 외식의 안전 영역에서 패널 및 전문가 조사 결과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패널 조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세부 그룹은 없었다. 전문가 조사에서 소득별 300만원대인 경우 하반기 체감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단체급식의 안전 영역에서 패널 조사 결과 안전체감도는 하반기 조사에서 2.1점 하락하였으며, 권역별로 수도권에서, 직업별로 주부에서 안전체감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 그룹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곳은 없었다.

바.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 영역에서 패널 조사 결과 안전체감도는 하반기 조사에서 1.5점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그룹별로 보면 여성에서, 40대와 50대에서, 호남권에서, 월 소득 100만원대에서, 대졸 이상, 무직에서 체감도가 상승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권역별로 수도권에서, 직업별로 주부에서 안전체감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 그룹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곳은 없었다. 상하반기 조사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 40대에서 하반기 안전체감도가 상승하였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제1절 결론

2015년에 상·하반기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를 실시함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총 5회차 조사가 완료되어 시계열적 비교, 분석이 제대로 산출되었다.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는 다른 해와는 달리 전문가 조사를 포함시켰고, 부가조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대표 정책 10여가지에 대한 추진체감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발전의 흐름 속에 식품안전체감도가 처해있는 현황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 국가통계로 승인을 못 받는 이유 및 향후 식품안전체감도를 포함하여 식품분야 통계가 나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었다.

현 조사체계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통계청의 사회통계를 대체하고, 식품분야의 대표적인 국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별 연구과제가 수행중에 있다. 식품패널 수의 확대 및 조사예산이 증가되어야만 통계학적으로 오차가 적은 조사결과를 생산할 수 있고 또 부가조사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식품안전체감에 관한 소통의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에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인 패널조사 결과와는 10여점 이상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런 간극은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즉, 대체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식품안전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문가와 경험, 주변의견 등에 의존한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일반인간의 간극은 줄이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미래전략 수립에 노력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도 향후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1.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체계 재 설계

2013년부터 조사를 실시해온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의 설계는 2011년 국무총리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수탁과제 결과를 근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화하면서 조사설계 목적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조사규모 등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노정되었다. 애당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실적으로 패널 수도 1,000명으로 국한하였으나 현재 4대 불량식품 근절의 한 축으로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조사하고, 나아가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대체하기에는 조사대상 규모가 적어 지역별 조사결과도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정부에서 가칭 제2기 식품안전 패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설계가 내년부터 향후 2년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 및 표본설계, 패널 구축, 조사표 개발 및 사전조사가 우선 실시되어야만 2018년부터 사회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패널 조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부가조사 내실화

2015년은 2013년 처음 설문지가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나뉘어 개발된 이래 처음으로 부가조사 내용을 수정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부가조사는 해마다 현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는 조사로 올해는 10여개 대표적인 식품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를 조사하여 안전체감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되었다. 하지만 상반기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를 조사 못하였는데 이것 것들을 보완하여明年에는 더욱 충실한 부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조사대상 전문가 무작위 추출

현재 식품안전체감도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200여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가 2회차 실시되었는데 평균 식품안전체감도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어 이 수치의 정확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내년에는 무작위로 전문가를 추출하여 올해와 동일한 기본, 부가조사를 실시해보면 유작위추출로 선정된 올해 전문가 체감도와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2009~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2009~2014).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09~2015).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1~2014). 식품의약품 안전백서.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2011). 신호등표시로 우리아이 영양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 어린이 기호 식품 신호등표시제 기준 및 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1.03.2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13년 대통령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3.03.2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 어린이날 대비 학교 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 실시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3.04.15).
- 식품저널(2010~2015). 식품유통연감. 서울: 식품저널.
- 안국찬, 목진휴, 박기묵, 김성철(2010). 사회조사와 통계기법. 법문사.
- 이동률(1998). 표본추출의 의의와 표본추출설계시 고려사항 및 표본의 크기. 고시연구, 288(3), pp.397~399.
- 이승신(201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학교주변 식품판매환경 개선방안 소통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회 소비자포럼 발표자료(2013.10.04).
- 정기혜 외(2014). 2014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3). 2013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3).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2).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 시스템 구축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기혜 외(2012). 식품안전에 관한 시계열적 인식파악을 위한 조사설계.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2011).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 안전처 연구비 지원.
- 한희선(2009). 조사설계를 위한 사회조사분석. 경기: 한국학술정보.
- 통계청(2009). 국가통계 실무지침(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15). 제11차 국가통계위원회 회의 안건: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2015.10.07.) .
- 통계청(2013).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자료(2013.10.0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4/1/index.board?bmode=read&aSeq=309045 에서 2013.10.12. 인출.
- Babbie, Earl R.(2009).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Cengage Learning. 고성호, 김광기, 김상욱(역).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Cengage Learning.
- Bartlett, J. E., II, Kotrlik, J. W., & Higgins, C.(2001). Organizational research: Determining appropriate sample size for survey research. *Information Technology, Learning, and Performance Journal*, 19(1), pp.43~50.
- European Commission(2015). Standard Eurobarometer 83: Public Opinion in the European Union. 2015. 7.
- European Commission(2015). Special Eurobarometer 354: Food-related risks. 2010. 11.
- Food Standard Agency(2015).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 Wave 10, May 2015.
- Food Standard Agency(2015). Biannual Public Attitudes Tracker: Wave 9, November 2014.
-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2015). 2015 Food & Health Survey: What's Your Health Worth?.
-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2014). 2014 Food & Health Survey: The Pulse of America's Diet: From Believe to Behaviors.
- Kenny, David A.(1987). *Statistics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Boston: Little, Brown.
- Kirkwood, James; Robert Hubrecht(2010). *The UFAW Handbook on the Car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d Other Research Animals*. Wiley-Blackwell, pp. 29.
- Kish, L.(1995). *Survey Sampling*. Wiley-Interscience.
- NIST/SEMATECH. 7.2.4.2. Sample sizes required. e-Handbook of Statistical Methods.
- 식품안전위원회(2015). 식품안전모니터-課題報告 「食品の安全性に関する情報源について」の結果 (平成27年2~3月実施) .
- 식품안전위원회(2015). 식품안전모니터-課題報告 「食品の安全性に関する意識等について」 (平成26年8月実施) の結果.
- 식품안전위원회(2014). 식품안전모니터-課題報告 「食品안전위원회에서入手した情報の利用等に

- ついて」(平成26年2月**実施**)の結果.
- 食品安全委員会(2014). 食品安全モニター課題報告「食品の安全性に関する意識等について」(平成25年8月**実施**)の結果.
- 食品安全委員会(2013). 食品安全モニター課題報告「食品の安全性に関する情報等について」(平成25年2月**実施**)の結果.
- 食品安全委員会(2012). 食品安全モニター課題報告「食品の安全性に関する意識・食品安全委員会からの情報発信等について」(平成24年3月**実施**)の結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열량저영양판별프로그램. <http://www.mfds.go.kr/jsp/page/decintro.jsp> 에서 2013.12.10. 인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cfsm.foodnara.go.kr/home>.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European Commission, Public Opinion.
http://ec.europa.eu/public_opinion/index_en.htm
- Food Standard Agency, Biannual Public Attitude Tracker Survey.
<http://www.food.gov.uk/science/research/ssres/publictrackingsurvey>.
-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 Food Insight: Your Nutrition and Food Safety Resource. <http://www.foodinsight.org/research>.
- 食品安全委員会, 食品安全モニターからの報告.
https://www.fsc.go.jp/monitor/monitor_report.html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부록 1.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5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설문지

인 사 말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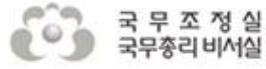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5년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라는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정보, 식품사고 및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정책 등에 대한 식품패널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응답자 ID	조사표 번호	조사원 ID

※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	전 화 번 호
조사 담당자	() -



**조사표 기입
요령**

- ◆ 각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표하거나 □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고, **주된 응답**은 1개만 응답하십시오.

I 기본조사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작년에 비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크게 떨어짐
 - 2 떨어짐
 - 3 동일
 - 4 나아짐
 - 5 크게 나아짐
- **1-1** 향으로
- **2** 향으로
- **1-2** 향으로

1-1 작년 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빠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안전 규제 개선 불충분
- 2 사업자의 법령 준수 및 위생관리인식 저조
- 3 정부의 식품안전 정보 제공이 불충분
- 4 식품안전관리 국가 체계 부적절
- 5 지자체 등 정부의 점검, 단속 불충분
- 6 기타(내용:)

1-2 작년 대비 올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지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범 및 역할 수행
- 2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 근절 포함 및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 3 식품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 4 수입식품, 국내생산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 5 식품안전규제 등 법, 제도 정비
- 6 기타(내용:)

◆ 다음부터는 세부분야별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입니다.

수입 식품의 안전

2 귀하께서는 수입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매우 불안 <input type="checkbox"/> 2 불안 <input type="checkbox"/> 3 보통 <input type="checkbox"/> 4 안전 <input type="checkbox"/> 5 매우 안전	} →	2-1 향으로 3 향으로
---	-----	--

2-1 수입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2 정부의 검사 및 관리 미흡
- 3 언론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수입식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
- 5 위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저가 식품 수입
- 6 기타(내용: _____)

유통 식품의 안전

3 귀하께서는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매우 불안 <input type="checkbox"/> 2 불안 <input type="checkbox"/> 3 보통 <input type="checkbox"/> 4 안전 <input type="checkbox"/> 5 매우 안전	} →	3-1 향으로 4 향으로
---	-----	--

3-1 제조·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식품제조업체의 영세성
-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3 정부의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관리 미흡
- 4 제조, 유통업체의 관리 소홀로 식품 보관(냉장, 냉동)이 부적절
- 5 저가의 원재료 사용
- 6 기타(내용: _____)

외식의 안전

4 귀하께서는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매우 불안 <input type="checkbox"/> 2 불안 <input type="checkbox"/> 3 보통 <input type="checkbox"/> 4 안전 <input type="checkbox"/> 5 매우 안전	} →	4-1 향으로 5-0 향으로
---	-----	--

4-1 밖에서 사먹는 음식(외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 2 지자체 등 정부의 위생감시 및 관리 소홀
- 3 저가 식재료 사용 선호
- 4 실제로 비위생적인 음식 제공
- 5 객관적인 음식점 위생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 6 기타(내용: _____)

단체 급식의 안전

5-0 귀하께서는 학교나 보육시설, 회사, 군대 급식 등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현재 급식대상자이신가요?

1 예 → **5** 항목으로

5 아니요 → **6** 항목으로

5 우리나라 단체급식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안 }
 2 불안 } → **5-1** 항목으로

3 보통 }
 4 안전 }
 5 매우 안전 } → **6** 항목으로

5-1 학교 및 보육시설, 회사, 군대의 급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급식관리자나 식재료공급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2** 정부의 관리 미흡
- 3** 언론에서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 4** 실제로 비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식중독 발생
- 5** 손씻기 등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
- 6**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
- 7** 기타(내용:)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안전

6 귀하께서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안

2 불안

3 보통

4 안전

5 매우 안전

→ 6-1 항목으로

→ 7 항목으로

6-1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원인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식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2 정부의 현장 감시, 관리 미흡

3 언론의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불안감 보도

4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 판매

5 학교주변 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

6 저가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7 기타(내용:)

식품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7 귀하께서는 올해 (2015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1 매우 불안	2 불안	3 보통	4 안전	5 매우 안전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8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1 크게 떨어질 것	2 떨어질 것	3 동일할 것	4 나아질 것	5 크게 나아질 것
내년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수준					

9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부 발표의 신뢰성 강화
- 2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련 법, 규정의 개선
- 3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
- 4 정부 정책 홍보 강화
- 5 식생활 등 식품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
- 6 기타(내용:)

II 2015년도 부가조사

식품안전 관련 정보 이용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귀하께서 평소에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복선택)

1 정부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2 인쇄매체 :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3 방송매체 : TV, 라디오 등

4 인터넷 지식정보 : 포털, 블로그 등

5 SNS : 트위터, 페이스북 등

6 기타(내용: _____)

11 평상시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본인 및 가족의 경험

2 전문가 의견 등 과학적 사실

3 언론 보도(TV, 라디오 등)

4 주변 사람의 의견

5 정부의 보도 자료

6 기타(내용: _____)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12 다음 정책 중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 1** 농수산물에 대한 현장 신속검사 강화
-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 3** 위해제품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 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5**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대국민 정보 공개
- 6** 영양표시, 알레르기 표시, 식품용 기구 표시 확대
- 7** 학교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9** 학교주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10** 나트륨 줄이기 운동
- 11** 기타(내용: _____)

12-1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자주 보도
- 2** 관련 정책 추진 실적이 신문 등 인쇄매체에 자주 보도
- 3** 식품관련 사건·사고 감소
- 4** 정책추진결과를 실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음
(예: HACCP 인증 마크, 저나트륨 외식업소 인증 등)
- 5** 관련 업체의 위반율 감소
- 6** 기타(내용: _____)

불량식품 근절

13 귀하께서는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정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항목	① 전혀 모름	② 모름	③ 보통	④ 알고 있음	⑤ 잘 알고 있음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 노력					

14 귀하께서는 평소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불량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함
- 2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 3 불량식품 판매에 의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발생
- 4 불량식품을 사먹어도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 5 정부의 단속 소홀
- 6 기타(내용: _____)

※ 긴 시간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문서는 한글과컴퓨터 한/글 뷰어 2007로 인쇄한 문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정품을 구매하시면 보다 향상된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www.haansoft.com)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한 정책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조사는 비확률 할당표본으로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활용시 유의바랍니다.